결과보고서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투자 콘텐츠 제작

2021. 12.

한국관광공사

제 출 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투자 콘텐츠 제작”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주식회사 피디엠코리아

대표이사 오 희 택

목 차

1. 과업의 개요 ····· 1

2. 관광투자유치 월간동향 ····· 5

3. 관광투자유치 분기동향 ····· 73

4.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투자 전문가 기고 ····· 79

1. 과업의 개요

한국관광공사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투자 콘텐츠 제작

2) 과업의 목적

○ 공사 홈페이지 내 <관광투자지원>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관광개발·투자 콘텐츠 제작

○ 지역 관광자원개발 담당자 및 예비투자자 대상 정보제공으로 투자유치 기반조성

3) 과업기간 : 2021. 03. 29. ~ 2021. 12. 10.

4) 과업내용

○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투자 관련 뉴스(주간별) 제공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투자 관련 주별 주요뉴스 선별

○ 월별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투자 리포트 제작

- 월별투자 동향, 관광동향 분석(국내외 관광객 동향, 관광수지 등 통계치 제시)

- 민간부문 투자동향(5개 내외)과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5개 내외)로 구분하여 뉴스 개재

○ 분기별 관광투자 리포트 제작

- 월별투자동향 취합 및 뉴스 선별, 분기 종합 투자동향 리포트 제작

○ 분기별 전문가 기고문(국문) 제작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투자 관련 분기별 동향·이슈에 대한 전문가 원고 의뢰 및 기고문 제작

-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투자 세부 분야별 투자동향, 투자이슈, 트렌드 분석

○ 종합리포트 제작

- 월간, 분기별, 전문가 기고문를 종합 취합·편집하여 연간 리포트로 제작

2. 관광투자유치 월간동향

한국관광공사

1월 주요 이슈

keyword 코로나19

■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 경기 수원 -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한옥체험마을 조성
- 경남 합천 - 합천영상테마파크, 지역 핵심 관광지로
- 강원 태백/정선 - '폐광지 철도역사 부활'…새 관광자원 추진
- 경북 영덕 - 해파랑공원 내 높이 140m 규모 대관람차 설치

■ 민간부문 투자동향

- 충남서산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 4년간 민자 4천억 원 투자
- 소노호텔&리조트, 충남 보령 원산도 2천 실 규모 리조트 건립
- 하동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본격 추진 전망
- 전주시-롯데쇼핑,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기본구상 발표

1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공공부문

■ 주변 관광지 연계한 관광거점 조성사업 탄력

- 각 지자체에서는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신규 관광거점을 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임
- 경기 수원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내 한옥체험마을 조성계획을 밝힘. 연면적 3천㎡ 규모의 '남수동 한옥체험마을'(가칭)은 총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10월 완공 예정임. 수원시는 금번 사업을 계기로 수원화성과 행리단길, 야간관광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자 함
- 경남 합천군은 지역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함. 남부내륙고속철도 등과 연계한 남부권 영상관광의 중심도시를 목표로 2024년 완공 예정임
- 강원도는 폐광지역인 태백과 정선 일원의 철도역사를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함.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3억원을 투입하여 테마공원과 레일바이크, 전망타워 등 관광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 경북도와 영덕군은 해파랑공원 내 국내 최대규모인 높이 140m, 15인승 케빈 48대 규모의 관람차 조성 계획을 밝힘.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되며, 영덕 해상케이블카·대게거리·해파랑공원과 연계한 신규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됨

민간부문

■ 호텔·리조트 등 체류형 관광휴양시설 투자 활발

- 국내여행 수요 증가·호캉스 선호 등 관광 트렌드 변화를 기반으로 민간의 체류형 관광·휴양시설 투자에 귀추가 주목됨
- 충남 서산시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이 선정되어 2024년까지 총사업비 4천억원을 투입, 5만5천892㎡부지 내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상가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임
-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충남 보령 인근 원산도 해저터널 조성을 필두로, 소노호텔&리조트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2천30실 규모의 리조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해상케이블카·해양치유센터 등 연계 기반시설 조성 또한 예정되어 있음
-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3천139억원 규모의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빌리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임. 본 사업은 2.72㎢ 부지 내에 27홀 골프장을 비롯한 호텔, 테마 빌리지 및 주거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함
- 지난 2019년 전주시와 롯데쇼핑은 협약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12만여㎡)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발표된 기본구상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0실 이상 규모 호텔 및 국제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쇼핑센터 등을 기부채납 형태로 조성하게 됨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 여주 남한강에 '515m 출렁다리' 내년 6월 완공

- **신륵사~금은모래관광지 연결...국가하천에는 첫 설치**
- 경기 여주시는 2월 초 지역 숙원사업인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힘
-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는 현수교 형태로 남한강으로 단절된 신륵사관광지(천송동)와 금은모래관광지구(상동)를 잇게 되며 내년 6월 말 완공 예정임
- 총연장 515m에 폭 2.5m 규모로 2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교량 자체에 에코라이더 등 체험형 관광상품도 마련됨



- 현재 국내 최장 출렁다리는 길이 402m의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이나, 남한강에 출렁다리가 설치되면 전국 국가하천 가운데 최초이며, 총연장에서는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에 이어 국내 2번째가 될 전망임
-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여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신륵사관광지와 금은모래관광지구가 연결돼 박물관, 도예단지, 캠핑장 등을 아우르는 관광집약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폐광지 철도역사 부활'...강원도 새 문화관광자원 추진

- **2024년까지 총 193억 투입...태백·정선 각 3개역 대상**
- 강원도는 태백과 정선의 주요 역사와 주변 지역을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함
- 올해 3억원의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모두 193억원을 투입해 태백시 3개역, 정선군 3개역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임
- 태백역에는 황지연못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발원지 스토리파크와 중심상권과 연계된 광부의 밥상길이, 철암역은 산업유산 등을 활용한 탄광생활체험공원을, 추전역은 고도를 활용한 별빛도서관과 별빛 꿈의 길이 조성될 계획임



- 정선역에는 정선5일장과 연계한 아라리로와 아리랑 고갯길이 들어서게 되며, 나전역은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검정고무신 테마공원이, 아우라지역에는 레일바이크, 줄배체험과 연계 가능한 전망타워 등을 추진함
- 강원도는 이 사업을 통해 중부내륙순환열차(O-train), 백두대간 협곡열차(V-train), 정선아리랑열차(A-train)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개발되면 철도관광 메카로 자리 잡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 봉화 산타마을 250억원 들여 관광명소 재도약

- **2023년까지 250억 투입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 경북 봉화군은 소천면 분천역 인근에 조성한 '산타마을'의 관광명소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에 착수함
- 백두대간 탐방 열차가 출발하는 분천역 산타마을은 관광지 조성 후 하루 10명 가량 이용하던 시골 간이역에서 1천여 명이 찾는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됨
- 2016년 한국관광의 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지에도 선정된 바 있는 산타마을의 재도약을 위하여, 군은 2023년까지 250억원을 들여 추가로 분천 산타마을 조성과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올해까지 42억원을 투입해 산타의 집, 대형트리, 산타클로스 길, 순환산책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식당가와 기념품 가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게 됨
- 5만㎡의 부지에는 유희시설존, 체험시설존, 어트랙션(공연물)존 등이 들어서며 유희시설존의 사계절썰매장와 산타숲·산타물놀이장을 비롯해 체험시설존의 산타박물관과 요정마을·요정 숲, 어트랙션존의 관광트램, 가상현실(VR)체험 산타마을, 다목적 광장 등을 설치하고자 함

▣ 예천곤충생태원, 디지털 테마파크로 바뀐다

- **총 97억 사업비 투입, 아날로그 관광 요소와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한 전시관으로**



- 경북 예천군은 97억원을 투입, 관람시설 디지털화를 통해 예천곤충생태원을 디지털 테마파크로 조성할 예정임
- 살아 있는 곤충, 자연환경 등 아날로그 관광 요소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과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국내에서 관찰할 수 없는 희귀 곤충과 외국 서식 곤충을 증강현실에서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음
- 또한, 가상현실 곤충생태원과 곤충 키우기 앱을 개발해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살아있는 곤충을 365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년 12월까지 콘텐츠를 구축 완료 후 2023년께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 영덕 강구에 높이 140m 규모 대관람차 설치..500억 투자

- **해파랑 공원 내 국내 최대, 세계 5번째 규모로 조성**



- 경북도와 영덕군은 강구면 해파랑 공원에 높이 140m, 직경 120m, 15인승 케빈 48대 규모의 대관람차인 영덕 아이(가칭)를 조성하고자 함
- 높이를 기준으로 현재 운행 중인 대관람차 가운데 국내 최대, 세계에서 5번째 규모이며,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임
- 도와 군은 대관람차 준공 시 영덕 해상케이블카, 대게거리 등과 연계하여 연간 약 80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함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광양경자청, 하동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 **두우레저개발 대체 지정 고시, '웰니스 라이프빌리지' 추진**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두우레저개발'을 오는 28일 대체 지정해 고시한다고 밝힘
- 이번 지정으로 2.72㎢ 부지에 총사업비 3천139억원 규모의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빌리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며,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빌리지는 27홀 골프장을 비롯한 호텔, 테마 빌리지 및 주거시설 등으로 구성될 계획임
- 두우레저개발은 지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지난해 12월 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군과 개발사업 이행협약을 한 바 있음
- 이 사업은 향후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함

▣ 경남 고성군에 컨벤션홀 갖춘 유스호스텔 2022년 준공

- **사업비 240억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 시설 조성**



- 경남 고성군에 객실 48실과 300명 규모 컨벤션홀을 비롯하여 회의실과 카페테리아, 편의점, 체력단련실, 세탁실을 갖춘 유스호스텔이 건립될 예정임
- 해당 시설은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는 경남 고성군에 최초로 조성되는 것으로, 고성읍 주요 체육시설 반경 5㎞ 내 바다가 보이는 신월리 산 10번지에 위치하며 2022년 10월 준공될 계획임
- 고성군에 발전소를 짓는 민자 발전회사 고성그린파워가 사업비 240억원을 부담해 유스호스텔을 짓고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추진됨

▣ 시흥 관상어 테마파크 '아쿠아펫랜드' 착공

- **2022년 8월께 준공 전망, 시 "코로나19 등으로 착공 지연"**
- 경기 시흥시는 관상어 전문 테마파크 '아쿠아 펫 랜드'가 조성에 착수함
- 아쿠아 펫 랜드는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내 상업유통용지 2만3천345㎡ 부지에 국·도·시비 75억원과 민간 자본 등 총 860억원(용지매입비 255억원, 조성비 605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시설로, 계획대로 공사 진행 시 2022년 8월 또는 9월께 완공해 개장할 전망임



- 관상어 생산과 판매는 물론 관련 용품 제작 및 판매, 교육, 관상어 관련 기술 연구 등이 이뤄지고, 관상어 수출도 추진하게 됨
- 시는 테마파크가 개장되면 미래 유망산업인 관상어 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며, 2025년 완공 예정인 인근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해외 관광객을 포함,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임
- 또 국내 관상어 시장 연간 4천100억원, 세계 관련 시장 규모가 45조원에 이르므로 향후 관련 영세업소들의 경쟁력을 높여 1천1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한류 체험공간 '창원 SM타운' 올해 상반기 개관할 듯

- **창원시의회 기부채납 건 처리…운영조례 제정 등 남아**
- 유명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에 참여하는 경남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이하 SM타운)이 올 상반기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됨
- 창원시의회는 19일 오후 임시회 2차 정례회에서 SM타운과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건을 포함한 2021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처리했으며, 관리계획안 가결로 민간사업자 '창원 아티움시티'가 지은 SM타운 건물(806억 원)과 공영 주차장(204억 원) 소유권이 다음 달 준공 이후 창원시로 넘어오게 됨



- 당 사업은 '창원 아티움시티'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짓고 분양수익으로 호텔, 공연장, 뮤지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10층짜리 SM타운과 근처에 차량 500대가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절차로 추진했으며,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20년간 콘텐츠 제공 등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임
- 시는 4~6월 경 SM타운 개관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타운 내에는 홀로그램 공연장, 호텔, 뮤지엄 외에 동남아, 중국 한류 팬을 겨냥한 한류 체험시설이 SM타운에 입주한다고 밝힘

▣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속도 낸다…부지 재생 기본구상 발표

- **백화점~호텔~컨벤션센터 지하로 연결…대중교통 환승센터도 검토**
- 27일 전주시는 체육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12만여㎡)를 개발하기 위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기본구상(안)'을 발표함
- 1963년 시민 성금으로 지어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도시 숲과 미래 먹거리인 마이스(MICE)산업 부지로 조성,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2019년 전주시는 롯데쇼핑과 협약을 통해 체육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종합경기장 부지를 편익 시설과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음



- 해당 내용은 경기장 부지의 3분의 2에는 정원·예술·놀이·미식을 주제로 한 '시민의 숲'을 만들고, 나머지 3분의 1에는 롯데가 국제규모의 전시장과 국제회의장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와 200실 이상 규모의 호텔, 백화점·영화관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임
- 협약에 따라 종합경기장 소유주인 전주시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는 판매시설 부지를 롯데쇼핑에 50년 이상(최대 99년) 장기임대해주고, 롯데쇼핑은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어 시에 기부 채납하게 됨

2021년 관광동향 분석 (2020년 1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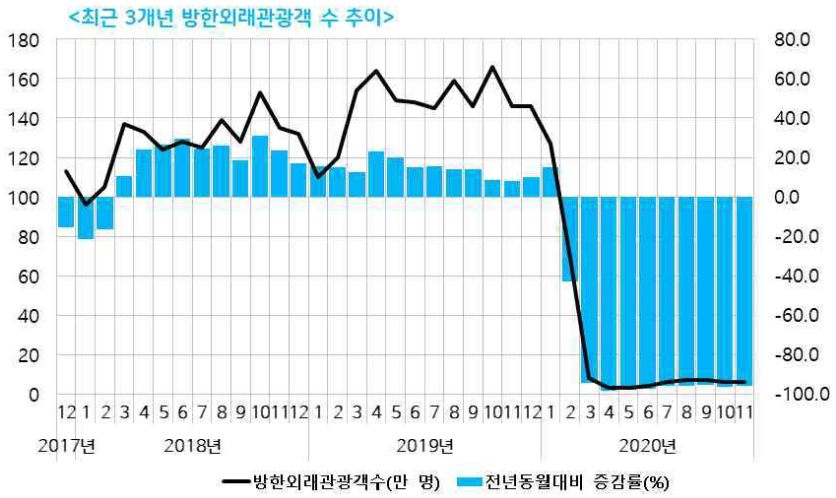
▣ 방한외래관광객

▸ 11월 방한외래관광객 61,764명, 전년동월(1,456,429명)대비 95.8% 감소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4년	14,201,516	16.6
2015년	13,231,651	-6.8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년 11월	**61,764**	**-95.8**
2020년	2,456,774	-84.7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1,254명 (99.5% 감소)
- 중국관광객 9,174명 (98.2% 감소)
- 미국관광객 13,100명 (84.1% 감소)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4년	2,280(-17.0)	6,127(41.6)	770(6.6)	644(18.2)	558(39.4)	214(22.2)
2015년	1,838(-19.4)	5,984(-2.3)	768(-0.3)	518(-19.5)	523(-6.3)	188(-12.3)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년 11월	**1(-99.5)**	**9(-98.2)**	**13(-84.1)**	**0.3(-99.7)**	**0.09(-99.8)**	**2(-93.2)**
2020년	430(-85.8)	678(-87.7)	208(-78.4)	166(-85.8)	89(-85.7)	71(-77.5)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33,950명 (97.2% 감소)
- 미주 14,966명 (86.0% 감소)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4년	11,709(18.9)	155(18.9)	974(6.4)	849(10.5)	178(11.2)	44(1.5)
2015년	10,799(-7.8)	168(8.5)	974(0.0)	806(-5.0)	168(-5.5)	45(1.1)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년 11월	**34(-97.2)**	**1(-94.2)**	**15(-86.0)**	**9(-89.2)**	**0.4(-97.8)**	**0.8(-83.2)**
2020년	1,882(-85.6)	42(-82.2)	257(-79.3)	206(-79.9)	30(-84.5)	14(-75.9)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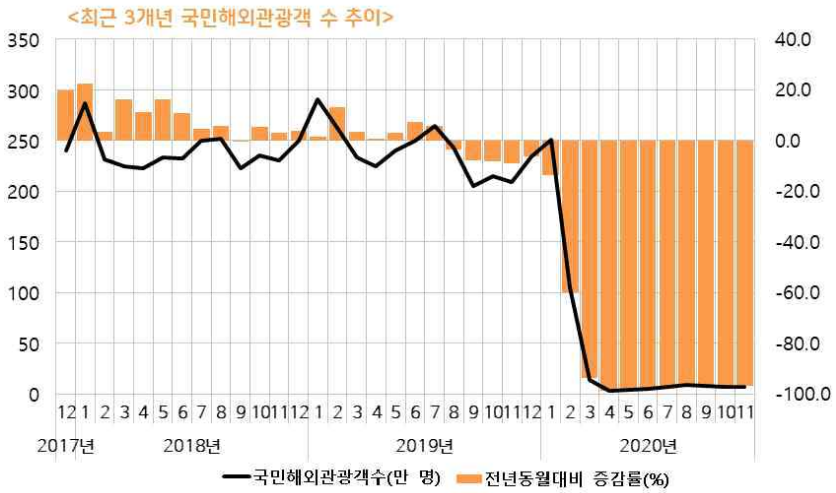
▣ 국민해외관광객

▸ 11월 국민해외관광객 70,686명, 전년동월(2,090,192명) 대비 96.6% 감소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4년	16,080,684	8.3
2015년	19,310,430	20.1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년 11월	**70,686**	**-96.6**
2020년	4,195,033	-84.1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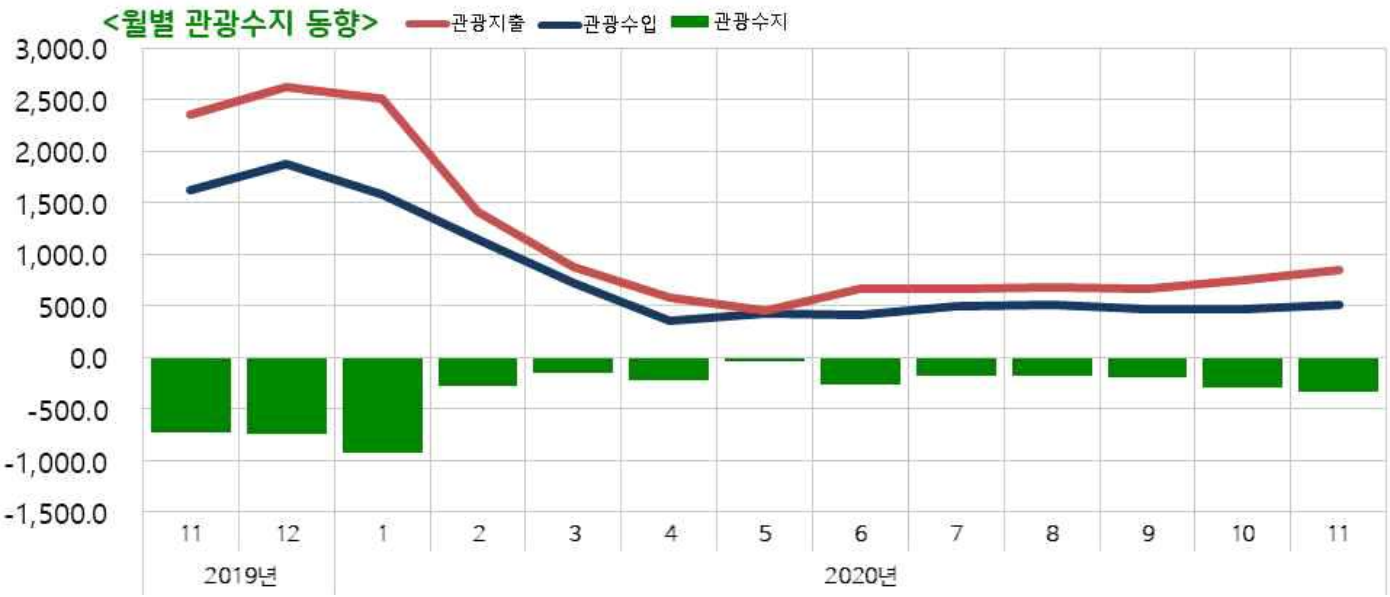


▣ 한국관광수지(2021. 1. 8. 한국은행)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4년	17,336	(21.3)	1,221	19,470	(12.3)	1,211	-2,134	-3,598
2015년	14,676	(-15.3)	1,109	21,528	(10.6)	1,115	-6,852	-3,619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3,628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3,500
2019년P	21,506	(16.5)	1,229	28,855	(-8.5)	1,005	-7,349	-3,326
'20년 11월P	513	(-68.5)	8,304	847	(-64.0)	11,977	-334	-168
2020년P	7,102	(-63.8)	2,891	10,125	(-61.4)	2,414	-3,023	-2,322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를 의미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평균값



▸ 2020년 관광 동향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년 11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내용 중 발췌하여 기재함.

2월 주요 이슈

keyword 코로나19

■ 광역시 및 각 지역 신규 추진사업 현황

- 하동군,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업무 협약
- 강진군, 가우도에 길이 150m 출렁다리 개통 계획
- 대구광역시, 서대구 역세권 앵커 시설 유치 집중
- 시흥시, 거북섬에 깊이 33m 스쿠버 다이빙 풀 조성
- 남원시, 광한루원·함파우 '체험형 관광클러스터' 구축
- 울산시, 방어진항 관광 중심지로… 5년간 126억 투입



2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공공부문

■ 자연·환경 연계한 관광거점 조성사업 탄력

- 각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신규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임
- 원주시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친환경 청정 한강수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기본·실시설계와 콘텐츠 개발 및 수생생태계 데이터 구축을 거쳐 2023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시범 운영을 거쳐 친환경 첨단 그린 스마트센터를 준공할 계획임
- 제천시는 평창강 다목적 용수 공급 1단계 사업을 통해 의림지뜰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함은 물론 의림지 수위 유지로 용추폭포 등 사계절 관광 시스템을 만들고, 하소천에도 일정량의 맑은 물을 흘려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사업 구상을 밝힘
- 이천시는 오는 6월 말 설봉공원(관고동) 입구의 암(巖)절개면에 높이 10m, 폭 30m 규모의 자연 친화적 인공폭포를 조성할 계획임
- 동구청은 '관광 어항의 찐! 원더풀 방어진'을 슬로건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방어진항 일대와 간접권역의 27개 관광 어항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또한 동구청은 방어진항을 어촌관광 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근 대왕암공원 등에 해양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임

민간부문

■ 다이빙풀·레저 등 수자원 연계 관광시설 투자 활발

- 지자체의 유휴 친수공간 개발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민간의 친수형 관광시설 투자에 귀추가 주목됨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을 수산, 관광, 레저, 친수 기능이 융합된 다기능 어항으로의 개발 계획을 밝힘. 본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국비 400억, 지방비 188억, 민자 351억 등 총 939억 원이 투입됨
-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내 거북섬에 국내 최대 깊이의 실내 스쿠버 다이빙 풀이 만들어질 전망임. 시와 협력 민간업체는 지난해 6월 다이빙 풀 설계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능한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임
- 송파구는 다음 달부터 석촌호수에 조성된 '문화공간 호수'를 주민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힘. 2019년 건립된 이 복합문화공간은 그동안 민간 위착으로 운영되어오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구가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미기로 함
-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민간 기업들과 손을 잡고 다양한 시화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각 지자체는 이런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시화호 일대가 해양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 섬진강에 경상도와 전라도 아우르는 통합 관광벨트 조성된다

- **섬진강권의 하동·구례·곡성군과 광양시, 국내 최고의 관광권역 조성 합의**
- 하동·구례·곡성군과 광양시의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협약식이 각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됨
- 섬진강권을 하나의 광역 관광권으로 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 관광명소로의 조성을 계획함
- 각 지자체의 관광자원 연계, 5G 공공 와이파이망 등을 통해 광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섬진강권 스마트 관광시스템(가칭 섬진강 통합패스)'을 구축함



- 하동의 벚꽃축제, 광양의 매화 축제, 구례의 산수유꽃 축제, 곡성의 장미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섬진강권을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키로 함
- 추후 관광부서 간의 실무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여 섬진강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키로 함

▣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세운지 14년 만에 본격화

-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지하주차장·유적공원 2022년 완공**
- 진주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고 밝힘
- 지하부는 주차장 등으로 추진하고, 지상부 역사공원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재심의를 받는다는 조건부 허가임
- 2022년 완공 예정으로 시는 진주시 본성동 일원 촉석문 앞 1만9천870㎡ 터에 79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600억 원으로 보상협의와 건물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2019년 8월까지 지표조사, 정밀발굴조사, 문화재 조사 등을 마무리함



-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유적이 발굴된 구간과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구간을 포함한 지상 전 구간은 지상 건축물을 최소화하고 유적 중심의 공원으로 조성함
- 사업이 완료되면 진주대첩광장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강원도 올해 공공부문 발주 규모 3조814억 원… 상반기에 78% 발주

- **건설공사 3천832건에 2조 8천546억, 설계용역 1천24건에 2천268억 규모**
- 올해 강원도 내 지자체·공공기관의 건설공사와 설계용역 발주 규모가 3조8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건설공사의 최대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본부에서 오는 6월에 추진하는 '남원주역세권 A-3BL' 아파트 건설공사로 689억 원 규모임
- 설계용역의 최대 사업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상반기에 발주하는 국도 42호선 횡성 안흥~방림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60억 원 규모임



- 기관별로는 강원도 285건에 2천142억 원, 도내 지자체 2천665건에 1조4천492억 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67건에 3천261억 원, 도교육청 514건에 3천650억 원, LH 강원본부 16건에 2천119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100건에 1천391억 원 등이며 사업비별로는 100억 원 이상 17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77건 등임
- 특히 국도와 지방도 구석구석을 따라 여행하는 강원권 관광도로 400리(1천112km) 조성,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 등도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어 건설 경기 회복이 기대됨

▣ 홍천군 '농촌 도시' 딱지 떼고 '빛의 도시' 도약 추진

- **홍천강 일대 야간경관 디자인 조성사업 6월 준공**
- 강원 영서 내륙에 자리 잡은 인구 7만 명의 전형적인 농촌 중심형 도시, 홍천군이 홍천강 시대를 목표로 '홍천강 야간경관 디자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홍천강을 중심으로 한 문화부흥 실현을 위해 빛의 도시로 변신함은 물론 경기 용문~홍천 철도 유치에 대비하자는 의미와 함께 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을 마련해 외부인에게 밝은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임
- 홍천군은 '홍천강 야간경관 디자인 조성사업'은 용문~홍천 철도 유치사업을 대비한 배후도시의 기능을 살리고, 다가올 관광 홍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함

▣ "울산 방어진항을 관광 중심지로"..5년간 126억 투입

- **동구청, 종합계획 수립… '즐기고 머무는 관광' 추진**
- 동구청은 방어진항의 문화·역사·특산물·경관 관광 중심지로의 변모를 위한 '방어진항 관광 어항 마스터플랜'을 발표함



- '관광 어항의 찐! 원더풀 방어진'을 슬로건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방어진항 일대 16개 사업(90억 원), 간접권역 11개 사업(36억 원) 등 2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함
- 동구청은 조선 경기 침체에 따른 인구 유출 가속화와 골목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방어진항 관광 어항 마스터플랜이 미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함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충주 중원휴양레저타운 예비 사업시행자 원익컨소시엄 선정

- **2025년까지 2천억 원 투입해 138만㎡에 에코·예술랜드 조성**
- 충주시는 살미면에 조성할 중원 종합 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예비 사업시행자로 원익컨소시엄을 선정함



- 원익컨소시엄은 2025년까지 2천3억 원을 투자해 살미면 문화리, 재오개리와 목벌동 일원 138만8천557㎡에 호텔, 리조트, 마리나, 생태 뮤지엄, 전망대, 치유정원 등 자연 친화형 에코랜드와 예술랜드를 조성할 계획임
- 원익그룹은 7개 상장사와 6개 비상장사를 갖춘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중견 기업으로, 무역·유통·금융·레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4조5천억 원, 매출 2조4천억 원, 영업이익 3천2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음
- 충주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중부권 최고의 복합힐링관광지로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증대를 꾀하겠다고 밝힘

▣ 홍성 남담항, 수산·레저·관광 융합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한다

- **대산해양수산청, 2025년까지 국비, 민자 등 939억 투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하와 새조개로 유명한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을 수산, 관광, 레저, 친수 기능이 융합된 다기능 어항으로의 개발 계획을 밝힘



-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은 고유 기능을 특화 개발해 연안 지역 경제 중심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남당항은 충남에서 두 번째로 다기능 어항으로 선정됨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남당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국비 400억, 지방비 188억, 민자 351억 등 총 93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임

▣ 춘천시 건설에 3조8천억 원대 발주… 수의계약 총량제 폐지

- **올해 1조5천800억 규모… 예산 확보·민자 사업자 참여 관건**



- 강원 춘천시가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폐지하는 등 모두 3조8천억 원 규모의 지역경기 부양책을 제시함
- 이를 위해 올해 공공부문 77건에 1조467억 원, 민자 협력 부문 5건에 5천411억 원 등 총 82건에 1조5천800억원 대의 사업을 추진함
- 특히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중인 수의계약 업체별 총계약 금액을 제한한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입찰의 심사기간 단축과 선금 지급 규모 확대, 수의계약 금액도 한시적으로 높일 방침임
-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등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데다 민간투자사업 의존이 커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임
- 춘천시는 지역 내 업체가 9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건설 분야는 지역경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력과 자재 등 연관 분야가 많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함

▣ 대구시 서대구 역세권 앵커 시설 유치에 집중

- **대구시, 2025년 역세권개발 계획 밝혀**



- 대구시는 올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원동력이 될 앵커 시설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힘
- 시는 서대구 역세권에 공공기관과 스포츠·공연시설 등 앵커 시설 유치로 집객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민·관 공동투자방식으로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을 1차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을 보완·협상 중임
- 올해는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제3자 제안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협약 체결 등을 거쳐 2023년 실시 설계 및 보상협의를 추진함
- 이밖에 서대구역사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연구개발(R&D) 및 벤처지원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서대구역 교통광장, 판매 및 유통시설과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임
-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말 서대구역 개통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함

▣ 시흥 거북섬에 국내 최대 깊이 33m '스쿠버 다이빙 풀' 조성

- **작년 개장 인공서핑장과 함께 관광자원화 추진**



- 경기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벨리(시화MTV) 내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시설에 이어 국내 최대 깊이의 실내 스쿠버 다이빙 풀이 만들어질 전망임
- 시흥시는 한 민간업체와 함께 거북섬 주변 해양레저복합단지 '스트리트몰' 사업지구(1만9천800여㎡) 내에 깊이 33m의 스쿠버 다이빙 풀 조성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가장 깊은 다이빙 풀보다 6m 정도 더 깊은 것이라고 밝힘
- 시와 해당 민간업체는 지난해 6월 다이빙 풀 설계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능한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임
- 이 일대에는 국·도·시비 75억 원과 민자 841억 원을 투자하는 '아쿠아펫랜드'도 조성 중이며 총 560객실 규모의 숙박시설 2개와 280억 원이 투자되는 해양생태과학관, 높이 80m 대관람차, 마리나 항만 시설 등도 추진되고 있음
- 스쿠버 다이빙 풀과 웨이브 파크 등은 해양레저복합단지 시설 중 일부로, 시흥시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그룹 등이 거북섬 일대 32만4천300㎡ 부지에 약 2조6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 말 마무리를 목표로 조성 중임
- 시흥시는 스쿠버 다이빙 풀이 완공되면 웨이브 파크 등 해양레저복합단지 내 다른 시설 등과 함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021년 관광동향 분석 (2020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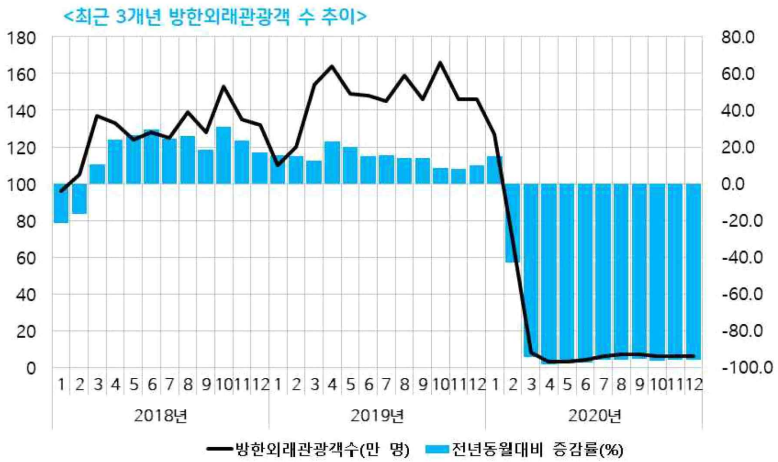
▣ 방한외래관광객

▸ 12월 방한외래관광객 62,344명, 전년동월(1,456,888명) 대비 95.7% 감소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4년	14,201,516	16.6
2015년	13,231,651	-6.8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년 12월	**62,344**	**-95.7**
2020년	2,519,118	-85.6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951명 (99.6% 감소)
- 중국관광객 7,987명 (98.4% 감소)
- 미국관광객 12,102명 (84.4% 감소)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4년	2,280(-17.0)	6,127(41.6)	770(6.6)	644(18.2)	558(39.4)	214(22.2)
2015년	1,838(-19.4)	5,984(-2.3)	768(-0.3)	518(-19.5)	523(-6.3)	188(-12.3)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년 12월	**1(-99.6)**	**8(-98.4)**	**12(-84.4)**	**0.3(-99.7)**	**0.06(-99.9)**	**2(-92.6)**
2020년	431(-86.8)	686(-88.6)	220(-78.9)	167(-86.8)	89(-87.2)	73(-78.7)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35,923명 (97.1% 감소)
- 미주 14,082명 (85.8% 감소)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4년	11,709(18.9)	155(18.9)	974(6.4)	849(10.5)	178(11.2)	44(1.5)
2015년	10,799(-7.8)	168(8.5)	974(0.0)	806(-5.0)	168(-5.5)	45(1.1)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년 12월	**36(-97.1)**	**1(-92.9)**	**14(-85.8)**	**9(-87.7)**	**0.4(-98.4)**	**0.8(-79.6)**
2020년	1,918(-86.6)	43(-82.9)	271(-79.8)	215(-80.4)	30(-86.0)	14(-76.1)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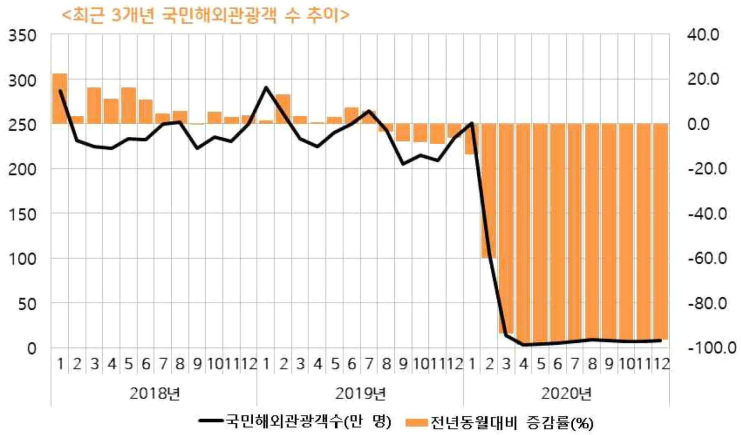
▣ 국민해외관광객

▸ 12월 국민해외관광객 80,973명, 전년동월(2,342,310명) 대비 96.5% 감소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4년	16,080,684	8.3
2015년	19,310,430	20.1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년 12월	**80,973**	**-96.5**
2020년	4,276,006	-85.1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 한국관광수지(2021. 2. 5.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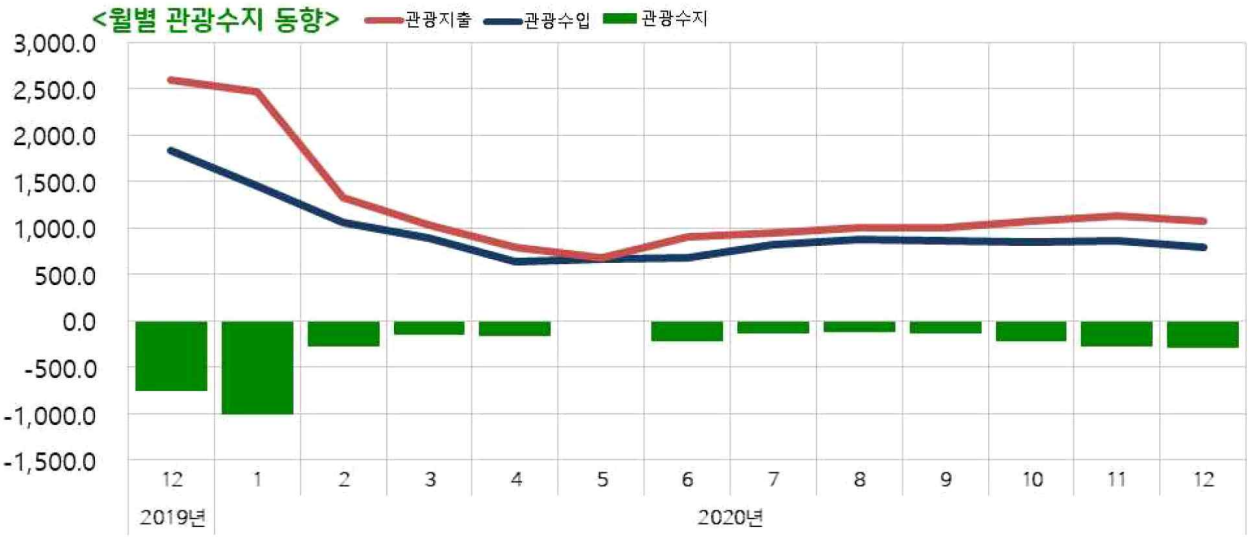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4년	17,336	(21.3)	1,221	19,470	(12.3)	1,211	-2,134	-3,598
2015년	14,676	(-15.3)	1,109	21,528	(10.6)	1,115	-6,852	-3,619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3,628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3,500
2019년P	21,506	(16.5)	1,229	28,855	(-8.5)	1,005	-7,349	-3,326
'20년 12월P	787	(-57.1)	12,619	1,075	(-58.6)	13,272	-288	292
2020년P	10,436	(-49.7)	4,143	13,450	(-54.0)	3,145	-3,014	-2,616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를 의미

2020년 관광수입 및 지출은 자료반영의 시차 관계로 전월/전전월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관광객 감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됨(차후 한국은행 확정치 발표시 수정 예정)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평균값 2020년 1인당 지출액은 상기의 이유로 데이터 사용시 주의를 요함



▸ 2020년 관광 동향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년 11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내용 중 발췌하여 기재함.

3월 주요 이슈

keyword 코로나19

■ 광역시 및 각 지역 신규 추진사업 현황

- 해남군, 246만평 규모 꽃단지 조성 계획
- 김해시, 장유 생태하천 일대 명품 올레길 조성 계획
- 천안시,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 노태공원 조성사업 착공
- 나주시, 영산포 권역지역개발사업 박차
- 군산시, 국내 최대 규모 '국립 자연휴양림' 개장
-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도심 잇는 '관광트램' 설치



3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공공부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 관광 탄력

- 각 지자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관광, 프라이빗 관광 등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관광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임
- 횡성군 직영 횡성루지체험장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개장하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함. 횡성군민 20% 할인과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단체 할인은 3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변동하여 운영함
- 해남군은 황산면 일원에 세계적인 규모의 꽃단지를 조성함. 꽃단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 코로나19 사태 이후 차박이 유행하면서 인기를 끈 경북 경주 나정해변 공영주차장이 정규 캠핑장으로 바뀔 예정임. 경주시는 18억4천만원을 들여 김포읍 나정해변 공영주차장 일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키로 함
- 문경시는 지난 19일 돌리네 습지를 개방하고 돌리네 습지를 탐방하는 왕복 2km 도로를 개설하여 습지 구간에 전동차를 운행함.
- 강원도관광재단은 인터파크투어와 함께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기획전을 오픈함. 코로나 시대에 지쳐가는 재택이나 원격 근무자를 위한 특화 상품으로 뉴노멀 시대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음

민간부문

■ 최대·최고 규모의 예비 관광 명소에 대한 투자 활발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의 관광시설 조성 관련 투자에 귀추가 주목됨
- 강릉시는 서울 코엑스 광장 전광판에 실감 나는 파도 영상을 선보였던 디지털 디자인업체 디스트릭트가 초당동 인근 사유지에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4천975㎡ 부지에 높이 10~12m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관 건축 공사를 다음 달 착공해 올해 하반기 개관할 예정임
- 인천항만공사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협의체 회의를 열고 개발 계획을 공개함. 스마트 오토밸리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원스톱 시스템 중고차 수출단지로, 사업부지 내 길이 800m의 수변공간을 활용해 7만3천㎡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석탄부두 이전 후 다양한 관광시설과 바다 산책길 등을 갖춰 지역의 명소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밝힘.
- 서울시는 코레일, HDC현대산업개발과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힘. 사업대상지에는 호텔과 업무·판매시설 등을 갖춘 최고 49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지어질 예정임
- 해남군은 우수영 일원을 체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기반조성사업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착실한 사업 추진으로 서남권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함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 횡성 2.4km 최장 루지체험장 12일 개장… 20% 특별 할인

- **횡성루지체험장 개장 기념 군민 50%, 이용객 20% 할인 행사 진행**
- 횡성군 직영 유영놀이시설인 횡성루지체험장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12일 개장함
- 횡성군은 지난해 옛 국도 42호선의 우천면·오원리~안흥면·안흥리(전재) 구간 폐도로에 별도의 개발행위 없이 친환경 루지체험장을 조성함
- 올해 횡성루지체험장은 최대한 이용객 현의와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임



- 주차 공간 확대와 시간 감축 및 방문객 수송을 위한 전기 카트 추가 운행과 더불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 군 관계자는 횡성루지체험장이 횡성 여행 필수 코스로 폭발적 인기를 얻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으며 횡성호수길과 풍수원 성당 등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비대면 관광지와 연계해 올해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함

▣ 대천항~안면도 도로 개통 대비… 보령 원산도 관광인프라 확충

- **보령시, 올해 말 국도 77호선 완전 개통 대비 원산도 관광인프라 대폭 확충**
- 보령시는 국도 77호가 개통되면 원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최근 원산도 해수욕장 주변에 55억 원을 들여 45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조성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111억 원을 들여 520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한다고 밝힘
- 올해 말까지 국도 77호선 연결도로인 농어촌도로 202호와 203호 등 4개 노선을 확장·포장하며 본 사업에는 476억이 투입됨
- 원산도 앞 작은 섬인 소록섬에는 연말까지 해변 산책로와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임



- 보령시는 원산도를 디지털 스마트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023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사업을 벌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과 푸드트럭을 활용한 푸드존 조성사업도 추진 중임
- 시 관계자는 올해 말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서해안의 관광 지도가 확 바뀔 것이라며 원산도가 서해안의 관광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힘

▣ 논산시 탑정호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2천837억원 투자

- **충주 논산시 탑정호 인근 복합·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 논산시 관계자는 탑정호를 기반으로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탑정호 순환 체계 구축, 물빛정원 조성, 복합 휴양관광단지 조성 등 7개의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시 관계자는 개장을 앞둔 국내 최장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수변산책로, 힐링생태사업관 등 5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완료하고 최근 탑정호 웰니스 파크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진행 중인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사람 중심·자연친화적 관광개발로 지역사회와 자연경관 간 조화를 이뤄 새로운 관광거점을 확보하겠다고 밝힘
- 이어 탑정호를 기반으로 한 복합·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이 가시화돼 조만간 전 연령대가 공감하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관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임

▣ 나주시, 전국 유일 내륙 항구도시 영산포 지역개발사업 박차

- **노봉산 관광 자원화 사업… 인공폭포·전망데크·생태탐방로 설치 등**



- 나주시에 따르면 영산포와 나주평야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노봉산 일대를 공원화하고 부근 폐 석산에는 인공폭포를 설치, 볼거리를 조성할 계획임
- 노봉산 관광 자원화 사업에는 석산 개발 뒤 방치된 노봉산 암벽에 설치하는 높이 50여m, 폭 40m의 인공폭포와 영산포 풍물시장과 영산강 선창 홍어거리를 잇는 생태탐방로, 노봉산 정상 전망대 등의 조성이 계획됨
- 나주시는 도심 속 폐 석산을 활용, 관광 자원화하는 만큼 생태복원의 의미도 크다며 영산포 권역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인제 '자작나무 명품 숲 랜드' 조성… 첫 나무 심기

- **북부산림청, 지난해 11월 강원도, 인제군과 자작나무 명품 숲 조성 업무협약**



- 북부지방산림청은 인제군과 함께 '자작나무 명품 숲 랜드' 조성 첫 사업으로 인제 자작나무 숲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함
- 자작나무 명품 숲 랜드 조성은 인제지역 국유림 내 자작나무 숲을 지속가능한 산림관광 자원으로 조성해 주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산림청 관계자는 자작나무 숲 나무 심기 행사로 숲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원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강진-해남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업무 협약

-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관광 콘텐츠 육성 컨소시엄 구성**



- 강진군은 2021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해남군과 손을 잡고 한국스마트관광협회, 야놀자 등 6개 기관·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함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1개년 동안 국비 35억원 등 70억 원을 투자해 관광지(특구)에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임
- 강진군은 해남군, 지자체, 첨단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으로 조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3월 중 지역 연계형으로 공모할 계획임
- 군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 스마트 관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두 지역이 협력해 상생 발전을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안산시, 6개 기업과 마리나항만 개발에 7천억 투자 협약

- **방아머리에 요트 300척 계류 규모 조성… 2026년 말 완공**



- 경기 안산시는 국내외 6개 기업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7천1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힘
- 안산 방아머리에는 14만4천㎡ 면적에 민간자본 최대 3천억여 원과 국·도·시비 1천200억여 원이 투자돼 300대의 요트 정박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임
- 시는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며, 가급적 올해 안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6년 말께 모든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밝힘

▣ 포천 청계호수 일대 2025년까지 '테마가든' 조성

- **포천시와 ㈜선운(필로스cc) 투자협정 양해각서(MOU) 체결**
- 경기 포천시는 ㈜선운(필로스cc)과 '청계호수 자연경관을 활용한 테마가든 조성사업' 투자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 협약에 따라 ㈜선운은 2025년까지 청계호수 일원에 단계별로 1천200억 원을 투자해 테마가든을 조성하게 됨
- 테마가든은 8천㎡ 규모 숲속 야영장, 6천350㎡ 규모 물놀이 시설, 6천380㎡ 규모 미로공원, 6천㎡ 규모 키즈&스포츠파크, 1천700m짜리 알파인코스터 등으로 구성됨



- 포천시청 관계자는 청계호수 테마가든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포천시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힐링, 체험, 휴양 관광시설 도입과 체계적인 개발로 수도권 북부 핵심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힘
- 더불어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일동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해상케이블카·스카이워크… 해남 우수영 관광랜드마크 부상

- **법정스님 생가에 인문학 하우스도 건립**
- 해남군은 명량대첩 승전지인 우수영 일원을 체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기반조성사업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울돌목 스카이워크에 이어 9월에는 해상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함
- 총 길이 110m의 울돌목 스카이워크는 회오리 바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 위를 직접 걸어볼 수 있는 장소로 현재 공정률 70%를 돌파했으며 오는 6월 준공 예정임



- 이와 연계해 관광객을 위한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입에 큰 역할을 담당할 관광버스 기사쉼터도 조성 중임
- 더불어 '무소유'를 주장한 법정스님의 사상을 기반으로 생가터에는 법정스님의 상징인 빈 의자가 놓이고 조망대와 함께 유품 및 책으로 구성된 작은 도서관이 건립되며 6월 준공,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호국의 성지로 전통적 역사관광의 이미지가 강했던 우수영에 각종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며 활기 넘치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착실한 사업 추진을 통해 서남권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2027년까지 전국 10개 항만에 해양공원·산책로 만든다

- **해수부, '항만공간 정비계획' 수립 착수**
- 해양수산부는 항만이용자와 일반 시민이 항만공간을 더욱 편안하게 이용하게 친숙하게 느끼도록 2027년까지 전국 10개 항만에 해양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한다고 밝힘
- 해수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9억9천600만원 규모의 용역을 통해 '항만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이후 전국 무역항과 연안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이나 항만이용자 만족도 등을 반영해 정비 대상 항만 10곳을 선정할 예정임



- 선정된 항만에는 2027년까지 해양공원, 해양 체험장, 산책로, 경관 시설 등을 조성하고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보강함
- 해수부에 따르면 항만은 항만·해운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하역업 등 연관 서비스산업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지만 교통 혼잡 유발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음
- 해수부는 이에 따라 항만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민들이 항만을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2021년 관광동향 분석 (2021년 1월 기준)

▣ 방한외래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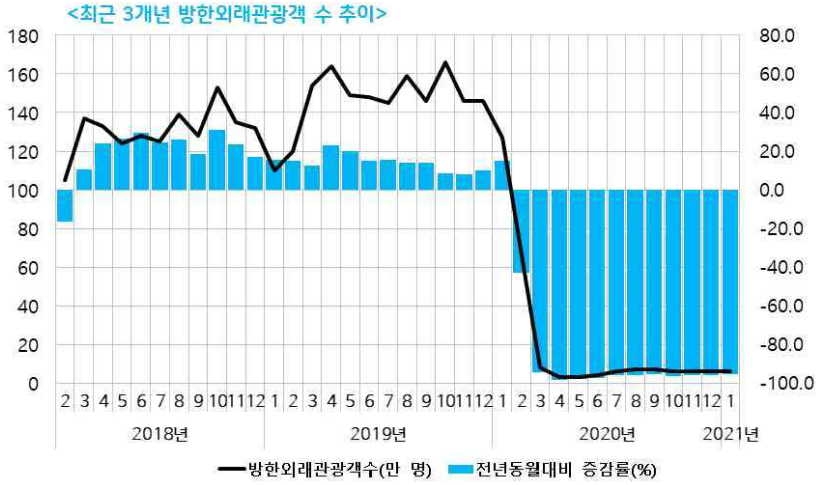
▸ 1월 방한외래관광객 58,397명, 전년동월(1,272,708명) 대비 95.4% 감소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5년	13,231,651	-6.8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20년	2,519,118	-85.6
'21년 1월	**58,397**	**-95.4**
2021년	58,397	-95.4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최근 3개년 방한외래관광객 수 추이>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1,299명 (99.4% 감소)
- 중국관광객 7,346명 (98.5% 감소)
- 미국관광객 12,013명 (82.1% 감소)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5년	1,838(-19.4)	5,984(-2.3)	768(-0.3)	518(-19.5)	523(-6.3)	188(-12.3)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20년	431(-86.8)	686(-88.6)	220(-78.9)	167(-86.8)	89(-87.2)	73(-78.7)
'21년 1월	**1(-99.4)**	**7(-98.5)**	**12(-82.1)**	**0.3(-99.8)**	**0.06(-99.9)**	**2(-93.4)**
2021년	1(-99.4)	7(-98.5)	12(-82.1)	0.3(-99.8)	0.06(-99.9)	2(-93.4)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31,329명 (97.1% 감소)
- 미주 14,091명 (83.9% 감소)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5년	10,799(-7.8)	168(8.5)	974(0.0)	806(-5.0)	168(-5.5)	45(1.1)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20년	1,918(-86.6)	43(-82.9)	271(-79.8)	215(-80.4)	30(-86.0)	14(-76.1)
'21년 1월	**31(-97.1)**	**2(-91.2)**	**14(-83.9)**	**9(-87.3)**	**0.3(-98.0)**	**1(-76.0)**
2021년	31(-97.1)	2(-91.2)	14(-83.9)	9(-87.3)	0.3(-98.0)	1(-76.0)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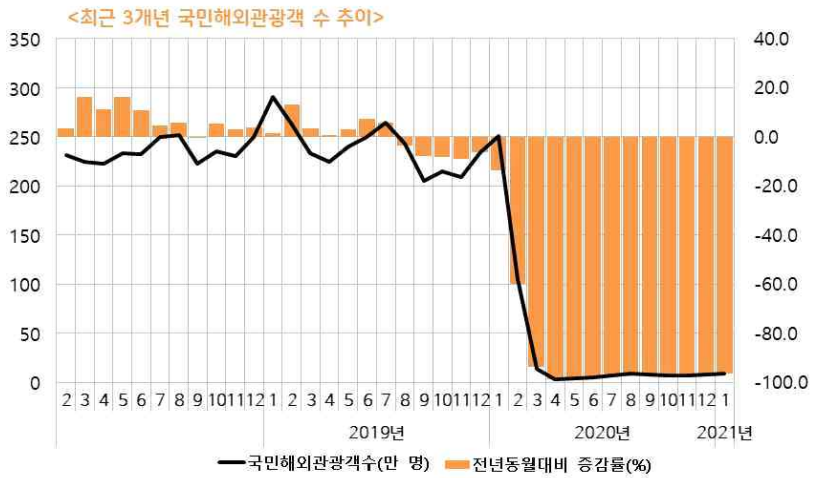
▣ 국민해외관광객

▸ 1월 국민해외관광객 86,143명, 전년동월(2,513,030명) 대비 96.6% 감소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5년	19,310,430	20.1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20년	4,276,006	-85.1
'21년 1월	**86,143**	**-96.6**
2021년	86,143	-96.6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 한국관광수지(2021. 3. 9.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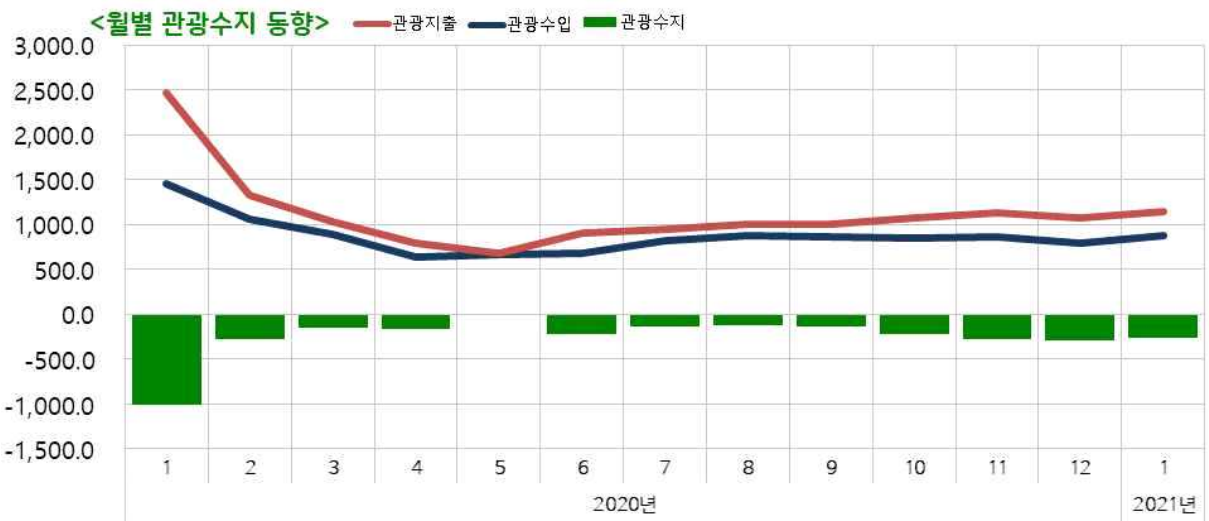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5년	14,676	(-15.3)	1,109	21,528	(10.6)	1,115	-6,852	-3,619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3,628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3,500
2019년P	21,506	(16.5)	1,229	28,855	(-8.5)	1,005	-7,349	-3,326
2020년P	10,436	(-49.7)	4,143	13,450	(-54.0)	3,145	-3,014	-2,616
'21년 1월P	**875**	**(-40.1)**	**14,977**	**1,143**	**(-53.7)**	**13,270**	**-269**	**285**
2021년P	875	(-40.1)	14,977	1,143	(-53.7)	13,270	-269	285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를 의미

'20~'21년 관광수입 및 지출은 자료반영의 시차 관계로 전월/전전월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관광객 감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됨(차후 한국은행 확정치 발표시 수정 예정)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20~'21년 1인당 지출액은 상기의 이유로 데이터 사용시 주의를 요함



▸ 2020년 관광 동향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년 11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내용 중 발췌하여 기재함.

4월 주요 이슈

keyword 코로나19

■ 광역시 및 각 지역 신규 추진사업 현황

- 경남도, 일부 준공 '사천 실안관광지'에 2천억 민간투자 유치
- 인천시, '124년 역사' 인천 답동성당 일대 공원으로…사업 착공
- 경북도, 대구~통합신공항 간 철도 생긴다…광역경제권 구축
- 여주시, 여수 경도관광단지 관광시설 인허가 절차 다음달 착수
- 홍천군, 도심 남산에 '산림공원 조성'…타워 건립도 추진
- 강원도, 인제에 골프·스키장·콘도 갖춘 사계절 휴양리조트 들어선다



4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공공부문

■ 지자체의 생태관광 투자 및 조성 사업 활성화

- 각 지자체에서는 점차 상승하는 기온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생태관광에 더 다양한 투자와 사업 계획을 밝힘
- 괴산군은 속리산국립공원 쌍곡계곡에 생태 탐방로 개설을 요청하였고 지난 8일 환경부과 국립공원공단 평가위원이 적정성을 평가함. 괴산군은 적정성 평가 판정 및 환경부 허용 시, 59억 원을 들여 5.3㎞ 구간에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 전주시는 2016년부터 총 54억 원을 들여 진행한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끝마쳤다고 밝힘. 전주시는 호수에 다채로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아중호수가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 김천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물소리 생태숲에 '노란 숲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김천시는 전남 신안의 퍼플섬을 벤치마킹해 산이 많은 지역 특색에 맞춰 노란색으로 생태숲을 장식 중임
- 홍천군은 남산의 약 3.8㏊ 면적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산림공원을 조성키로 함. 홍천군은 남산공원이 산림관광 명소 조성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힘

민간부문

■ 민관 갈등으로 인한 재공모, 재협상 이슈 곳곳 부상

-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의 갈등, 이견 등으로 인해 다수의 지자체에서 재협상, 재공모 계획을 밝힘
-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부터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힘. 앞서 인천경제청은 2017년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바 있음
-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힘. 1차 공모 당시 주거·상업시설 규모를 놓고 창원시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바 있으며, 창원시는 금번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원인을 분석하고 공모지침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사업자를 재공모하겠다고 함
- 충주시는 탄금호 친환경 전기유람선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최후통첩을 보냄. 유람선은 지난해 2월 탄금호로 옮겨졌지만 건조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5년째 운항되지 않고 있음. 시는 기한 내 행정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일반유람선업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민간사업자를 재모집할 계획임을 알림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 여수항 '해양복합관광 거점'으로 육성...종합발전 계획 용역착수

- **해수부, 내년 3월까지 3억6천억원 규모로 진행**
- 해양수산부는 전남 여수항을 남해안 관광자원이 연계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탈바꿈하고자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힘
- 이는 내년 3월까지 3억6천억원을 투입하는 작업으로, 여수 신항과 신북항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임
- 정부는 여수항의 항만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수항 기능을 다시 짜고, 항만재개발 구역은 해양관광 기능과 연계할 계획임



- 하지만 화물처리 기능이 광양항으로 옮겨감에 따라 무역항으로서는 위축돼 새로운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해수부는 앞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지역 시민단체, 여수시 등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목표와 세부 과제를 세워 종합발전계획을 완성할 예정임

▣ 안면도 꽃지해변 확 바뀐다...분수·정원·놀이터·공연장 조성

- **태안군, 7월 초까지 15억 들여 관광 트렌드 반영한 명품공원 조성**
- 해넘이 명소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변이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지로 탈바꿈함
- 태안군은 올해 말 국도 77호선 대천항~안면도 구간 완전 개통에 대비해 오는 7월 초까지 15억원을 들여 꽃지해변 4천730㎡를 명품공원으로 꾸미기로 했다고 밝힘
- 하지만 불법 노점상이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사고 위험까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군은 현재의 수직 옹벽을 철거한 뒤 바다와 육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완만한 경사의 자연형 호안을 설치할 계획임
- 태안군청 관계자는 "이들 사업이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이후 침체한 안면도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함

▣ 나주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추진

- **농촌체험과 휴양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춘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적극 추진**
- 이 사업은 마을 특색을 반영한 관광·체험·휴양 콘텐츠를 발굴, 육성해 농가 소득향상과 농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주시 왕곡 덕실, 문평 명하쪽빛 등 7곳에서 운영 중임
- 이들 마을은 올해 정부와 지자체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을별로 2천만원을 지원받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관광·체험콘텐츠를 운영함



- 나주시는 마을별 특색이 담긴 '비대면 체험 키트'를 개발, 체험 신청 대상자에게 배부하고 줌(zoom), 유튜브(youtube) 등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체험·관광도 할 계획임
- 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자연관광, 안전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 체험객 감소로 어려운 농촌 마을 공동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남원시, '놀이형 과학체험공간' 어린이 과학체험관 내년 완공

- **내년까지 20억원 들여 광한루원 인근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린이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해주기 위해 추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음
- 과학체험관은 지상 1층, 전체 건물면적 576㎡ 규모로 건립되며 상설전시관, 영상체험관, 교육관 등을 갖춤
- 남원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과학을 접하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놀이형과학체험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임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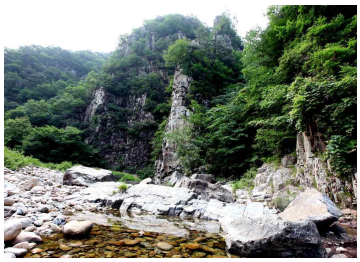


- 또한 인근의 광한루원, 남원예촌 등과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함

▣ 괴산 쌍곡계곡 생태 탐방로 추진...6월 중 판가름

- **"계곡 따라 5.3㎞ 조성...새로운 관광명소 기대"**

- 충북 괴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쌍곡계곡에 생태 탐방로 조성이 추진됨
- 괴산군은 2019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쌍곡계곡 생태 탐방로 개설을 요청했으며 작년 이 탐방로 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함
- 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허용해주면 자연경관과 역사의 숨결이 어우러지는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 산막이옛길에 견줄만한 관광자원을 만들 것으로 다짐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경남도, 일부 준공 '사천 실안관광지'에 2천억 민간투자 유치

- **부지만 일부 준공한 사천 실안관광지에 2천억원의 민간투자 유치**

- 사천 실안관광지는 25만6천877㎡ 부지에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 2000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부지 조성률이 20%대에 그쳤으나 최근 조성공사가 끝난 4만346㎡의 부지를 준공하고 2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음



- 도는 준공검사를 위해 사천시와 지속 협의했으며 그 결과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을 담보할 관리방안을 마련해 관광지 부지에 대한 일부 준공 승인을 했다고 설명함
- 또한 도는 전국 9대 일몰지로 뽑히는 실안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실안관광지에 명품 호텔이 건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특급 숙박시설 건립 본격화

- **4~29층 규모...일부선 '부동산 개발' 우려도**
-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를 꿈꾸는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숙박시설 건립이 본격 추진됨
- 사업시행자는 1조5천억원을 들여 경도 일원 2.14㎢ 부지에 6성급 호텔과 리조트·골프장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복합 해양리조트를 조성함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이민을 장려하고 비수기에도 관광단지를 활성화하려면 장기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며 우려하는 것처럼 주거형 숙박시설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 금산군, 제원면에 골프장·숙박시설 등 친환경 관광단지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에 민간 투자에 의한 관과휴양시설 조성**



- 금산군은 천내리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최근 태흥 레저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단지 조성을 마치면 생산 유발 3천억원, 취업 유발 2천명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천내리 주변 토지 가운데 80%를 매입한 상태이며, 절차를 밟아 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임
- 금산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관광진흥팀장을 사업 추진 전담자로 지정해 환경부 토지 사용 허가 협의를 진행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만3천840㎡(약 16만 평)의 관광휴양시설에도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 군 관계자는 관광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찾아오는 명품관광 이미지 확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영흥도에 수도권 최장 1㎞ 집라인 조성…내년 5월 운영

- **인천 영흥도, 내년 5월 수도권에서 가장 긴 공중 하강 체험시설 조성**



- 인천시 옹진군은 민간투자사 '썸라인영흥'과 장경리 해수욕장 집라인 조성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밝힘
- 옹진군은 수도권에서 가장 긴 1㎞ 길이에 시속 90㎞로 하강하는 집라인을 장경리 해수욕장 일대에 설치할 계획임
- 예산 140억원은 모두 민간투자사가 부담하며 올해 6월 착공해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 집라인 출발지인 타워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00m 높이로 지어짐
- 옹진군은 또 장경리 해수욕장 인근 해안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짓고 자연 친화형 생태관광 탐방로도 만들 예정임
-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옹진군 최초로 대규모 민간투자가 이루어졌다며 관광객이 늘면 주민들의 소득도 증가할 것이라며 기대함

▣ 인제에 골프·스키장·콘도 갖춘 사계절 휴양리조트 들어선다

- **2026년까지 6천500억원 민간투자…관광·레저 거점으로 도약**



- 강원도는 2026년까지 인제군 남면 정자리 일원 4천312만1천559㎡ 부지에 숙박시설, 체육시설, 상가시설을 갖춘 사계절형 종합 휴양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오는 27일 도청에서 '설해원 인제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한다고 밝힘
- 도와 인제군은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도내 연관 산업 동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함
-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1조4천억원, 고용유발 6천800명, 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종합 휴양리조트가 들어설 사업 부지는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휴양·레저·관광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 각종 인허가 통합 의제 처리가 가능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임
- 도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한 사업자 측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고품격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고용 창출은 물론 관광객도 늘어나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2021년 관광동향 분석 (2021년 2월 기준)

▣ 방한외래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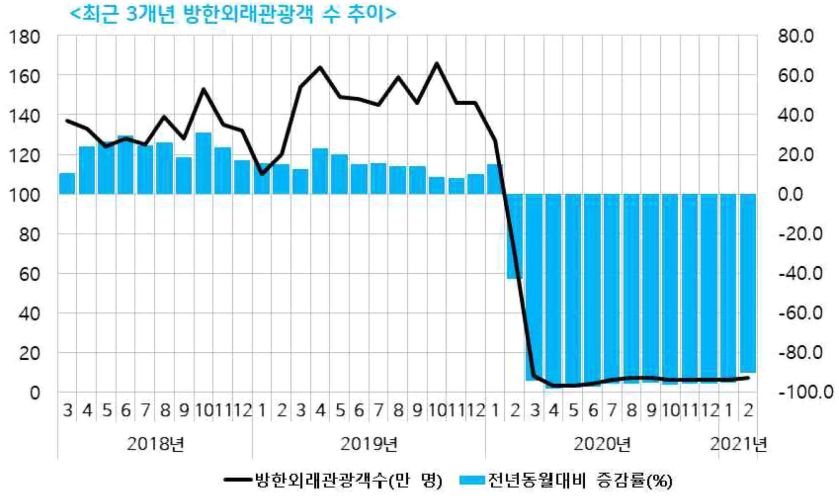
▸ 2월 방한외래관광객 65,582명, 전년동월(685,212명) 대비 90.4% 감소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5년	13,231,651	-6.8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20년	2,519,118	-85.6
'21년 2월	**65,582**	**-90.4**
2021년	123,979	-93.7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최근 3개년 방한외래관광객 수 추이>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1,719명 (99.2% 감소)
- 중국관광객 11,982명 (88.5% 감소)
- 미국관광객 11,212명 (73.6% 감소)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5년	1,838(-19.4)	5,984(-2.3)	768(-0.3)	518(-19.5)	523(-6.3)	188(-12.3)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20년	431(-86.8)	686(-88.6)	220(-78.9)	167(-86.8)	89(-87.2)	73(-78.7)
'21년 2월	**2(-99.2)**	**12(-88.5)**	**11(-73.6)**	**0.4(-99.2)**	**0.1(-99.4)**	**2(-89.0)**
2021년	3(-99.3)	19(-96.7)	23(-78.8)	0.7(-99.6)	0.2(-99.8)	4(-91.5)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36,489명 (93.2% 감소)
- 미주 13,233명 (76.7% 감소)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5년	10,799(-7.8)	168(8.5)	974(0.0)	806(-5.0)	168(-5.5)	45(1.1)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20년	1,918(-86.6)	43(-82.9)	271(-79.8)	215(-80.4)	30(-86.0)	14(-76.1)
'21년 2월	**36(-93.2)**	**2(-85.0)**	**13(-76.7)**	**11(-79.5)**	**0.4(-95.9)**	**1(-72.2)**
2021년	68(-95.8)	4(-88.4)	27(-81.1)	21(-83.9)	0.7(-97.3)	2(-74.1)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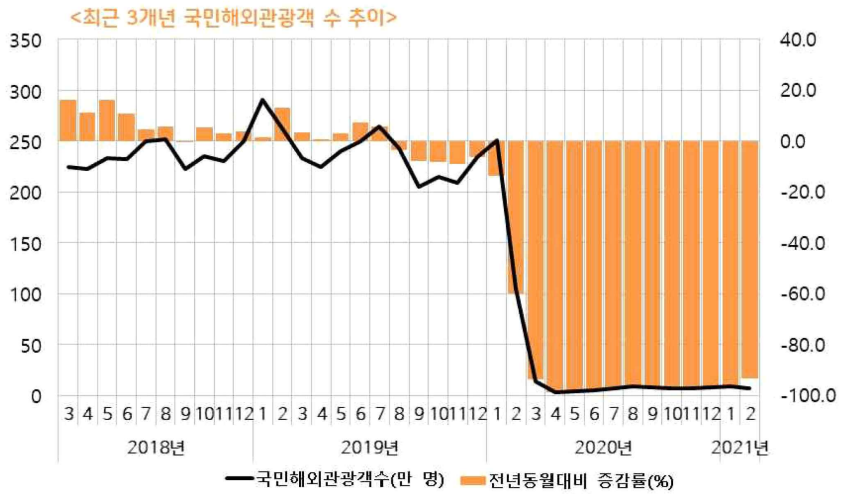
▣ 국민해외관광객

▸ 2월 국민해외관광객 68,213명, 전년동월(1,049,779명) 대비 93.5% 감소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5년	19,310,430	20.1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20년	4,276,006	-85.1
'21년 2월	**68,213**	**-93.5**
2021년	154,356	-95.7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 한국관광수지(2021. 4. 7.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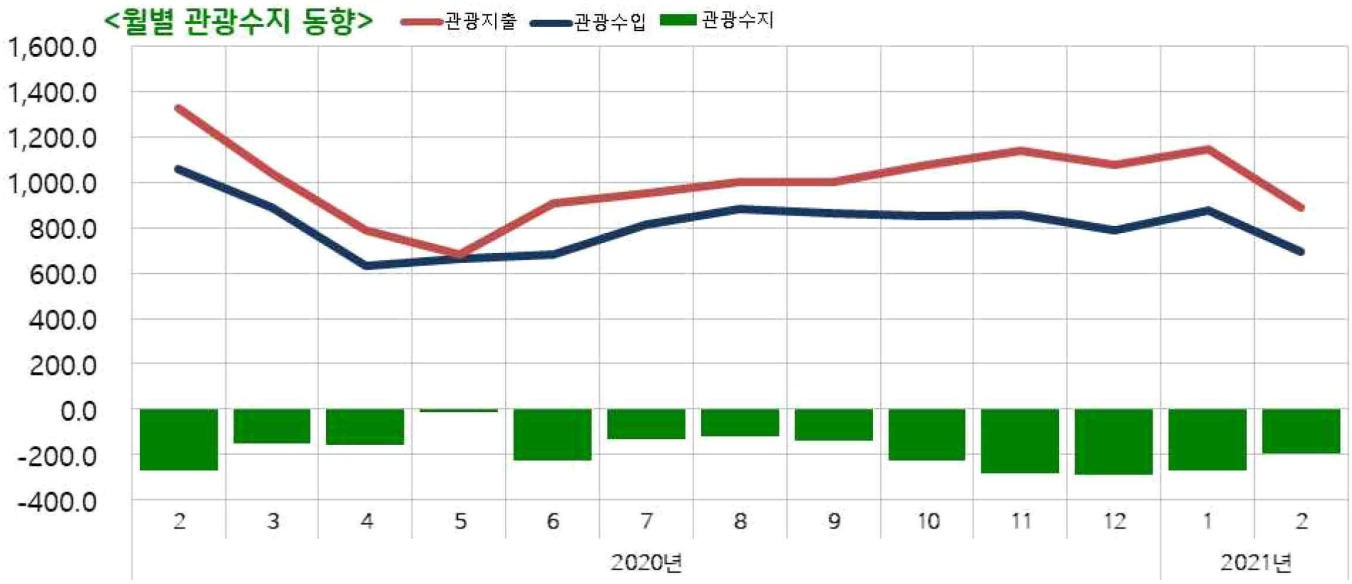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5년	14,676	(-15.3)	1,109	21,528	(10.6)	1,115	-6,852	-3,619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3,628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3,500
2019년P	21,506	(16.5)	1,229	28,855	(-8.5)	1,005	-7,349	-3,326
2020년P	10,436	(-49.7)	4,143	13,450	(-54.0)	3,145	-3,014	-2,616
'21년 2월P	**692**	**(-34.3)**	**10,555**	**886**	**(-33.2)**	**12,983**	**-193**	**-147**
2021년P	1,567	(-37.7)	12,638	2,029	(-46.5)	13,143	-462	-432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를 의미

'20~'21년 관광수입 및 지출은 자료반영의 시차 관계로 전월/전전월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관광객 감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됨(차후 한국은행 확정치 발표시 수정 예정)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20~'21년 1인당 지출액은 상기의 이유로 데이터 사용시 주의를 요함



▸ 2021년 관광 동향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년 2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내용 중 발췌하여 기재함.

5월 주요 이슈

keyword 코로나19

■ 광역시 및 각 지역 신규 추진사업 현황

-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문 열어…188억원 들여 재현
- 서울시, 도심 보행로 '세종대로 사람숲길' 1.55 ㎞ 완공
- 익산시, 웅포관광지 28만㎡ 부지 개발 민간 투자자 공모
-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10억 투입
- 가평군, 운악산에 길이 200m 출렁다리 설치
- 목포시, 삼학도에 5성급 관광호텔 유치…유원지 조성



6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공공부문

■ 지자체의 걷기 좋은 도시 조성 활성화

- 각 지자체에서는 점차 따뜻해지는 기온과 함께 걷기 좋은 길 조성과 도보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함
- 서울시는 지난 5일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 는 보행로 '세종대로 사람숲길'을 완공하였고, 청계광장에서 덕수궁, 숭례문을 지나 서울역까지 약 2.8 ㎞ 를 2시간 30분 간 걷는 '사람숲길 도보해설관광 코스'를 시범 운영함. 서울 시는 세종대로 사람숲길을 시작으로 도심 전체를 푸른 숲길 로 연결하겠다고 말함
- 원주시는 71억원을 들여 2016년부터 시작한 치악산 둘레 길이 5년여에 걸친 조성 사업을 마치고 20일 개통식을 한 다고 밝힘. 시는 앞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3억5천만 원을 들여 원주 굽이길을 조성한 바 있음
- 부산시 기존 700리 갈맷길을 정비하고 도심 속 편하게 걸 을 수 있는 300리 갈맷길을 신규로 조성한다고 19일 밝 힘. 갈맷길에는 500억원의 시비가 들어가며 2026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보성군은 다향 이십리길·득량 오봉산길·해평 호수길 등 지 역 곳곳에 주민들을 위한 명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고 26일 밝힘.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 들이 답답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좋은 공원길이 되 도록 사업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함

민간부문

■ 호텔·리조트 등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투자 활발

-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호텔, 리조트, 콘도 등 관광 숙박 시설에 대한 투자에 귀추가 주목됨
- 양양군은 강원도, LF그룹과 4일 오후 지경리 국민여가캠핑 장에서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함. 지경 관광 지 조성사업은 해안에 숙박과 상업시설, 휴양시설로 구성된 체류형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2025년 1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익산시는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민간 투자자를 오 는 7월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힘. 이 사업은 웅포관광지 3지구 28만㎡ 부지에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를 짓는 것으로 시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8월게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임
-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18일 밝힘. 공고는 부안군 변 산면 대항리의 4만3천887㎡ 부지에 숙박·부대시설을 갖춘 콘도를 지을 민간투자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목포시는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25일 밝힘. 삼학도에는 5성급 관광호 텔을 유치할 계획이며 행정절차를 거쳐 전남도에 승인 신청 한 후 내년에 삼학도 유원지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임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 경북 상주에 경상감영공원 문열어...188억원 들여 재현

- **상주시 복룡동 6만5천144 ㎡ 부지에 조성된 경상감영공원 문열어...**



- 상주시에 조성된 경상감영공원이 2013년 착공해 8년 만에 옛 모습을 드러냄
- 시는 원래 왕산 인근이던 경상감영 자리가 도심으로 바뀌며 지역 관문에 해달하는 복룡동에 188억 원을 들여 시설을 재현함
- 경상감영공원은 관찰사 집무처인 청유당을 비롯해 18개 동의 전통 한옥과 광장 및 녹지로 구성됨
- 관람객은 이곳에서 관찰사 복장으로 지방 수령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증강현실(AR)을 이용한 감영 포토존 사진 촬영, 널뛰기·투호 등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음
- 상주시는 고증을 거쳐 경상감영을 건립했으며, 상주가 경상도 중심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알리며 역사문화교육공원과 관광자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서울 도심 보행로 '세종대로 사람숲길' 1.55 ㎞ 완공

- **서울시, 지난 5일 세종대로사거리~서울역 보행로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공**



- 총연장 1.55 ㎞ 의 보행로는 지난해 7월 착공해 9개월 만에 완성되었고, 세종대로 일 대 도로를 기존 9~12차로에서 7~9차로로 줄이고 보행로 폭을 최대 12m로 늘림
- 차도 축소로 생긴 보행공간은 1만3천950㎡ 로, 서울광장 면적의 6천449㎡의 배 이상임
- 차도로 둘러싸여 단절된 교통섬 같았던 숭례문 옆에도 500 ㎡ 규모의 보행공 간이 생겼으며, 덕수궁 대한문 앞 관장은 기존 580㎡에서 1천30㎡로 넓힘
- 이 구간 차량 평균 통행 속도는 2019년 시속 21.7 ㎞ 에서 올해 4월 시속 21.6 ㎞ 로 큰 변동이 없었다고 시는 전함
- 시 관계자는 세종대로 사람숲길을 시작으로 도심 전체를 푸른 숲길로 연결하겠다고 밝힘

▣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100억 투입

- **삼척시, 두타산 일대에 총사업비 100억 원 투입해 사계절 휴양지 조성**



- 삼척시가 백두대간 100대 명산 중 하나인 두타산 일대를 6개 지구로 나눠 단계별로 휴양지를 조성함
-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문에는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동해 일출과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데크 등 댓재 명소화 2단계 사업이 추진됨
- 주차장 정비, 상징물 공원 조성 등 댓재 명소화 1단계 사업은 완료됨
- 옛 번천분교 일대 공유지 4.7ha 에는 백두대간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지구가 2022년 개장하며, 번천리 일대 공유지13.4ha 에는 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야영장, 트리하우스, 식물원 등 숲속 힐링 체험공간이 조성됨
- 시 관계자는 10일 해양관광과 연계한 산림치유 휴양단지, 체류형 산림문화휴양 체험단지는 낙후된 산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동해시 폐광지 활용한 관광단지 명칭 '무릉별유천지'로 확정

- **하반기 개장 목표...스카이글라이더 등 체험시설 조성**



- 40년 이상 석회석을 채굴해온 강원 동해시 무릉 3지구 폐광지를 활용한 관광단지 명칭이 '무릉별유천지'로 확정됨
- 무릉별유천지에는 우리나라 최초 체험시설인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로드 루지, 알파인코스트,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등 이색적인 체험시설과 라벤더 정원, 전망대 등이 조성됨
- 동해시는 이번 무릉별유천지 명칭 확정은 폐산업 시설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며 올해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함

▣ 화엄사권역 100만 관광객 찾는 치유·생태 관광지로 꾸민다

- **구례군, 432억원 들여 치유시설·동물복지·상가재생 등 7개 사업 추진**



- 구례군은 화엄사 권역에 화엄4색 블루투어 프로젝트 100억원, 지리산 야생화정원 43억원, 반달가슴곰 보호구역 100억원 등 총 432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힘
- 구례군은 화엄사, 국립공원공단, 상가번영회 등 2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광 인프라를 재정비해갈 방침임
- 구례군은 화엄사 권역은 천은사 산문 개방과 '윤스테이' 방송 등으로 관광객 유입에 강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며 화엄사 권역을 치유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갈 것을 밝힘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양양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 착공...2025년 개장

- **강원도, 양양군, LF그룹, 지경리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



-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은 해안에 숙박과 상업시설, 휴양시설로 구성된 체류형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2025년 1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4년 양양군이 민자유치로 사업추진을 시작한 이후 2016년 12월 LF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함
- 양양군 관계자는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 고용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하고 있음

▣ 돌파구 못 찾는 마산해양신도시...비싼 조성원가가 걸림돌?

- **4차 민간 개발사업자 공모 모두 실패, 땅 놀려...시 "공모지침 보완 재공모"**



- 경남 창원시 최대 현안 사업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세계적인 감성도시'를 새로운 개발 방향으로 잡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4차 공모를 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이르지 못함
- 창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원인을 분석하고 공모지침을 보완해 곧 사업자 를 재공모하겠다고 밝힘

▣ 원주 판부신촌 관광단지 조성 제동...시의회 용역비 전액 삭감

- **원주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판부신촌 검토 용역비' 4천만원 전액 삭감**
- 원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웰니스형 산림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수립함
- 이 사업은 신촌리에 조성 중인 원주천 댐 주변에 리조트와 팬션·먹거리단지, 건강휴양촌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민간자본을 포함해 1천억원이 넘음
- 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시유지를 현물 출자하고, 민간사업자 투자를 유치해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음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출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삭감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림
- 원주시는 이 사업이 간현관광지 개발과 함께 원주 관광산업을 부흥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자체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함

▣ '지역 기업 우대'...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기본·실시계획 수립, 건립추진단 구성·운영 등 세부 내용 규정**
-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기업을 우대함
- 또한 민간자본 유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개발자에게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함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다고 밝힘



- 아울러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함
- 또 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고시 방법,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서식,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 범위), 지정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음
-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

▣ 파주 캠프 자이언트·개리오언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경기 파주시, 캠프 자이언트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완료**
- 파주시는 2015년과 2019년 민간 투자 유치가 무산됐던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자이언트와 캠프 개리오언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힘
- KB증권 컨소시엄은 의료·관광을 융합한 캠프 자이언트의 도시개발사업을, NH투자증 권 컨소시엄은 캠프 개리오언의 도시개발사업을 각각 제안함
- KB증권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통해 캠프 자이언트와 주변 지역에 총 4천956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6천500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 등의 도시개발사 업을 제안함



-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은 캠프 개리오언 및 주변 지역에 총 3천3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3천200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 등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 환원 계획을 제안함
- 파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올해 8월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임

2021년 관광동향 분석 (2021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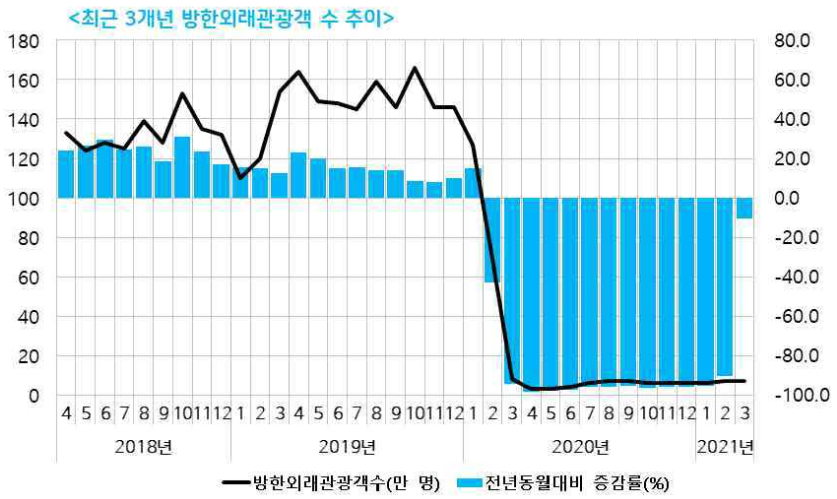
▣ 방한외래관광객

▸ 3월 방한외래관광객 74,604명, 전년동월(83,497명) 대비 10.7% 감소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5년	13,231,651	-6.8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20년	2,519,118	-85.6
'21년 3월	**74,604**	**-10.7**
2021년	198,583	-90.3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949명 (88.6% 감소)
- 중국관광객 18,980명 (14.4% 증가)
- 미국관광객 12,321명 (16.6% 감소)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5년	1,838(-19.4)	5,984(-2.3)	768(-0.3)	518(-19.5)	523(-6.3)	188(-12.3)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20년	431(-86.8)	686(-88.6)	220(-78.9)	167(-86.8)	89(-87.2)	73(-78.7)
'21년 3월	**0.9(-88.6)**	**19(14.4)**	**12(16.6)**	**0.3(-44.3)**	**0.09(-66.6)**	**2(-54.4)**
2021년	4(-99.1)	38(-93.6)	36(-70.4)	1(-99.4)	0.3(-99.7)	7(-88.0)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45,861명 (8.9% 감소)
- 미주 14,191명 (0.6%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5년	10,799(-7.8)	168(8.5)	974(0.0)	806(-5.0)	168(-5.5)	45(1.1)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20년	1,918(-86.6)	43(-82.9)	271(-79.8)	215(-80.4)	30(-86.0)	14(-76.1)
'21년 4월	**46(-8.9)**	**3(26.3)**	**14(0.6)**	**10(-23.7)**	**0.3(-71.4)**	**0.8(-32.0)**
2021년	114(-93.1)	6(-81.4)	42(-73.8)	31(-78.4)	1(-96.3)	3(-68.9)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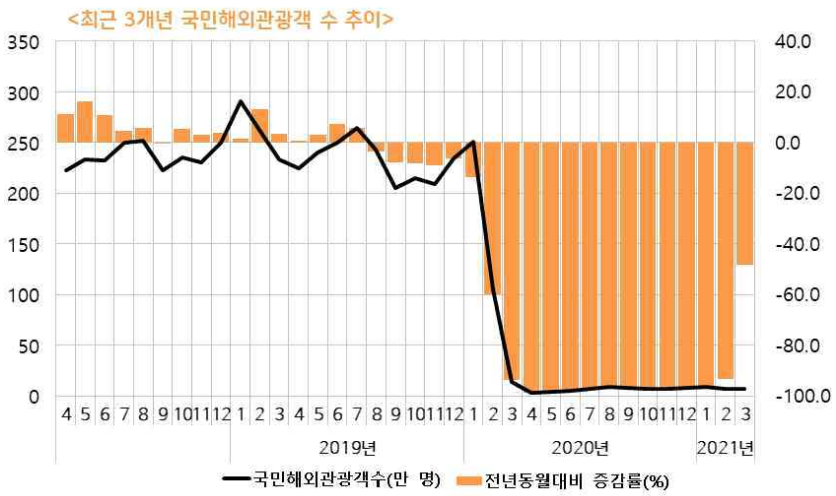
▣ 국민해외관광객

▸ 3월 국민해외관광객 73,999명, 전년동월(143,366명) 대비 48.4% 감소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5년	19,310,430	20.1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20년	4,276,006	-85.1
'21년 3월	**73,999**	**-48.4**
2021년	228,355	-93.8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 한국관광수지(2021. 5. 7.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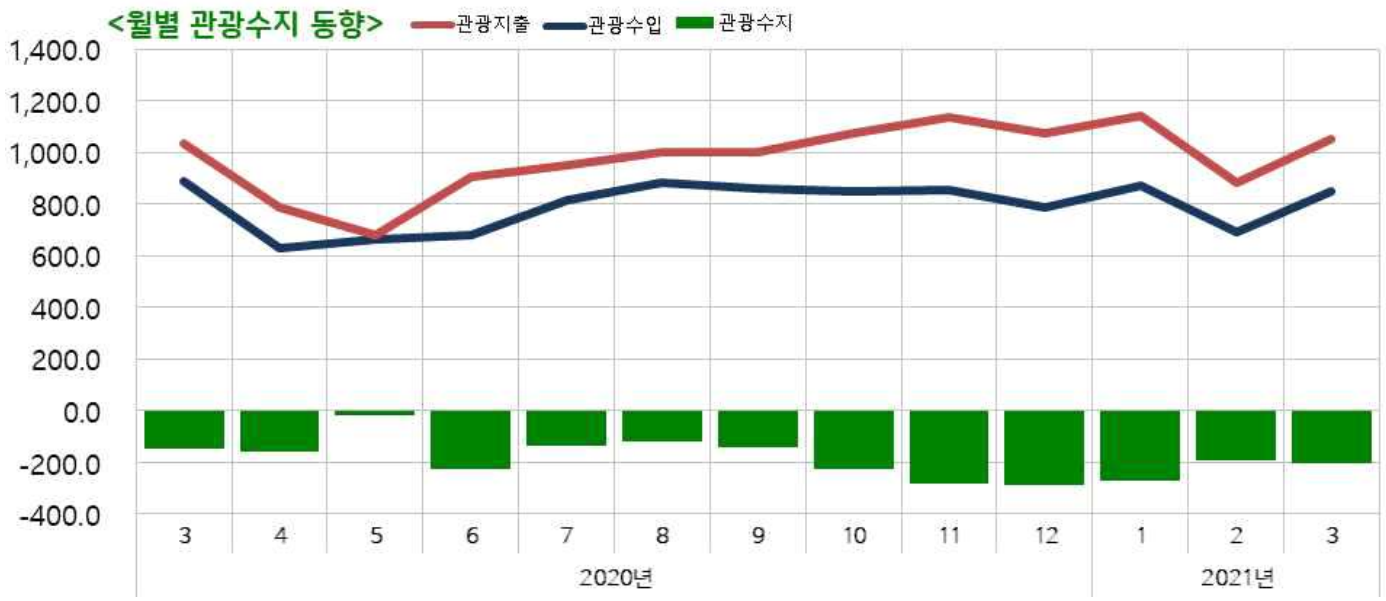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5년	14,676	(-15.3)	1,109	21,528	(10.6)	1,115	-6,852	-3,619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3,628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3,500
2019년	21,506	(16.5)	1,229	28,855	(-8.5)	1,005	-7,349	-3,326
2020년P	10,436	(-49.7)	4,143	13,450	(-54.0)	3,145	-3,014	-2,616
'21년 3월P	**851**	**(-4.4)**	**11,402**	**1,054**	**(1.6)**	**14,246**	**-204**	**-153**
2021년P	2,417	(-29.0)	12,173	3,083	(-36.2)	13,500	-666	-586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를 의미

'20~'21년 관광수입 및 지출은 자료반영의 시차 관계로 전월/전전월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관광객 감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됨(차후 한국은행 확정치 발표시 수정 예정)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20~'21년 1인당 지출액은 상기의 이유로 데이터 사용시 주의를 요함



▸ 2021년 관광 동향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년 3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내용 중 발췌하여 기재함.

6월 주요 이슈

keyword 코로나19

■ 광역시 및 각 지역 신규 추진사업 현황

- 강진군, 가우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박차'
- 거제시, 거제 일운면에 484객실 갖춘 휴양콘도미니엄 건립
- 안산시, 2025년까지 대부도에 '스카이바이크' 조성
- 여수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재개 '본격화'
- 서천군, 2026년 골프장·호텔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 들어선다
- 포천시, '명성산 케이블카·수원산터널' 포천시 숙원사업 본궤도



6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공공부문

■ 관광교통·레저시설 등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활발

- 각 지자체에서는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점화하기 위해 자연관광자원(산악/해안)을 이용한 레저 시설 및 관광교통 시설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임
- 포천시는 지역 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숙원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음. 산정호수~명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7월에 착공함. 300여억 원의 민간자본을 들여 산정호수 입구 상동주차장 인근에서 명성산 억새 군락지 팔각정까지 1.9㎞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을 밝힘
- 안산시는 대부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대부북동 구봉공원 일대에 바다 위를 달리는 '스카이 레일바이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시는 총 125억원가량 투입될 예정인 이 사업을 위해 최근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업체 모집 중에 있음
- 보은군은 속리산 휴양관광지에 설치한 모노레일이 이달 말 가동된다고 밝힘. 군은 88억원을 투입하여 속리산면 갈목리 일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한 후 시험 운행 중임
- 장성군은 자연폭포를 활용한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는 북하면 물통골 폭포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사업비 38억원 가운데 절반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로 확보했으며,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함

민간부문

■ 서·남해 지역, 체류형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탄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여행 활성화에 맞춰 국내 관광객 대량유치를 위해, 서해와 남해 지역 곳곳에서 민자유치를 연계한 체류형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강진군은 가우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남도, ㈜GFI개발과 도암면 가우도 일원에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민간자본 약 3천7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힘. 저두-가우도-망호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스카이바이크, 알파인코스터 등 체험 관광시설 먼저 설치하고, 대구면 저두리 일원에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등 202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림
- 서천군은 서천에 호텔과 골프장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선다고 밝힘. 2026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 서천 종천면 일대 380만㎡ 부지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임을 공지함
- 여수시와 미래에셋은 최근 간담회에서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개 의사를 밝힘. 타워형 레지던스와 함께 해수풀과 인공해변, 해양레포츠시설 등 해양 친수공간 설치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과 인허가 절차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미래에셋은 1조5천억 원을 들여 경도 일원 2.14㎢ 부지에 6성급 호텔과 리조트·골프장·상업시설·해상케이블카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복합 해양리조트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음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트램' 달린다..."세계 최초 무가선 방식"

- **2024년까지 639억원 들여 완공 목표..."전주 상징 콘텐츠 될 것"해수부, 내년 3월까지 3억6천억 원 규모로 진행**



- 전주 한옥마을 주요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 트램(Tram·노면전차) 도입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음
- 전주시는 10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옥마을 관광 트램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트램 설치 방향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했음
- 지난해 5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날 관광 트램을 세계 최초의 무가선 방식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은 바 있음
- 총사업비 규모는 차량 편성 및 정거장과 주차타워 건설비를 포함해 639억 원 정도로 추산했으며,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는 탑승 정원에 따라 연간 64만~92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음
- 전주시청 관계자는 "관광 트램은 한옥마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관광거점 도시인 전주를 상징하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명성산 케이블카·수원산터널' 포천시 숙원사업 본궤도

- **300여억 원 민간자본 투입, 산정호수 인근에서 명성산 억새 군락지 팔각정까지 1.9㎞에 케이블카 설치**



- 포천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숙원사업 1건 착공을 앞두고 있음
- 산정호수~명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7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산정호수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산정호수와 명성산 억새군락지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착공 전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7월 착공함
-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약 1시간 30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명성산 억새 군락지를 8분가량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명성산 억새군락지는 매년 가을이면 정상 부근 15만㎡ 규모의 억새밭이 장관을 이뤄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임

▣ 안산시, 2025년까지 대부도에 '스카이바이크' 조성

- **총 125억원가량 투입될 '스카이바이크' 사업을 위해 최근 실시설계 용역수행 업체 모집 중**



- 안산시는 대부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대부북동 구봉공원 일대에 바다 위를 달리는 '스카이 레일바이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힘
- 시가 구상 중인 레일바이크 노선은 현재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대부북동 35-3번지 근처에서 출발, 낙조전망대를 한 바퀴 돈 뒤 개미허리 아치교 밑을 통과해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총 3.7㎞ 노선으로 알려짐
- 시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대부도에 하루 600~7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 스카이 레일바이크가 완공되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1년간의 실시설계 연구용역 등이 마무리되면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레일바이크를 완공, 개통한다는 계획임

▣ 짜릿한 30도 경사...속리산 모노레일 이달 말 개장

- **88억원을 들여 속리산면 갈목리 일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한 후 시험 운행 중**



- 충북 보은군이 속리산 휴양관광지에 설치한 모노레일이 이달 말 가동 예정임
- 보은군에 따르면 총연장 866m의 이 모노레일의 최대 경사각은 30도이고, 최고 속력은 분당 60m로 알려져 있음
- 탑승용 차량은 2대(20인승)로 30분마다 운행되며, 승강장은 3곳 운영 예정임
- 보은군 관계자는 "모노레일이 새로운 관광 명물로 자리 잡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함

▣ 장성군, 가뭄에도 수량 넉넉한 물통골 폭포에 물놀이장 조성

- **자연폭포를 활용한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는 폭포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



- 장성호 수변길과 인접한 명치마을 물통골 폭포는 가뭄에도 마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짐
- 사업비 38억 원 중 절반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로 확보됨
- 총 3차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은 지난해 1차 사업인 주차장과 화장실 조성을 시작했으며,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함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재개 '본격화'

- **해수풀 등 인허가 절차 완료되면 바로 착공 예정**



-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은 최근 여수시장이 주선한 간담회에서 사업 재개 의사를 밝힘
- 관광테마시설인 마리나 시설과 1천석 이상 규모의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엔터테인먼트 센터, 상업시설, 해상케이블카, 실외공연장, 해안산책로 등은 경호초등학교 이전이 완료되면 착공해 202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임
- 미래에셋은 1조5천억 원을 들여 경도 일원 2.14㎢ 부지에 6성급 호텔과 리조트·골프장·상업시설·해상케이블카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복합 해양리조트로 개발할 계획임
- 미래에셋은 여수 소재 기업과 업체, 장비를 우선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인재 우선 고용과 지역업체 우선 입점, 개발이익 100% 지역 재투자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로 했음

▣ 전북도, 변산면 마포리에 5층 규모 '휴양콘도' 건립 협약

- **211억원 들여 2만740㎡에 객실 48개 갖춘 지상 5층 규모 휴양콘도미니엄 건립 예정**



- 전북도와 부안군, 대일변산관광개발㈜은 7일 전북도청에서 부안군 변산면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짓는 투자협약을 체결함
- 완공 시점은 2025년으로 알려짐
- 협약에 따라 대일변산관광개발은 전북도민 우선 채용과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등록, 회의 유치 등 전북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함

▣ 강진군, 가우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박차'

-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민간자본 약 3천700억원 투입**



- 저두-가우도-망호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스카이바이크, 알파인코스터 등 체험 관광시설 먼저 설치할 예정임
- 관광시설 설치에 이어 대구면 저두리 일원에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등 202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 지난해 10월 저두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고, 올해 2월에는 가우도 일원 민간투자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음
- ㈜GFI개발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금융참여 관련 당사자 간 협약을 3월 체결함
- 1일에는 8월 스카이바이크 착공을 목표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직접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주무 부서인 개발사업지원단 담당자와 관련 용역회사가 입회하여 측량함
- 강진군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내여행 활성화에 맞춰 남해안 관광의 거점·중심축이 되도록 가우도 일대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함

▣ 거제시 일운면에 484객실 갖춘 휴양콘도미니엄 건립

- **5만8천㎡에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 2023년까지 건설**



- 경남 거제시가 3일 거제시 일운면 일대 해양휴양특구에 관광숙박시설을 짓는 협약을 민간기업과 체결함
- 해양휴양특구 사업자인 익상개발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아레포즈가 일운면 소동리 일대에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설함
- 사업비 3천400억원은 헤리티지자산운용이 조달할 예정임
- 거제시 해양휴양특구사업은 2010년 지정됐으나,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음
- 바다와 접한 일운면 일대는 씨월드, 조선해양박물관 등 관광시설과 리조트, 호텔 등이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임

▣ 서천에 2026년 골프장·호텔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 들어선다

- **새서울그룹 5년간 3천억원 투자 MOU**



- 충남도와 서천군, 새서울그룹은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충남 서천에 호텔과 골프장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선다고 밝힘
- 새서울그룹은 2026년까지 3천억원을 투입해 서천 종천면 일대 380만㎡ 부지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임
- 관광단지에는 호텔과 콘도미니엄, 27홀 규모 골프장, 박물관,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임
- 조성 면적으로는 도내 관광단지 27곳 중 안면도 관광단지(524만7천292㎡)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새서울그룹은 서천 관광단지 개발로 5천억원 생산유발, 2천300명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충남도 관계자는 "서천 관광단지는 충남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충남 서남부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함

2021년 관광동향 분석 (2021년 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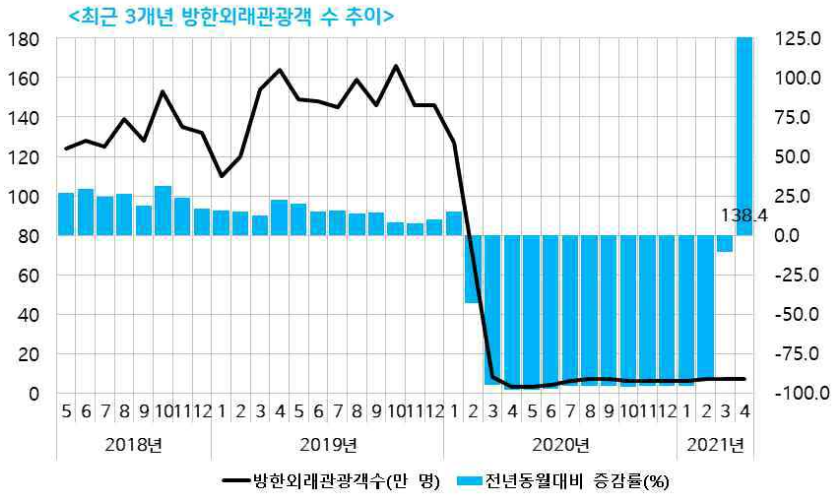
▣ 방한외래관광객

▸ 4월 방한외래관광객 70,112명, 전년동월(29,415명) 대비 138.4% 증가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5년	13,231,651	-6.8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20년	2,519,118	-85.6
'21년 4월	**70,112**	**+138.4**
2021년	268,695	-87.0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872명 (142.2% 증가)
- 중국관광객 16,830명 (327.7% 감소)
- 미국관광객 12,944명 (101.7% 감소)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5년	1,838(-19.4)	5,984(-2.3)	768(-0.3)	518(-19.5)	523(-6.3)	188(-12.3)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20년	431(-86.8)	686(-88.6)	220(-78.9)	167(-86.8)	89(-87.2)	73(-78.7)
'21년 4월	**0.9(142.2)**	**17(327.7)**	**13(101.7)**	**0.3(79.4)**	**0.04(8.6)**	**2(89.0)**
2021년	5(-98.9)	55(-90.9)	48(-61.7)	1(-99.2)	0.3(-99.6)	9(-84.2)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40,822명 (140.4% 증가)
- 미주 14,852명 (111.3%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5년	10,799(-7.8)	168(8.5)	974(0.0)	806(-5.0)	168(-5.5)	45(1.1)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20년	1,918(-86.6)	43(-82.9)	271(-79.8)	215(-80.4)	30(-86.0)	14(-76.1)
'21년 4월	**41(140.4)**	**3(2,177.6)**	**15(111.3)**	**9(126.3)**	**0.4(60.4)**	**0.7(253.8)**
2021년	155(-90.7)	9(-72.5)	56(-65.9)	40(-72.6)	1(-95.0)	4(-62.3)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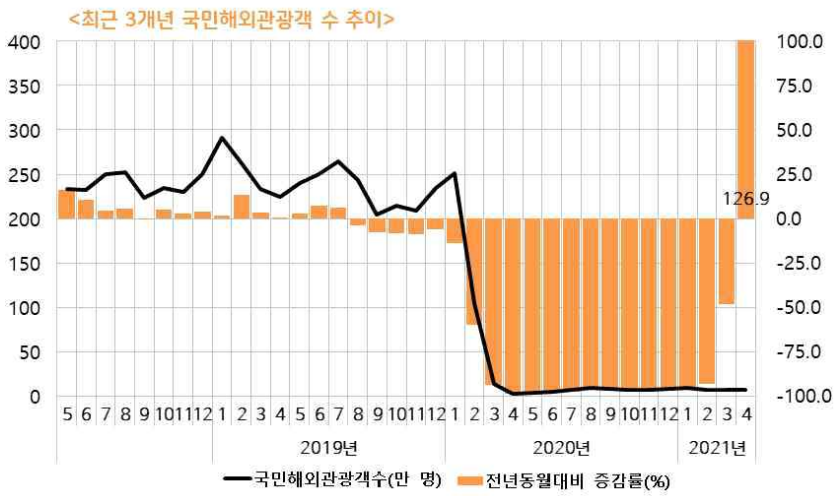
▣ 국민해외관광객

▸ 4월 국민해외관광객 71,302명, 전년동월(31,425명) 대비 126.9% 증가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5년	19,310,430	20.1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20년	4,276,006	-85.1
'21년 4월	**71,302**	**126.9**
2021년	299,657	-92.0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 한국관광수지(2021. 6. 8.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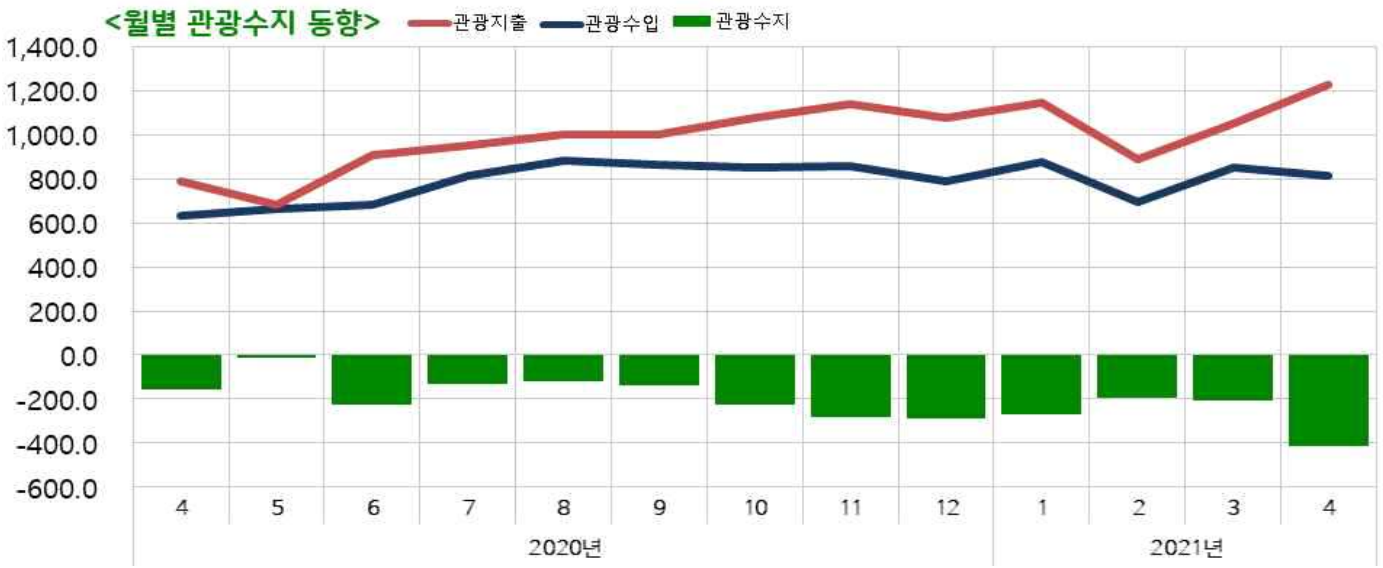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5년	14,676	(-15.3)	1,109	21,528	(10.6)	1,115	-6,852	-3,619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3,628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3,500
2019년	21,506	(16.5)	1,229	28,855	(-8.5)	1,005	-7,349	-3,326
2020년P	10,436	(-49.7)	4,143	13,450	(-54.0)	3,145	-3,014	-2,616
'21년 4월P	**813**	**(28.6)**	**11,589**	**1,224**	**(55.0)**	**17,164**	**-411**	**-194**
2021년P	3,230	(-19.9)	12,021	4,307	(-23.4)	14,372	-1,077	-779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를 의미

'20~'21년 관광수입 및 지출은 자료반영의 시차 관계로 전월/전전월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관광객 감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됨(차후 한국은행 확정치 발표시 수정 예정)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20~'21년 1인당 지출액은 상기의 이유로 데이터 사용시 주의를 요함



▸ 2021년 관광 동향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년 4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내용 중 발췌하여 기재함.

7월 주요 이슈

keyword 코로나19

■ 광역시 및 각 지역 신규 추진사업 현황

- 양양시, 6성급 리조트 '카펠라 양양' 조성…2024년 개장
- 삼척시, 맹방해변에 950억 규모의 관광친수시설 조성
- 당진군, 석문면 일대 관광지로…연도교·골프장 추진 잇따라
- 울진군, 바다 위 풍경 감상…죽변 해안스카이레일 개장
- 여수시, 여수 챌린지 파크 관광단지 조성 사업 '첫 삽'
- 광주시, 대야저수지 개발에 600억 원 소요 예상



7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공공부문

■ 지자체의 생태관광지 개발사업 투자 움직임 활발

-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여행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의 생태자원(DMZ, 향토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계획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는 지역의 대표 명산인 무등산 자락 평촌 반디마을에 길이 6.5㎞ 누리길 조성을 발표함. 시에 따르면 누리길 조성사업은 산책로를 중심으로 문화·휴식 공간을 만드는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문화사업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알림
- 안산시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지역 내 유일한 염전인 대부도 동주염전 일부 부지에 염전체험장을 조성한다고 밝힘. 시는 2019년 170억 원을 주고 동주염전으로부터 6만500㎡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최근 체험장 운영을 위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함
- 양구군은 해안면에 추진하는 'DMZ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힘. DMZ 펀치볼 지방정원은 23㏊ 부지에 100억원을 들여 테마정원과 방문자센터, 주차장, 야외무대, 체험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음
- 완도군은 국립 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바 있음. 국립난대수목원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약 1천9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대형 사업으로 알려져 있음

민간부문

■ 해양자원 기능 확대한 관광친수시설 조성계획 탄력

-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항만, 해수욕장, 발전소 등 지역에 분포된 해양자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관광친수시설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다수 투자하고 있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강릉 옥계지구와 동해 망상 제2·3지구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망상 2지구는 0.22㎢에 715억 원을 투자해 지하·지상 복합 아트뮤지엄, 호텔, 콘도 등이 있는 아트뮤지엄 콤플렉스로 개발하는 사업이며, 망상 3지구는 0.14㎢에 880억 원을 들여 지하·지상 복합호텔, 콘도, 커뮤니티센터, 쇼핑몰 등이 있는 글로벌 리조트 콤플렉스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면 인센티브로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힌 바 있음. 사업자는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164만㎡ 규모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에 관광·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알림. 새만금개발청은 인센티브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100㎿를 제공한다고 알리며, 8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9월에 종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거제시는 매각 시도 16년 만에 사업자를 찾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를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힘.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순조로우면 민간사업자인 '해금강'이 4천215억 원을 들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에 387실을 갖춘 10층 이하 관광숙박시설과, 휴양·관광시설 착공에 들어간다고 알림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 양구군, DMZ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 착공

- **23ha 부지에 100억 원을 들여 테마정원과 방문자센터, 주차장, 야외무대, 체험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



- 강원 양구군이 해안면에 추진하는 'DMZ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감
- 지방정원 조성으로 해안면이 보유한 기존의 산림생태 관광자원, 안보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를 노릴 것으로 기대됨
- 원활한 국비 지원을 위해 순천만과 태화강에 이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짐
- 양구군 관계자는 "다른 지방정원과 차별화해 정원 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며 기대를 내비침

▣ 'DMZ 평화·안전 터전으로'...경기도, 5년간 1천700억 원 투입

- **총예산 1천700억 원. 올해 210억 원, 내년 630억 원, 2023년 350억 원, 2024년 270억 원, 2025년 240억 원 투입**



- 경기도는 전쟁과 갈등의 상흔이 남아있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안전의 터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경기도 DMZ 일원 발전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힘
- 이번 종합계획은 '경기도 DMZ 보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DMZ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향후 5년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됨
- 총예산은 1천 700억 원이며, 올해 210억 원, 내년 630억 원, 2023년 350억 원, 2024년 270억 원, 2025년 2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 DMZ를 생태평화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초광역 관광벨트인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해 DMZ를 명실상부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시킬 계획임을 밝힘
-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는 "유동적인 남북 관계, 연차별 사업 시행 등의 성격을 고려해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음

▣ 국립 완도난대수목원 조성 탄력...산악열차 추진

- **완도수목원에 약 1천 9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국립난대수목원 조성하는 대형 국책 사업추진**



- 6일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완도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산림청장 등 20여 명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정지인 완도수목원 현장을 점검했음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기후변화·식물상 변화 연구 등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완도수목원에 약 1천9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알려짐
- 전남도와 완도군은 현장 설명 후 수목원 주 관람객을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관람 편의를 위해 산악열차 개설 등을 건의한 바 있음
- 산림청은 이를 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림
-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방문객은 85만 명에 달하고, 1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8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됨
- 산림청 관계자는 "완도수목원을 들어설 때부터 병풍처럼 펼쳐진 난대숲 자원에 매우 감탄했다"라며 "이러한 산림 자산을 전 국민이 하루빨리 향유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평가 준비에 사활을 걸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함

▣ 진천군 농다리공원·송강문화창조마을 조성 추진

- **154억 원 들여 송강문학관과 문학창작마을, 휴게공간을 갖춘 송강문화창조마을 조성**



- 진천군이 관광자원 다각화를 위해 농다리 공원과 송강문화마을, 초평 책마을 조성을 추진함
- 58억 5천만 원을 들여 내년까지 농다리 전시관, 주차장 확장, 가로수길을 조성한다고 알림.
- 154억 원을 들여 송강문학관, 문학창작마을, 송강문화창조마을도 조성 예정임
- 2026년까지 178억 원을 들여 완위각과 쌍오정을 재현하고 책마을 복합센터 건립까지 예정하며 기대를 내비침

▣ 안산시, 대부도에 염전체험장 조성...내년 4월 개장

- **50억 들여 소금생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실내교육장과 소금 체험장, 어린이 놀이터 등 조성**



- 경기 안산시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지역 내 유일한 염전인 대부도 동주염전 일부 부지에 염전체험장을 조성한다고 2일 밝힘
- 2019년 11월 70억 원을 주고 동주염전으로부터 6만500㎡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최근 체험장 운영을 위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를 입법을 예고함
- 시는 해당 부지에 50억을 들여 소금생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실내교육장과 소금 체험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할 예정임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자 공모

-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164만㎡ 규모에 관광·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조성계획**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면 인센티브로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힌 바 있음
- 사업자는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164만㎡ 규모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에 관광·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야 함
- 새만금개발청은 인센티브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100㎿를 제공함
- 기간은 8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9월에 종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알림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친환경 개발계획에 토대를 둔 다양한 해양레저·관광·편의시설을 도입해 새만금을 물과 주거지, 레포츠 시설이 통합된 친수적 도시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관심을 당부함

▣ 여수 챌린지 파크 관광단지 조성 사업 '첫 삽'

- **2025년까지 2천 300억 원 투자해 복합 레저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로 개발**



- 챌린지 파크는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일원 51만㎡ 부지에 조성되며, 2025년까지 2천300억 원을 투자해 복합 레저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로 개발한다.
- 사업시행자인 여수챌린지파크관광㈜은 전남도·여수시와 2015년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2019년 전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이날 착공했다고 알림
- 1단계 사업은 대표시설인 익스트림 체험시설(루지, 짚라인 등), 2단계 사업은 숙박·휴양시설로 각각 올해 8월, 12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밝힘

▣ 16년 표류사업 명승 거제 '해금강' 관광지 올해 첫 삽 뜨나

- **4천 215억 원 들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에 387실 갖춘 10층 이하 관광숙박시설과, 휴양·관광시설 착공**



- 경남 거제시는 매각 시도 16년 만에 사업자를 찾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를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5일 밝힘
- 올 하반기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순조로우면 민간사업자인 '해금강'이 4천 215억 원을 들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에 387실을 갖춘 10층 이하 관광숙박시설과, 휴양·관광시설 착공에 들어감
- 거제시는 매각 시도 16년만인 지난해 1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민간사업자인 '해금강'과 투자협약에 성공함
- 거제시와 해금강 측은 사업 기간을 5년 정도로 잡고 있다고 알려짐
-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명승 제2호인 해금강과 바람의 언덕, 신선대 등 거제 유명 관광지와 가까우면서 풍광이 아름다운 바닷가로 알려져 있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기반 조성·기업 유치 총력

- **망상 2, 3지구에 각각 715억 원, 880억 원을 투자하여, 아트뮤지엄 콤플렉스와 글로벌 리조트 콤플렉스로 개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강릉 옥계지구와 동해 망상 제2·3지구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3일 밝힘
- 지난해 동부건설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망상 2·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등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망상 2지구는 0.22㎢에 715억 원을 투자해 지하·지상 복합 아트뮤지엄, 호텔, 콘도 등이 있는 아트뮤지엄 콤플렉스로 개발하고, 망상 3지구는 0.14㎢에 880억 원을 들여 지하·지상 복합호텔, 콘도, 커뮤니티센터, 쇼핑몰 등이 있는 글로벌 리조트 콤플렉스로 개발하는 것을 계획함
- 지난해 동부건설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망상 2·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등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 동자청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망상 2·3지구는 사계절 국제적 관광, 문화, 휴양 산업이 어우러진 환동해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침

▣ 미래에셋,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공사 8월부터 '재개'

-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논란으로 중단 2개월 만에 재추진**



-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논란으로 지난 5월 사업 재검토를 선언한 미래에셋이 다음 달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알림
-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1조5천억 원 규모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오는 8월 해양친수공간 착공을 시작으로 관광테마시설·5성급 호텔·콘도 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미래에셋은 경도 일원 2.14㎢ 부지에 6성급 호텔과 리조트·골프장·상업시설·해상케이블카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복합 해양리조트로 개발할 계획임
- 숙박시설은 6만5천㎡ 부지에 사업비 7천500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3층, 지상 4~29층 규모의 11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임
- 미래에셋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최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숙박업 전문 운영회사를 선정해 위탁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운영계획을 밝힘

2021년 관광동향 분석 (2021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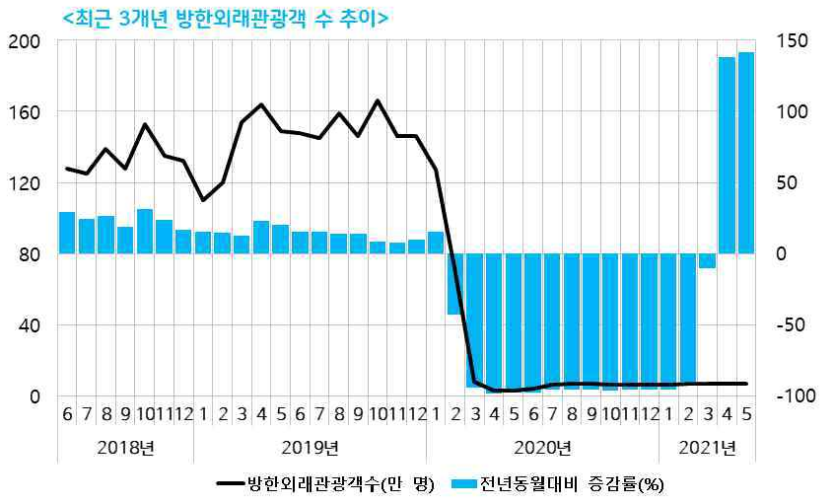
▣ 방한외래관광객

▸ 5월 방한외래관광객 74,463명, 전년동월(30,806명) 대비 141.7% 증가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5년	13,231,651	-6.8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20년	2,519,118	-85.6
'21년 5월	**74,463**	**141.7**
2021년	343,158	-83.7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1,403명 (239.7% 증가)
- 중국관광객 14,221명 (177.5% 증가)
- 미국관광객 17,278명 (97.8%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5년	1,838(-19.4)	5,984(-2.3)	768(-0.3)	518(-19.5)	523(-6.3)	188(-12.3)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20년	431(-86.8)	686(-88.6)	220(-78.9)	167(-86.8)	89(-87.2)	73(-78.7)
'21년 5월	**1(239.7)**	**14(177.5)**	**17(97.8)**	**0.3(84.7)**	**0.1(295.8)**	**3(69.7)**
2021년	6(-98.5)	69(-88.7)	66(-51.4)	2(-99.0)	0.4(-99.5)	12(-80.0)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39,701명 (202.0% 증가)
- 미주 19,617명 (103.9%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5년	10,799(-7.8)	168(8.5)	974(0.0)	806(-5.0)	168(-5.5)	45(1.1)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20년	1,918(-86.6)	43(-82.9)	271(-79.8)	215(-80.4)	30(-86.0)	14(-76.1)
'21년 5월	**40(202.0)**	**3(1,762.9)**	**20(103.9)**	**10(52.6)**	**0.3(61.5)**	**0.7(353.8)**
2021년	194(-88.5)	12(-64.5)	76(-56.6)	50(-67.0)	2(-94.0)	4(-55.6)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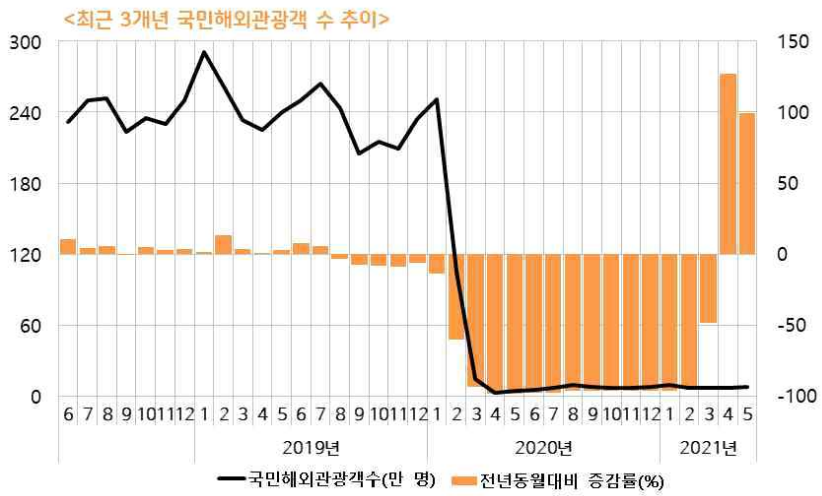
▣ 국민해외관광객

▸ 5월 국민해외관광객 75,416명, 전년동월(37,802명) 대비 99.5% 증가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5년	19,310,430	20.1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20년	4,276,006	-85.1
'21년 5월	**75,416**	**99.5**
2021년	375,073	-90.1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 한국관광수지(2021. 7. 7. 한국은행)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5년	14,676	(-15.3)	1,109	21,528	(10.6)	1,115	-6,852	-3,619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3,628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3,500
2019년	21,506	(12.4)	1,185	29,261	(-7.2)	1,019	-7,349	-3,356
2020년P	10,436	(-49.7)	4,143	13,450	(-54.0)	3,145	-3,014	-2,616
'21년 5월P	**845**	**(27.3)**	**11,353**	**1,359**	**(100.1)**	**18,025**	**-514**	**-198**
2021년P	4,075	(-13.3)	11,876	5,666	(-10.1)	15,107	-1,591	-977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를 의미

'20~'21년 관광수입 및 지출은 자료반영의 시차 관계로 전월/전전월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관광객 감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됨(차후 한국은행 확정치 발표시 수정 예정)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20~'21년 1인당 지출액은 상기의 이유로 데이터 사용시 주의를 요함



▸ 2021년 관광 동향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년 5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내용 중 발췌하여 기재함.

Vol.81 2021. 08.

관광투자유치 월간동향

http://kto.visitkorea.or.kr/kor/biz/invest.kto

8월 주요 이슈

keyword 코로나19

■ 광역시 및 각 지역 신규 추진사업 현황

- 강원도, 940억 규모 평화지역 생태평화벨트 사업 순항
- 경남 고성군, 자란도에 2023년 말까지 해양치유센터 건립
- 단양군, 대강에 골프장낀 관광단지 조성…2024년 완공 예정
- 안성시, 축구장 189개 규모 죽산관광단지 2025년까지 조성
- 평창군, K-POP Goods 전시관·게임 체험관 유치 협약
- 부산시,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소더비 부산' 테마월드 조성



8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공공부문

■ 지역 문화/생태자원 반영한 관광지 조성 활성화

-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특화된 문화/생태/산업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및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지역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강원도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평화(접경)지역 5개 군은 총 939억원을 들여 생태평화벤트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 중임. 이 사업은 DMZ 주변의 우수한 생태자원 및 역사·안보 자원을 활용해 DMZ 일원을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음
- 원주시는 원주지역 중앙선 폐철로를 활용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함. 중앙선 반곡역부터 치악역까지 폐선로에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힌 바 있음. 관광열차 운행 구간은 반곡역에서 금대리 뙤리굴까지 총연장 7천706m이며, 사업비는 921억원이 투입된다고 알려져 있음
- 경남 고성군은 일면 자란도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한다고 3일 밝힘. 해양수산부, 경남도, 고성군이 350억원을 투자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자란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건물을 지을 계획임. 자란도 해양치유센터는 바닷물을 활용한 스파, 물리치료 시설 등의 시설로 구성될 예정임
- 동해시는 석회석 채광지와 폐산업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해온 무릉 3지구 1단계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오는 9월 중순 준공해 일반에 개방할 예정임. 관광단지에는 뛰어난 생태환경을 이용하여 알파인 코스트, 롤러코스터, 오프로드 루지, 집라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했음

민간부문

■ 테마형 관광시설 및 관광단지 투자유치계획 활발

- 민과 관은 해당 지역의 문화/생태자원을 이용한 테마형 관광시설 및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활발한 투자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강원 고성군은 토성면 신평리 일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승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알림.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민자 개발인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단지는 이랜드파크가 신평리 470의 60번지 일대 84만9천114㎡에 8천843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1천765실 규모의 알프스 테마 숙박시설을 비롯해 테마뮤지엄, 호수 및 생태연못 등 친환경 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안성시는 2025년까지 죽산면에 축구장(7천140㎡) 189개 규모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힘. 죽산관광단지는 민간 자본 3천890억원을 들여 숙박시설, 스포츠 테마파크, 키즈 테마파크, 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려짐. '스포츠 테마 체류형 관광시설'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대중골프장과 루지·카트·익스트림 스포츠 공간을 비롯해 호텔 2곳(180실·160실)과 콘도 1곳(70실) 등 숙박시설을 갖출 예정임
- 부산시는 19일 오전 대원플러스그룹과 1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대원플러스그룹은 우선 황령산 정상 부근 봉수대 주변에 부산 시내를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조성을 계획함.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전망대에 이르는 로프웨이(무지주 케이블카)도 건설할 계획임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강원 평화지역 생태평화벨트 사업 순항

-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지역 939억원 들여 추진**



-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평화(접경)지역 5개 군에 조성 중인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5일 밝힘
- 이 사업은 DMZ 주변의 우수한 생태자원 및 역사·안보 자원을 활용해 DMZ 일원을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평화지역 5개 군이 총 939억원을 들여 2013년부터 추진 중임
- 주요 사업으로는 철원 근대 문화거리 테마파크와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 마을,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등으로 알려짐
- 도 평화지역발전본부 관계자는 "평화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 국내 최대 석회석 폐광산, '별천지' 관광지로 탈바꿈

- **동해시 무릉3지구에 다음 달 중순 준공, 숙박 시설 등은 2027년까지 민간자본 유치해 친환경적으로 개발 계획**



- 16일 동해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추진해온 무릉 3지구 1단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오는 9월 중순 준공해 일반에 개방할 예정임
- 시는 복합 체험 관광단지로 조성 중인 무릉 3지구 명칭을 최근 '무릉별유천지'로 확정하였음
- 시는 그동안 진입 도로를 개설하고, 전기, 수도, 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갖췄음
- 여기에다 뛰어난 생태환경 속에서 알파인 코스트, 롤러코스터, 오프로드 루지, 집라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했음
- 동해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이 넓은 폐광산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막막했다"면서 "2027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민간투자자와 협의해 종합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함

▣ '명량의 신화' 해남 우수영,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난다

- **공사비 360억원으로 ㈜울돌목해상케이블카에서 전액 민간투자**



- 명량대첩 승전지 전남 해남 우수영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남
- 해남군은 우수영 관광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워크와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조성에 막바지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10일 밝힘
- 군은 스카이워크와 케이블카의 조명시설과 야간 운행 등으로 빛의 관광을 통해 체류형 관광명소를 조성할 계획임
- 공사비 360억원으로 ㈜울돌목해상케이블카에서 전액 민간투자하며 8월 말~9월 초 본격적인 개통을 계획하고 있음
- 군은 스카이워크와 해상케이블카가 서남권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기 정착하기 위해 임시상가 건립과 푸드트럭 등을 배치할 계획임
- 군 관계자는 "스카이워크와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는 거센 물살로 유명한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스릴 있고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해상케이블카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내비침

▣ 동해시 망상 2·3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산자부 심의 통과

-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마무리..2023년 1월 착공"**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추진하는 동해 망상 제 2·3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음
- 개발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1지구와 기능이 중첩되는 망상 2지구 주택건설 용지 등을 폐지해 관광 복합시설 용지로 도입하고, 국내외 관광객 요구를 충족하는 프리미엄 힐링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짐
- 동자청은 0.22㎢에 715억원(애초 488억원)을 투자해 프리미엄 호텔의 휴양기능과 아트뮤지엄, 북카페 등의 문화예술 기능을 연계해 개발할 예정임



▣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청신호...국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

- **11월부터 2023년까지 남면 달산리에 340억 들여 건립**
- 태안군은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태안해안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이 20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됐다고 밝힘
- 2023년까지 340억원이 투입되는 해양치유센터는 남면 달산리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건물면적 6천245㎡)로 세워지는 것으로 알려짐
- 이곳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해수, 피트, 해조류, 해염 등 양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한 만큼 사업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고성에 알프스 테마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승인절차 착수

- **이랜드파크가 신평리 470의 60번지 일대 84만9천114㎡에 8천843억 원을 들여 추진**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일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승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고성군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민자 개발인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단지는 이랜드파크가 신평리 470의 60번지 일대 84만9천114㎡에 8천843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려짐
- 1천765실 규모의 알프스 테마 숙박시설을 비롯해 테마뮤지엄, 호수 및 생태연못 등 친환경 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알프스 대자연을 모티브로 한 테마형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될 설악밸리 관광단지는 고성군 관광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음

▣ 안성 죽산관광단지 2025년까지 조성...축구장 189개 규모

- **민자 3천890억원 들여 스포츠 테마 체류형 관광시설 추진**
- 죽산관광단지는 죽산면 당목리 일원 135만㎡에 민간 자본 3천890억원을 들여 숙박시설, 스포츠 테마파크, 키즈 테마파크, 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 '스포츠 테마 체류형 관광시설'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대중골프장과 루지·카트·익스트림 스포츠 공간을 비롯해 호텔 2곳(180실·160실)과 콘도 1곳(70실) 등 숙박시설을 갖출 예정임
- 시는 연내 관광단지 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해 2025년 관광단지를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평창군-SMGASIA, 'K-POP Goods 전시관·게임 체험관 유치 협약

- **Goods 오프라인 전시관인 'GOODS N CAFE'와 게임체험관을 유치**



- 강원 평창군은 17일 ㈜SMGASIA와 'K-POP Goods 전시관 및 게임 체험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하고 첨단 미래 문화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음
- SMGASIA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평창군에 Goods 오프라인 전시관인 'GOODS N CAFE'와 게임체험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2023년 문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평창군에 K-POP 관련 기업이 유치되면, 전 세계인이 찾는 젊고 세련된 첨단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평창군 관계자는 "K-POP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상품의 오프라인 전시관과 게임 체험관을 유치해 세계적인 도시로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 후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야경명소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 **1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 파노라마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임
- 시와 대원플러스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황령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부산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임
- 대원플러스그룹은 우선 황령산 정상 부근 봉수대 주변에 부산 시내를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전망대에 이르는 로프웨이(무지주 케이블카)도 건설할 계획임
- 부산시와 대원플러스그룹은 전망대를 이탈리아 나폴리, 홍콩, 일본 하코다테 등 세계 3대 야경 못지않은 전망 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힘

- 부산시와 대원플러스그룹은 또 황령산 중턱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스노우캐슬도 새로운 유원지 시설 등으로 재개발할 계획임
-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황령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우고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음

▣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소더비 부산' 들어선다

- **부산시와 건립 양해각서 체결...VR·AR 첨단 디지털 기술 적용 테마월드 조성**



- 부산시는 23일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 소더비부산과 '소더비 부산'(Sotheby's Busan)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체결식에서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은 오시리아관광단지 트렌디 스토어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7만2천682.14㎡ 규모의 '소더비 부산' 설립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광학기술, 메타버스, 미디어파사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유일의 테마월드를 조성하겠다고 소더비 부산 측은 밝힘

- 소더비부산 측은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사업비 1조원을 마련할 계획임
- 부산시 관계자는 "글로벌 복합관광 단지로 성장할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완성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며 "'소더비 부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지원을 약속함

2021년 관광동향 분석 (2021년 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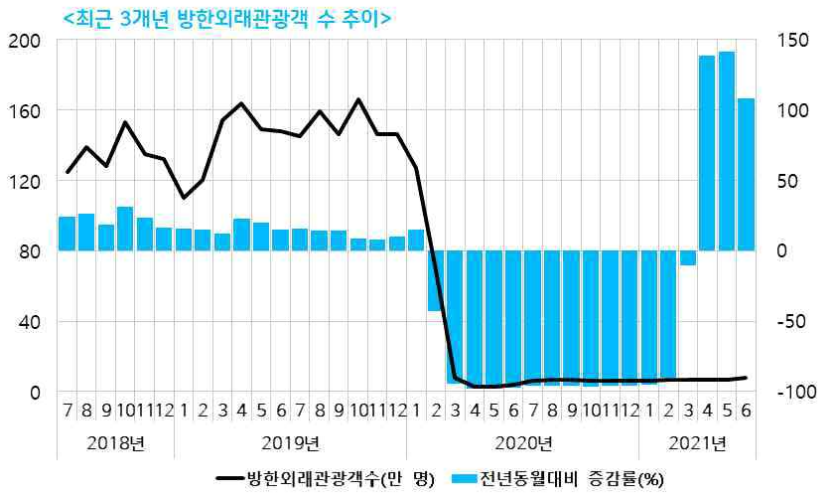
▣ 방한외래관광객

▸ 6월 방한외래관광객 77,029명, 전년동월(36,938명) 대비 108.5% 증가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5년	13,231,651	-6.8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20년	2,519,118	-85.6
'21년 6월	**77,029**	**108.5**
2021년	420,187	-80.4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875명 (75.7% 증가)
- 중국관광객 12,942명 (156.2% 증가)
- 미국관광객 18,159명 (86.9%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5년	1,838(-19.4)	5,984(-2.3)	768(-0.3)	518(-19.5)	523(-6.3)	188(-12.3)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20년	431(-86.8)	686(-88.6)	220(-78.9)	167(-86.8)	89(-87.2)	73(-78.7)
'21년 6월	**0.9(75.7)**	**13(156.2)**	**18(86.9)**	**0.3(14.6)**	**0.08(27.4)**	**3(39.6)**
2021년	7(-98.3)	82(-86.6)	84(-42.2)	2(-98.8)	0.5(-99.4)	15(-75.9)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40,557명 (143.0% 증가)
- 미주 20,408명 (87.2%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5년	10,799(-7.8)	168(8.5)	974(0.0)	806(-5.0)	168(-5.5)	45(1.1)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20년	1,918(-86.6)	43(-82.9)	271(-79.8)	215(-80.4)	30(-86.0)	14(-76.1)
'21년 6월	**41(143.0)**	**3(266.5)**	**20(87.2)**	**11(49.4)**	**0.3(46.6)**	**0.9(257.0)**
2021년	235(-86.2)	15(-56.1)	96(-48.2)	61(-61.8)	2(-93.0)	5(-48.1)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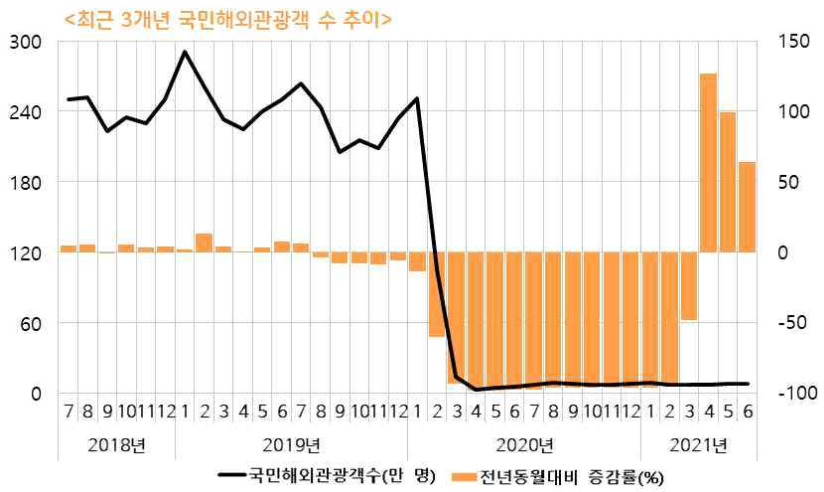
▣ 국민해외관광객

▸ 6월 국민해외관광객 79,446명, 전년동월(48,353명) 대비 64.3% 증가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5년	19,310,430	20.1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20년	4,276,006	-85.1
'21년 6월	**79,446**	**64.3**
2021년	454,519	-88.1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 한국관광수지(2021. 8. 6. 한국은행)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5년	14,676	(-15.3)	1,109	21,528	(10.6)	1,115	-6,852	-3,619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3,628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3,500
2019년	21,506	(12.4)	1,185	29,261	(-7.2)	1,019	-7,349	-3,356
2020년P	10,436	(-49.7)	4,143	13,450	(-54.0)	3,145	-3,014	-2,616
'21년 6월P	**756**	**(11.1)**	**9,820**	**1,063**	**(17.1)**	**13,383**	**-307**	**-181**
2021년P	4,832	(-10.2)	11,499	6,729	(-6.6)	14,805	-1,898	-1.159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를 의미

'20~'21년 관광수입 및 지출은 자료반영의 시차 관계로 전월/전전월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관광객 감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됨(차후 한국은행 확정치 발표시 수정 예정)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20~'21년 1인당 지출액은 상기의 이유로 데이터 사용시 주의를 요함



▸ 2021년 관광 동향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년 6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내용 중 발췌하여 기재함.

9월 주요 이슈

■ 광역시 및 각 지역 신규 추진사업 현황

- 태안군, 영목항 국가어항으로 지정, 관광레저 기능 개발 기대
- 진도군, 서망항 등 어항 4곳 현대화…1천439억 투입
- 전남도, 목포·여수광양항 활성화 사업, 국비 1천200억 확보
-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번째 민간투자 공모에 3개 사 응모
- 속초시, 옛 붉은대게타운 부지 민자유치 답보, 4차공모 추진
- 부안군, 새만금 종합관광개발 훈풍, 주요 사업 투자유치 성공



9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공공부문

■ 항구, 섬 등 해양자원 관광자원화 사업 활발

-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항구, 섬, 해수욕장 등 해양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기존 자원을 재정비하거나 복원하여 관광 기능 확대를 도모하는 지자체도 다수 보임
- 부산시는 사하구 다대포 일원을 해운대와 북항에 이은 워터프런트 3대 거점으로 개발하는 청사진을 발표함. 시는 다대포 해수욕장 등 자연환경을 살려 전시컨벤션, 비즈니스 등 체류형 관광거점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혔음. 시 관계자는 "다대포는 해운대, 마린시티 못지않은 관광, 거주 여건을 갖추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냄
- 전남도는 목포항과 여수항 활성화 사업에 투입될 국비 1천265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킴. 그중 목포 원도심 회복과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남항 매립지의 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 35억 원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갔음. 도 관계자는 목포항과 여수광양항이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을 조속히 갖추겠다"고 말했음
- 충남도는 서천군의 옛 장항제련소 일대 산업시설 폐쇄·오염 지역을 국제적인 생태환경 지구로 복원하는 구상을 구체화함. 국토연구원은 탄소중립·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브라운필드 생태계를 복원해 이를 문화·관광·예술 자원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예상 사업비는 6천423억 원으로 알려짐. 충남도 관계자는 "서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고 화력발전소로 파괴됐던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공사가 시작되는 등 서천이 생태·관광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민간부문

■ 난항 겪던 지역별 숙원사업 투자유치 추진의지 표명

- 각 지자체는 개발에 난항을 겪거나 중단되었던 지역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며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임
- 창원시는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 3개 업체가 최종 응모했다고 밝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음. 창원시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한 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한다고 밝힘
- 새만금관광청은 새만금 관광개발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는 4개의 민간투자자 공모사업이 차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힘. 최근 사업은 164만㎡ 규모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에 관광·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3천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임.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서도로 개통과 수변도시 조성 등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관광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음
- 속초시는 추진 중인 영랑동 옛 붉은대게타운 부지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에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음. 지난달 20일 옛 붉은대게타운 부지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3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1개 업체만 응모해 재공모하기로 했음. 사업대상지는 영랑동 148-134번지 일대 2천697㎡로 속초시는 이곳에 최신 관광콘텐츠를 접목한 테마관광 및 체험시설을 민자 유치로 설치할 계획임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 새만금개발청 내년 예산 2천460억원 편성…그린뉴딜·신산업육성

- **국립 간척사박물관 건립에 80억원, 한류뮤직&아츠페스티벌에 6억원, 요트대회에 2억원 계획**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2천460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힘
- 예산은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주요시설 적기 구축, 문화·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함
- 새만금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국립 간척사박물관 건립에 80억원, 한류뮤직&아츠페스티벌에 6억원, 요트대회에 2억원 등을 넣음
- 새만금개발청장 관계자는 "국민이 새만금의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하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 부산 다대포 워터프런트로 개발…다대소각장은 공영개발 전환

- **다대포 해수욕장 등 자연환경을 살려 전시컨벤션, 비즈니스 등 체류형 관광거점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방침**



- 부산시가 사하구 다대포 일원을 해운대와 북항에 이은 워터프런트 3대 거점으로 개발하는 청사진을 제시함
- 시는 다대포 해수욕장 등 자연환경을 살려 전시컨벤션, 비즈니스 등 체류형 관광거점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임
- 시는 지난 6월 랜드마크 호텔과 복합문화공간 등을 건립하는 민간개발 계획을 세운 다대소각장은 공영개발로 전환해 빠르게 개발을 진행한다고 밝힘
- 9년째 뚜렷한 개발계획 없이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다대소각장에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 디자인박물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임
- 시 관계자는 "다대포는 해운대, 마린시티 못지 않은 관광, 거주 여건을 갖췄다"며 "부산 균형발전의 한 축이며 서부산 생활권 개선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보임

▣ 서천 장항제련소 부지·갯벌 생태복원 후 문화관광 자원으로

- **사업비 6천423억 원 투입해 오염 지역 복원 및 관광자원화 계획**



- 충남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일대 산업시설 폐쇄·오염 지역(브라운필드)을 국제적인 생태환경 지구로 복원하는 구상이 구체화했음
-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탄소중립·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브라운필드 생태계를 복원해 이를 문화·관광·예술 자원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연구원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 갯벌에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유치하고, 복원된 생태 공원에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방사센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함
- 예상 사업비는 6천423억 원으로 알려짐
- 충남도는 생태계 복원, 문화·생태관광 기반 조성, 산업유산 재생 등 사업을 '서천 브라운필드 뉴딜사업'으로 묶어 올해 안으로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임
- 충남도 관계자는 "서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고 화력발전소로 파괴됐던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공사가 시작되는 등 서천이 생태·관광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침

▣ '무인도를 관광지로' 김포 부래도 공원화 추진..2023년 준공

- **내륙 연결 대교 건설..한강 무인 섬 백마도도 관광지 조성 사업비 72억 투입**
- 경기 김포 무인 섬 '부래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됨
- 이 사업은 부래도와 김포 내륙지역을 잇는 대교를 건설하고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72억 원임
- 부래도는 김포 서쪽 끝 강화해협에 있는 2만926㎡ 규모의 무인 섬으로 알려짐
-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부래도가 인근 대명항과 함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로 재단장...내년까지 182억 투자

-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총 182억원을 투자할 예정**
- 전북도는 연결도로 개통으로 연간 250만 명이 찾는 고군산군도를 새로운 명품 관광지로 본격 개발한다고 20일 밝힘
- 올해는 31억원을 들여 신시도 노후 연결도로 정비, 장자도 차도선 접안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군도에 볼거리 및 체험 거리를 확충해 관광객들이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음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충북 괴산·전남 나주에 경제거점 조성하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 **86만2천387㎡ 부지에 2천556억원을 투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문화·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
- 괴산군은 지역 유기농식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유기농산업단지와 주거·관광을 결합한 복합 유기농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힘
- 괴산군과 아이쿱생산자협동조합이 86만2천387㎡ 부지에 2천556억원을 투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문화·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 사업지구에는 20여개 유기농 식품업체가 입주할 예정이고 식품검사소, 유통센터, 공동주택 252가구와 단독 188가구 등 주거단지, 영화관, 호텔 등 지원시설이 설치됨



- 한편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에선 민간투자를 통해 나주 KTX 역 동측에 신규 복합개발 사업을 벌이고 국비로 주차장과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알림

▣ 마산해양신도시 5번째 민간투자 공모에 3개 사 응모

- **창원시, 사업계획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경남 창원시가 진행한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 3개 업체가 최종 응모함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알려짐
- 시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연거푸 실패함
- 창원시는 직전 4차 공모 내용을 보완해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91일간 5번째 공모를 진행했음



▣ 속초시 옛 붉은대게타운 부지 민자유치 답보…4차 공모 추진

- **2천697㎡에 최신 관광콘텐츠를 접목한 테마관광 및 체험시설을 민자 유치로 설치할 계획**
-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동 옛 붉은대게타운 부지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음
- 9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옛 붉은대게타운 부지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3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1개 업체만 응모해 재공모하기로 했음
- 사업대상지는 영랑동 148-134번지 일대 2천697㎡로 속초시는 이곳에 최신 관광콘텐츠를 접목한 테마관광 및 체험시설을 민자 유치로 설치할 계획임
- 사업자가 시설을 준공해 속초시에 기부채납하면 속초시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 속초시는 붉은대게타운 부지에 다른 형태의 관광테마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9년 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사업자 공모를 했으나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새만금 종합관광개발 훈풍…주요 사업들 차례로 투자 유치 성공

- **3천억 이상 투입되는 레저용지 개발·해양레저복합단지조성 사업 등에 민간투자 이어져**
- 새만금 관광개발을 위한 주요 민간투자자 공모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15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관광개발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는 4개의 민간투자자 공모사업이 차례로 성과를 내고 있음
- 3천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공모'도 최근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구체적 업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이 사업은 부안군 하서면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396만㎡에 관광·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임



- 앞서 민간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관광레저가 2030년까지 8천768억원을 들여 군산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1.9㎢ 부지에 관광, 스포츠, 숙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집적화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실시계획 승인까지 마무리됨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서도로 개통과 수변도시 조성 등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관광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침

▣ 새만금 1호 방조제 '관광명소화' 공모에 1곳 제안서 제출

- **부안의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 8만1천322㎡ 부지를 관광 및 휴양 시설로 개발**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 관광명소화사업 공모에 계성건설과 에스엠지텍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냈다고 13일 밝힘
- 이 사업은 전북 부안의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 8만1천322㎡ 부지를 관광 및 휴양 시설로 개발을 계획 중임
- 계성건설과 에스엠지텍 컨소시엄은 이 부지에 국제적 수준의 리조트호텔과 테마파크, 애견호텔, 글램핑장, 문화공연장 등을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음
- 새만금개발청은 제안서를 평가해 다음 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를 결정할 계획임ㄴ



- 새만금개발청장 관계자는 "동서도로 개통과 수변도시 조성 등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관광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조속히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고 말함

2021년 관광동향 분석 (2021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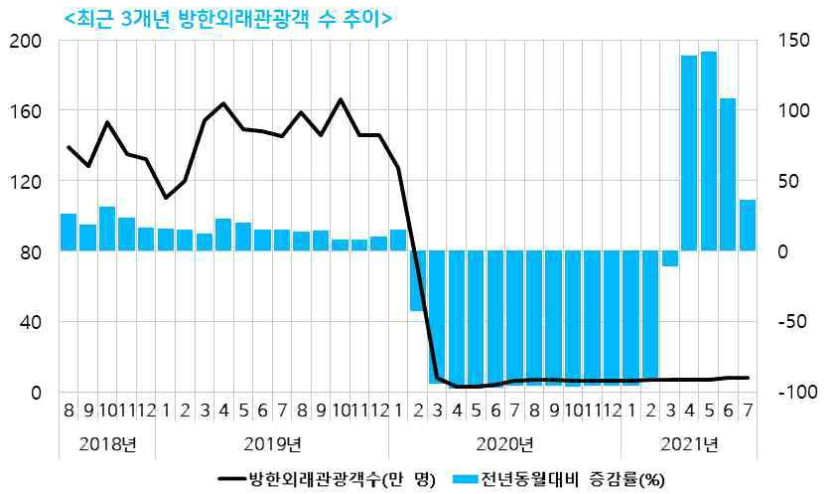
▣ 방한외래관광객

▸ 7월 방한외래관광객 83,005명, 전년동월(61,012명) 대비 36.0% 증가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5년	13,231,651	-6.8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20년	2,519,118	-85.6
'21년 7월	**83,005**	**36.0**
2021년	503,192	-77.1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881명 (16.7% 증가)
- 중국관광객 13,469명 (38.3% 증가)
- 미국관광객 21,775명 (82.6%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5년	1,838(-19.4)	5,984(-2.3)	768(-0.3)	518(-19.5)	523(-6.3)	188(-12.3)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20년	431(-86.8)	686(-88.6)	220(-78.9)	167(-86.8)	89(-87.2)	73(-78.7)
'21년 7월	**0.9(16.7)**	**13(38.3)**	**22(82.6)**	**0.3(-0.3)**	**0.09(20.5)**	**3(28.5)**
2021년	8(-98.1)	96(-84.7)	106(-32.7)	2(-98.6)	0.6(-99.3)	17(-72.6)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40,992명 (13.9% 증가)
- 미주 24,555명 (87.3%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5년	10,799(-7.8)	168(8.5)	974(0.0)	806(-5.0)	168(-5.5)	45(1.1)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20년	1,918(-86.6)	43(-82.9)	271(-79.8)	215(-80.4)	30(-86.0)	14(-76.1)
'21년 7월	**41(13.9)**	**4(111.0)**	**25(87.3)**	**11(34.3)**	**0.4(-1.4)**	**0.9(103.6)**
2021년	276(-84.1)	19(-48.3)	121(-39.2)	72(-57.0)	2(-91.6)	6(-41.8)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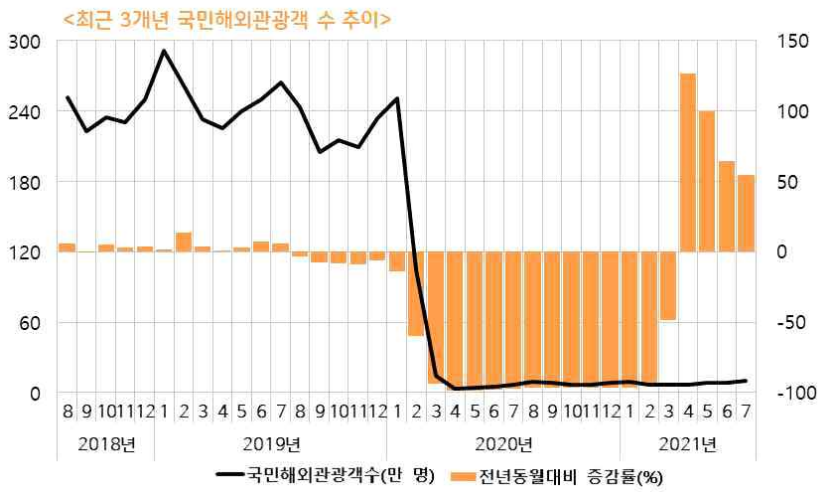
▣ 국민해외관광객

▸ 7월 국민해외관광객 101,963명, 전년동월(65,936명) 대비 54.6% 증가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5년	19,310,430	20.1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20년	4,276,006	-85.1
'21년 7월	**101,963**	**54.6**
2021년	556,482	-85.7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 한국관광수지(2021. 9. 7. 한국은행)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5년	14,676	(-15.3)	1,109	21,528	(10.6)	1,115	-6,852	-3,619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3,628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3,500
2019년	21,506	(12.4)	1,185	29,261	(-7.2)	1,019	-7,349	-3,356
2020년P	10,436	(-49.7)	4,143	13,450	(-54.0)	3,145	-3,014	-2,616
'21년 7월P	**804**	**(-1.3)**	**9,687**	**1,057**	**(11.4)**	**10,367**	**-253**	**-240**
2021년P	5,636	(-9.0)	11,200	7,786	(-4.5)	13,992	-2,151	-1.398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를 의미

'20~'21년 관광수입 및 지출은 자료반영의 시차 관계로 전월/전전월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관광객 감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됨(차후 한국은행 확정치 발표시 수정 예정)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20~'21년 1인당 지출액은 상기의 이유로 데이터 사용시 주의를 요함



▸ 2021년 관광 동향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년 7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내용 중 발췌하여 기재함.

관광투자유치 월간동향

10월 주요 이슈

■ 광역시 및 각 지역 신규 추진사업 현황

- 원주시, 중앙선 폐철로 7.7㎞에 '금빛 똬리굴 관광열차' 운영
- 부산시, 천마산 복합전망대·모노레일 사업 29일 착공식
- 삼척시, 미인폭포~동해안 67㎞ 걷는 길 내년 10월 개통
- 양양군, 플라이강원이 3조원 규모 국제관광 시설 조성 추진
- 부안군, '새만금방조제 관광명소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단양군, '단양 풍광 한눈에'…양방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10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공공부문

■ 모노레일, 테마길 등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 활발

- 각 지자체에서는 산림, 해안, 호수 등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길이나 출렁다리, 모노레일, 관광열차 등 관광객 체험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모습임
- 원주시는 폐선된 중앙선 반곡역~치악역 구간 폐선로에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이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하는 '반곡~금대 금빛 똬리굴 개발사업'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관광열차 운행 구간은 반곡역에서 금대리 똬리굴까지 총연장 7천706m이며, 사업비는 921억 원이 투입됨. 시는 간현관광지와 반곡~금대 관광지를 연계해 원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계획임
-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인천 서구 정서진에서 '제3연륙교 300리 자전거 이음길' 업무협약식을 개최함.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와 평화대교, 기존 무의대교 등 3개 해상 교량을 이용해 육지와 섬을 잇는 총장 120㎞의 자전거도로임. 내년 1월 착공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215억원 가운데 시가 158억원을 부담하고 3개 군·구가 나머지를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짐
- 밀양시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와 지방비 82억원을 들여 얼음골신비테마관 조성공사를 곧 시작한다고 24일 밝힘. 밀양시는 얼음골 역사를 알려주고 계절과 반대로 얼음이 어는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콘셉으로 테마관을 구상하고 있음. 밀양시는 설계가 순조로우면 내년 상반기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민간부문

■ 지역별 숙원사업, 희비 엇갈리는 민간투자유치 개황

- 지역별로 추진해왔던 숙원사업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지역도 있지만, 개발방안을 전면 재추진하는 지역도 보임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 관광명소화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계성건설과 에스엠지텍이 참여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을 선정했음.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은 2025년까지 890억원을 투자해 전북 부안의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 8만1천322㎡ 부지에 국제적 수준의 리조트호텔과 테마파크, 문화공연장, 애견호텔, 글램핑장 등을 만들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여수시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건립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최근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경도에 추진 중인 레지던스 건립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어지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음. 업체 측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출자사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음. 시는 이날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음. 시는 전문가·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기획단(TF)을 구성하고 기존 민간개발을 비롯해 공공개발 등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임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 원주 중앙선 폐철로 구간 7.7㎞에 '금빛 똬리굴 관광열차' 운영

- **반곡~금대지역 관광개발 사업 921억 투입...11월 착공**



- 원주시는 지난 1월 폐선된 중앙선 반곡역~치악역 구간 폐선로에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이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하는 '반곡~금대 금빛 똬리굴 개발 사업'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7일 밝힘
- 관광열차 운행 구간은 반곡역에서 금대리 똬리굴까지 총연장 7천706m이며, 사업비는 921억원이 투입 예정임
- 반곡역과 치악역에 열차 스테이션이 설치돼 내년 초 운행에 들어갈 예정임
- 시 관계자는 "관광열차는 제작 중이며 10월 말 예정인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고시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연내 즉시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로 거듭난다...1단계 준공기념식 개최

- **새만금 남측에 처음으로 조성..2050년까지 총 4단계 완성할 계획**



-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1단계 조성사업' 준공기념식을 전북 부안군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방문자센터 입구 광장에서 개최했음
- 환경부는 2012년 수립한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국비 1조1천511억 원을 투입, 4단계로 나누어 총 49.7㎢의 생태환경용지를 조성할 계획임
- 전북지방환경청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에 걸쳐 1단계 사업의 설계와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 8월 준공이 승인된 바 있음
- 환경생태단지 부지(총 78만 5천832㎡)는 축구장의 약 110배 규모로, 생태습지인 핵심보전지구, 탐조대·습지관찰대 등 완충관찰지구, 전망대·산책로 등 생태교육·체험지구 등 총 3개 지구로 구성됨
-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 내 환경생태단지 조성은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 및 환경체험공간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새만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기대함

▣ 삼척 미인폭포~동해안 67㎞ 걷는 길 내년 10월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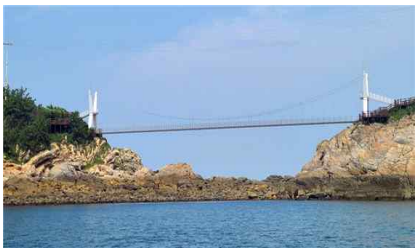
- **67㎞ 구간의 '폐광지역 걷는 길'(운탄고도) 2단계 사업 본격화**



- 강원 삼척시 도계읍 미인폭포에서 새천년 해안도로 썬라이즈 광장까지 67㎞ 구간의 '폐광지역 걷는 길'(운탄고도)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삼척시는 2022년 1월 조성공사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에 개통식과 함께 걷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힘
- 미인폭포 탐방로, 하이원 추추파크, 유리나라&나무나라 등 도계읍 관광 체험시설과 연계해 조성할 계획임
- 강원도·영월군·정선군·태백시·삼척시가 함께 조성하는 운탄고도는 총연장 173㎞의 8박 9일 도보 코스임
- 흥정 삭도 마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 탄광 산업 유산은 물론 오십천, 동해안 등의 절경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임
- 삼척시 관계자는 13일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 사업과 미인폭포 관광 자원화 사업은 내륙 산림 관광을 활성화하고, 폐광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음

▣ 서해 고군산군도 '방축도~광대도 출렁다리' 15일 개통

- **길이 83m의 인도교로, 2017년부터 사업비 17억 원 투입돼 완공**
- 전북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의 두 섬인 광대도와 방축도를 잇는 '방축도 출렁다리'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5일 밝힘
- 고군산군도의 끝자락인 옥도면 말도리의 5개 섬인 말도, 보농도, 명도, 광대도, 방축도를 4개의 인도교(총 길이 1천278m)로 연결하는 공사 가운데 하나임
- 시 관계자는 "나머지 인도교도 서둘러 개통해 고군산군도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각오를 내비침



▣ 부산 천마산 복합전망대·모노레일 사업 29일 착공식

- **2023년까지 3㎞ 구간에 8인승 모노레일카 12대 운행**
- 부산 서구 천마산에 복합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됨
- 사업은 아미 배수지부터 천마 바위까지 약 3㎞ 구간에 왕복 모노레일을 설치하며, 해당 레일을 따라 8인승 전기식 모노레일 차량 12대가 오가게 됨
- 해당 사업은 부산시와 서구에서 19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며, 2019년 자체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 연간 이용객이 32만8천 명일 것으로 예측함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새만금방조제 관광명소화' 우선 협상대상자에 챌린지컨소시엄

- **2025년까지 890억 원 투자해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 8만1천322㎡ 부지에 리조트 호텔, 테마파크, 글램핑장 등 조성**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 관광명소화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힌 바 있음
-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발계획과 재무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힘
-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은 2025년까지 890억원을 투자해 전북 부안의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 8만1천322㎡ 부지에 국제적 수준의 리조트호텔과 테마파크, 문화공연장, 애견호텔, 글램핑장 등을 만들겠다고 제안함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사업이 완성되면 새만금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명소로 조성될 것"이라며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각오를 밝힘

▣ 동해 망상 일원에 27홀 규모 골프장 조성...민간업체와 업무협약

- **2024년까지 약 4천억 원 투자하여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300실, 리조트 250실 등 시설 조성**
- 동해시는 더씨뷰의 투자 의향에 따라 21일 동해시청에서 망상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힘
- 협약을 통해 동해시와 협약 당사자는 망상동 산97번지 일원 183만㎡의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300실, 리조트 250실 등 관련 시설을 100%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알림
- 시는 "동해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겨울 기온이 따뜻해 기후조건이 좋아 망상해수욕장과 연계한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공공개발'로 가나

- **광주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TF 구성 사업방식 등 원점 재검토**



- 광주시가 장기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재검토를 결정함
-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한 바 있음
- 시는 전문가·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기획단(TF)을 구성하고 기존 민간개발을 비롯해 공공개발 등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임
-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천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짐
-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수차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과 파기가 이어지는 동안 골프장만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TF팀을 가동해 합리적인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사회단체, 의회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하며 재추진 의지를 밝힘

▣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선정 걸림돌 해소...곧 사업자 선정

-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4차 공모과정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



- 경남 창원시가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곧 선정한다고 밝힘
- 지난 4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개모집 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며 이 사업에 응모했던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1곳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 9월 기각함
- 창원시는 4차 공모가 실패하자, 지난 5월 말 5차 공모에 들어갔으며, 지난 8월 31일 마감한 5차 공모에는 3개 사가 응모했음
- 창원시는 지난 10월 1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짐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임

▣ 미래에셋 "여수 경도 개발 전면 재검토"...사업 좌초하나

- **"부동산 투기"...경도 레지던스 건립에 시의회·시민단체 반대, 지역 관광업체 "경도 개발사업 정상 추진해야"**



- 전남 여수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건립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 경도 개발에 나선 미래에셋이 지역의 반대 여론에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하자 지역 관광단체들은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최근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경도에 추진 중인 레지던스 건립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어지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음
- 미래에셋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출자사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 여수지역 관광단체로 구성된 여수시 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는 "여수시의회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미래에셋이 수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설득해 나가야 하며, 지역사회단체 및 시민들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사업 추진을 촉구함
-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는 미래에셋이 1조5천억 원을 투자해 대경도 일원 2.15㎢ 부지에 2024년까지 골프장과 호텔, 콘도, 테마파크, 마리나, 해상케이블카 등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음

2021년 관광동향 분석 (2021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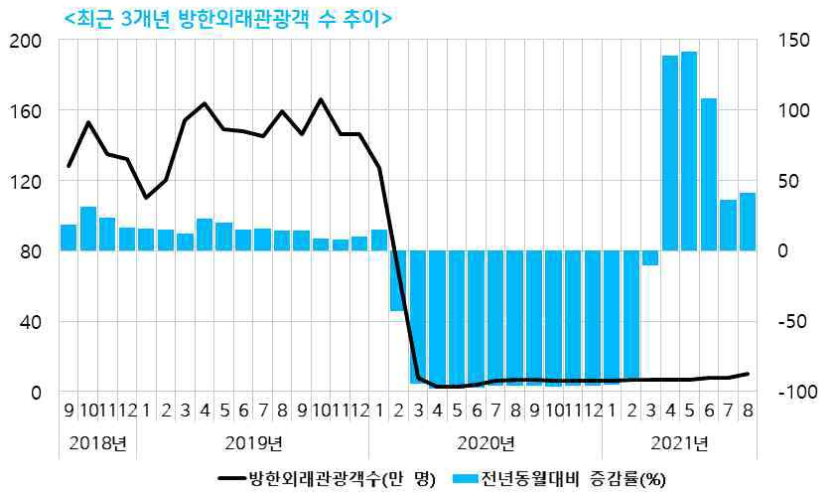
▣ 방한외래관광객

▸ 8월 방한외래관광객 97,087명, 전년동월(68,797명) 대비 41.1% 증가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5년	13,231,651	-6.8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20년	2,519,118	-85.6
'21년 8월	**97,087**	**41.1**
2021년	600,279	-73.5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2,258명 (77.1% 증가)
- 중국관광객 17,103명 (5.1% 증가)
- 미국관광객 20,561명 (53.8%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5년	1,838(-19.4)	5,984(-2.3)	768(-0.3)	518(-19.5)	523(-6.3)	188(-12.3)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20년	431(-86.8)	686(-88.6)	220(-78.9)	167(-86.8)	89(-87.2)	73(-78.7)
'21년 8월	**2(77.1)**	**17(5.1)**	**21(53.8)**	**0.6(-8.2)**	**0.2(18.0)**	**3(31.8)**
2021년	10(-97.6)	113(-82.4)	126(-25.9)	3(-98.3)	0.8(-99.1)	20(-69.3)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48,395명 (23.3% 증가)
- 미주 23,997명 (59.3%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5년	10,799(-7.8)	168(8.5)	974(0.0)	806(-5.0)	168(-5.5)	45(1.1)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20년	1,918(-86.6)	43(-82.9)	271(-79.8)	215(-80.4)	30(-86.0)	14(-76.1)
'21년 8월	**48(23.3)**	**4(258.6)**	**24(59.3)**	**17(51.4)**	**0.5(57.0)**	**2(125.6)**
2021년	324(-81.7)	24(-38.4)	145(-32.3)	89(-50.3)	3(-89.9)	8(-30.6)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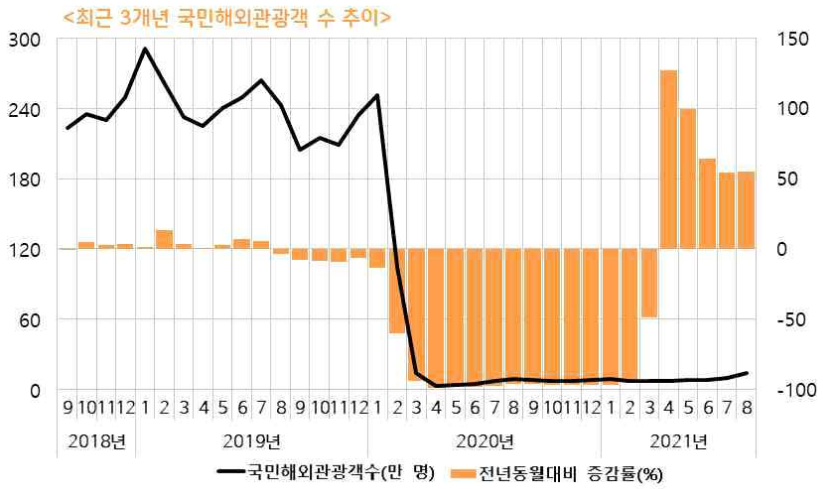
▣ 국민해외관광객

▸ 8월 국민해외관광객 137,712명, 전년동월(88,888명) 대비 54.9% 증가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5년	19,310,430	20.1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20년	4,276,006	-85.1
'21년 8월	**137,712**	**54.9**
2021년	694,194	-82.5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 한국관광수지(2021. 10. 7. 한국은행)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5년	14,676	(-15.3)	1,109	21,528	(10.6)	1,115	-6,852	-3,619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3,628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3,500
2019년	21,506	(12.4)	1,185	29,261	(-7.2)	1,019	-7,349	-3,356
2020년P	10,436	(-49.7)	4,143	13,450	(-54.0)	3,145	-3,014	-2,616
'21년 8월P	**972**	**(9.9)**	**10,008**	**1,226**	**(22.1)**	**8,903**	**-255**	**-353**
2021년P	6,607	(-6.7)	11,007	9,012	(-1.6)	12,983	-2,405	-1.751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를 의미

'20~'21년 관광수입 및 지출은 자료반영의 시차 관계로 전월/전전월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관광객 감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됨(차후 한국은행 확정치 발표시 수정 예정)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20~'21년 1인당 지출액은 상기의 이유로 데이터 사용시 주의를 요함



▸ 2021년 관광 동향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년 8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내용 중 발췌하여 기재함.

Vol.84 2021. 11.

관광투자유치 월간동향

Imagine your Korea

http://kto.visitkorea.or.kr/kor/biz/invest.kto

11월 주요 이슈

■ 광역시 및 각 지역 신규 추진사업 현황

- 충남도, 하늘길 열리나…서산공항 예타 대상 사업 선정
- 인천시, 백령공항 사업 첫 관문 통과…예타 대상사업 포함
- 강릉시, 남부권 금진·심곡 개발 본격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흥군, 호텔·풀빌라·골프장 복합 관광시설 들어선다
- 인천경제청, 내년 1월 을왕산 일대 경제특구 지정 신청
- 충남도, 국내 최장 해저터널 개통, 서해안 관광지도 바뀐다



11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공공부문

■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 기대

- 각 지자체에서는 공항, 항만, 도로 등의 건설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균형발전, 지방관광 활성화, 교통서비스 소외 해소 등이 교통인프라 주요 목적임
- 충남도와 서산시는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힘.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터미널과 유도로,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데 50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충남도는 2024년 착공, 2026년 개항 등을 예정함
- 인천시는 3일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힘. 백령공항은 길이 1.2km·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계류장·관제탑 등을 갖추고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 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임. 사업비는 국비 1천740억 원으로 추정됨. 인천시는 예타를 통과하면 2025년 착공,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삼았음
- 충남도는 보령시 신흑동과 원산도를 잇는 6.927㎞의 보령해저터널을 다음 달 1일 개통할 예정임. 이 터널을 나와 원산도를 가로지르면 원산안면대교(1.75㎞)를 통해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까지 곧바로 갈 수 있으며, 이동시간이 기존 90분 이상 걸리던 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됨. 특히 원산안면대교와 보령해저터널 중간에 위치한 원산도가 서해안 대표 해양레저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민간부문

■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활발

- 호텔·컨벤션·골프장·상업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전국 각지의 민간투자유치 움직임이 활발함
- 강릉시는 '육군 00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고함. 강릉 남부권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2028년까지 1조5천억 원 규모를 투자해 옥계면 금진리 일원 264만㎡에 골프장, 호텔, 상업시설을 갖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전남도는 ㈜씨앤아일랜드와 관광 레저 휴양을 아우르는 '고흥 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했음. ㈜씨앤아일랜드는 고흥군 영남면 일원 156만7천㎡ 부지에 2026년까지 4천923억 원을 투자해 컨벤션시설·분양형 호텔 300실·단독형 풀빌라 100실·골프장 27홀·스포츠 파크 등을 조성함. 도 관계자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폭발적으로 증가할 관광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프로젝트"라며 기대감을 내비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을왕산 일대 80만7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 제작센터와 첨단 공유스튜디오, 야외촬영 시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전시관, 한류테마 문화거리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임. 인천경자청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8년 10월 민간기업 SG산업개발과 이 사업협약을 체결했음. 관계자는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공항 환승객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 충남 하늘길 열리나...서산공항 예타 대상사업 선정

- **충남도 "철저히 대응하고 대선공약에도 포함 추진"**
- 충남도와 서산시는 3일 공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힘
-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 이 용역에서 해미 공군비행장 주변에 터미널과 유도로, 진입도로 1.4㎞를 건설하는 데 50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도 관계자는 "서산공항은 환황해 경제권 중추 관문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임

▣ 인천 백령공항 사업 첫 관문 통과...예타 대상사업 포함

- **2027년 개항 목표..50인승 항공기 이착륙 공항으로**
- 인천시는 3일 기획재정부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음
- 백령공항은 길이 1.2㎞·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계류장·관제탑 등을 갖추고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 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1천740억 원임
- 인천시는 예타 조사 분석,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 기본·실시계획 용역,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착공, 2027년 개항을 목표로 함



- 시는 내년에 백령공항 주변 발전전략 용역을 시행하는 등 숙박·관광·레저 등 공항과 연계한 발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임
- 아울러 2019년 지정된 백령·대청 권역 국가지질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백령도의 일일생활권 편입으로 주민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보름 뒤 국내 최장 해저터널 개통...충남 서해안 관광지도 바뀐다

- **대천항~안면도 자동차로 10분..보령·태안에 관광시설 대폭 확충**
- 1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보령시 신흑동과 원산도를 잇는 6.927㎞의 보령해저터널이 11월 1일 개통 예정임
- 이 터널을 나와 원산도를 가로지르면 2019년 12월 개통한 원산안면대교(1.75㎞)를 통해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까지 곧바로 갈 수 있음
- 보령 신흑동에서 태안 영목항까지 전 구간(14.1㎞) 차량 운행이 가능해져 이 구간 이동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됨
- 도는 특히 원산안면대교와 보령해저터널 중간에 위치한 원산도가 서해안 대표 해양레저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관광·수산·해양산업·교통 등 5개 분야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키로 한 가운데 시내·외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과 태안~보령 연계형 시티투어 노선 개발, 지역축제 연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됨
- 두 시·군은 2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대천항~안면도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 분기별로 1차례 이상 만나 공동협력 과제를 모색할 계획임

▣ 경주 공영주차장 건설로 교통난 해소...4년간 3천430면 확보

-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영주차장 32곳에 2천760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 확보**
-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영주차장 32곳에 2천76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함
-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00여억 원을 들여 마을공용주차장 15곳 515면, 주차타워 242면, 문화재 주차장 2곳 403면 등 19곳에 1천160면의 주차장을 만듦
- 올해 들어서는 사업비 100여억 원을 들여 건천읍, 내남면, 서천 둔치, 쪽샘지구 등 13곳에 1천6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한 바 있음
-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670면을 추가로 조설할 예정임



▣ 홍성 남당항 여객선 터미널 신축...내년 5월 완공

- **홍성 남당항에 사업비 21억 원 투입, 여객선 터미널 신축 계획**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홍성 남당항에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 여객선 터미널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음, 완공 시기는 내년 5월임
- 남당항에서 인근 죽도 간 선박 이용객이 늘고 있으나 여객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안전상 문제도 제기돼 왔음
- 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터미널이 생기면 다기능 어항인 남당항의 여객 기능이 강화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강릉 남부권 금진·심곡 개발 본격화...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태영건설컨소시엄, 1조5천억 투자...친환경·고품격 관광단지 조성**
- 강릉시의 '육군 00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 앞서 시는 지난 6월 태영건설과 강릉 남부권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2028년까지 1조5천억 원 규모를 투자해 옥계면 금진리 일원 264만㎡에 골프장, 호텔, 상업시설을 갖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함
- 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투자합의각서(MO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 강릉시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소통을 중심가치로 금진·심곡 일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친환경·고품격 관광단지로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함

▣ 아난티, 한라홀딩스와 제주에 관광시설 조성

- **약 63만평 부지, 2024년까지 새로운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
- 아난티는 8일 한라홀딩스와 제주에 새로운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힘
- 아난티는 한라홀딩스와 함께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 일원의 약 63만평 부지를 2024년까지 새로운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 한라홀딩스가 운영 중인 54만평 규모의 세인트포 골프장을 포함해 숙박 시설과 다양한 레저 및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임



▣ 고흥에 호텔·풀빌라·골프장 복합 관광시설 들어선다

- **㈜씨앤아일랜드, 4천900억 원 투입 '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



- 전남도는 8일 도청·고흥군 관계자·㈜씨앤아일랜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광 레저 휴양을 아우르는 '고흥 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했음
- ㈜씨앤아일랜드는 고흥군 영남면 일원 156만7천㎡ 부지에 2026년까지 4천923억 원을 투자해 컨벤션 시설·분양형 호텔 300실·단독형 풀빌라 100실·골프장 27홀·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할 예정임
- ㈜씨앤아일랜드는 ㈜여수예술랜드의 자회사로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서 120명을 고용해 펜션·놀이시설·공연장을 운영하며 연매출 160억 원을 기록하고 있음
- 고흥 예술랜드 관광단지는 나로 우주센터·순천만 정원·여수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해 전남 남해안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임
- 전남도는 150명의 새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유입인구 증가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봄
- 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폭발적으로 증가할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프로젝트"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 인천경제청, 내년 1월 을왕산 일대 경제특구 지정 신청

- **'한류 영상콘텐츠 복합단지' 조성사업 박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을왕산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임
- 변경안에는 을왕산 일대 80만7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제작센터와 첨단 공유스튜디오, 야외촬영 시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시관, 한류테마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앞서 인천경제청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8년 10월 민간기업 SG산업개발과 이 사업 협약을 체결함
-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영상콘텐츠 복합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공항 환승객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내비침

▣ '새만금 관문' 부안에 테마파크 들어선다...투자액 890억

- **2025년 완공 예정...경제적 파급효과 2천400여억 원 예상**



- 전북도는 17일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업체인 계성건설· 에스엠지텍과 새만금 1호 방조제 일대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함
- 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새만금 명소화 용지인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는 8만1천322㎡(2만5천 평) 규모의 각종 놀이시설과 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임
- 사업비는 890억 원이 투입됨
- 리조트호텔(30실), 글램핑(25실), 캠핑장(80실), 문화공연장, 애견호텔, 대관람차, 쇼핑상가, 산책로, 전망레스토랑 등을 갖출 예정임
- 도는 이번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2천428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천19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테마파크가 본격 운영되면 14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음
- 도 관계자는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새만금은 편하게 쉬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명품 관광단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냄

2021년 관광동향 분석 (2021년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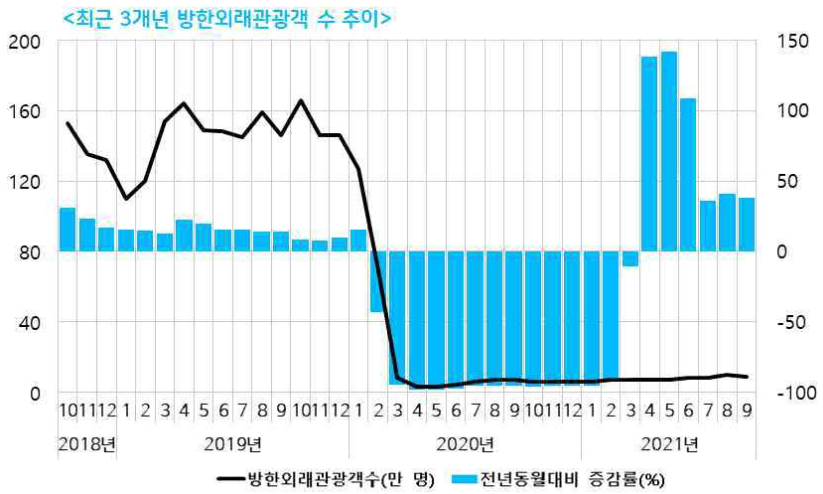
▣ 방한외래관광객

▸ 9월 방한외래관광객 89,800명, 전년동월(65,040명) 대비 38.1% 증가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5년	13,231,651	-6.8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20년	2,519,118	-85.6
'21년 9월	**89,800**	**38.1**
2021년	690,079	-94.7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1,142명 (43.8% 증가)
- 중국관광객 19,144명 (25.1% 증가)
- 미국관광객 19,227명 (54.7%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5년	1,838(-19.4)	5,984(-2.3)	768(-0.3)	518(-19.5)	523(-6.3)	188(-12.3)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20년	431(-86.8)	686(-88.6)	220(-78.9)	167(-86.8)	89(-87.2)	73(-78.7)
'21년 9월	**1(43.8)**	**19(25.1)**	**19(54.7)**	**0.3(-10.6)**	**0.1(10.4)**	**3(81.0)**
2021년	11(-97.3)	132(-79.9)	145(-20.4)	3(-98.1)	0.9(-99.0)	23(-65.5)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45,837명 (17.0% 증가)
- 미주 23,575명 (66.7%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5년	10,799(-7.8)	168(8.5)	974(0.0)	806(-5.0)	168(-5.5)	45(1.1)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20년	1,918(-86.6)	43(-82.9)	271(-79.8)	215(-80.4)	30(-86.0)	14(-76.1)
'21년 9월	**46(17.0)**	**4(168.7)**	**24(66.7)**	**14(64.4)**	**0.4(42.0)**	**1(66.0)**
2021년	370(-79.6)	28(-30.8)	169(-26.2)	103(-45.2)	3(-88.7)	9(-25.3)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국민해외관광객

▸ 9월 국민해외관광객 116,615명, 전년동월(76,798명) 대비 51.8% 증가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5년	19,310,430	20.1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20년	4,276,006	-85.1
'21년 9월	**116,615**	**51.8**
2021년	810,809	-80.0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 한국관광수지(2021. 11. 5. 한국은행)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5년	14,676	(-15.3)	1,109	21,528	(10.6)	1,115	-6,852	-3,619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3,628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3,500
2019년	21,506	(12.4)	1,185	29,261	(-7.2)	1,019	-7,349	-3,356
2020년P	10,436	(-49.7)	4,143	13,450	(-54.0)	3,145	-3,014	-2,616
'21년 9월P	**932**	**(8.1)**	**10,378**	**1,165**	**(16.3)**	**9,988**	**-233**	**-234**
2021년P	7,539	(-5.1)	10,925	10,177	(0.1)	12,552	-2,698	-1.985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를 의미

'20~'21년 관광수입 및 지출은 자료반영의 시차 관계로 전월/전전월 실적이 일부 포함되어 관광객 감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됨(차후 한국은행 확정치 발표시 수정 예정)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20~'21년 1인당 지출액은 상기의 이유로 데이터 사용시 주의를 요함



▸ 2021년 관광 동향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년 9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내용 중 발췌하여 기재함.

3. 관광투자유치 분기동향

한국관광공사

위드(With) 코로나 시대, 관광 개발의 새로운 바람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량 1위가 놀이공원에서 한강공원으로 바뀌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를 찾는 이가 줄어들고 상대적 '청적 지역'으로 주목받은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여행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파를 피해 렌트카 대여, 실외 여가 활동(자동차 극장, 캠핑장, 낚시 등)과 같은 비교적 프라이빗하고 안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 활동의 수요가 높아지고, 놀이시설, 경마장, 과학관, 영화관·극장 등과 같은 실내 관광 활동의 수요는 크게 하락함.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행태의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지자체는 '안전'을 내세운 관광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일례로 경주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차박(차에서 숙박)'이 유행하면서 인기를 끈 경북 경주 나정해변 공영주차장을 정규 캠핑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경주시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18억4천만원을 들여 감포읍 나정해변 공영주차장 일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 후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임.

또한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5년간 도내 중장기 관광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제7차(2022~2026년)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7차 계획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대규모 단체 관광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탈피해 새로운 지역 관광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관광 개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임을 드러냄.

더불어 코로나19라는 국면으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내 관광 시설(과학관, 영화관, 극장 등)의 새로운 강구책으로 신기술을 접목한 마이스 관광 시설이 개발되고 있음.

일례로 수원시에서는 문체부의 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1천만원을 지원받아 3~11월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할 예정임. 수원시의 스마트박물관은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비컨)을 활용해 관람객 주위 전시물을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주고,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힘. 가상융합기술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시해설 안내 시스템과 가상현실 전시공간을 구축하고 탈 공간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빅데이터 관람객 통계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키로 하여 내년부터 스마트 전시 관람 시스템이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임. 해양자연사박물관 측에서는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 시대에 관람객이 더 안전하게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비침.

어느덧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 익숙해지고 이제는 코로나19 대비책을 찾아나서는 관광업계의 새로운 바람이 한국 관광 업계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국내 관광산업의 형세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 차, 국내 관광산업에도 크고 작은 변동이 다수 발생하였음.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왔고, 현재도 면면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향후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 이후 도래할 회복 국면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임.

먼저, 각 지자체와 민간기업은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잠재관광객 유치 및 선점을 위해 관광교통시설, 관광단지 등의 관광 인프라 조성에 빠른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일례로 전주시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주요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 트램(Tram · 노면전차) 도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음. 전주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옥마을 관광 트램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트램 설치 방향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음. 관광 트램 도입을 통해 코로나로 정체된 지역 경제에 연간 259억 원의 생산 유발 및 126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900여 명의 고용 창출 발생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예상함.

여수시의 경우, 여수시 경도 일원 2.14㎢ 부지에 6성급 호텔과 리조트 · 골프장 · 상업시설 · 해상 케이블카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복합 해양리조트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음. 총 1조5천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미래에셋은 지역 소재 기업과 업체, 장비를 우선 참여시키고, 지역인재 우선 고용과 지역업체 우선 입점 등 코로나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지역 재투자를 일으키며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한편, 지자체에서는 생태관광, 자연관광 등 코로나 시대의 주요 여행 트렌드인, '안전한 여행 추구'와 '자연 · 생태 관광지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일례로 삼척시에서는, 두타산 일대에 총사업비 100억 원 투입해 사계절 휴양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동해 일출과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데크, 상징물 공원 조성, 백두대간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지구, 야영장, 식물원 등 숲속 힐링 체험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삼척시 측은, 낙후된 산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추진 중임.

태안군의 경우, 안면도 꽃지해변에 관광 트렌드 반영한 명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해넘이 명소인 이곳을 오는 7월 초까지 15억 원을 들여 꽃지해변 4천730㎡를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함. 지난해 말 완공된 친환경 해변 사업에 이어, 태안군 측은 코로나 시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최근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며, 각 지자체와 민간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음. 이처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함. 침체한 관광산업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전망을 예측하고,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관광객의 필요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함.

해양자원 활용한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항만, 해수욕장, 발전소, 섬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사업 및 투자유치가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기능을 상실한 산업시설 및 노후화된 관광지를 재개발하거나 재정비하는 등 기존 자원에 재투자하는 추세임. 이외에도 섬이나 군도를 관광 자원화하는 등 섬의 우수한 가치가 재평가되며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충남도에서는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일대 산업시설 폐쇄·오염 지역(브라운필드)을 국제적인 생태환경 지구로 복원하는 구상을 구체화함.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탄소 중립·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브라운필드 생태계를 복원해 이를 문화·관광·예술 자원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예상 사업비 6천 423억 원이 투입되며, 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 갯벌에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유치하고, 복원된 생태 공원에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방사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임.

거제시의 경우, 매각 시도 16년 만에 사업자를 찾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를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음. 민간사업자인 '해금강'이 4천 215억 원을 들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에 387실을 갖춘 10층 이하 관광숙박시설과, 휴양·관광시설 착공에 들어감. 거제시와 해금강 측은 사업 기간을 5년 정도로 잡고 있으며,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에 위치함. 거제시는 지난해 1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민간사업자인 '해금강'과 투자협약에 성공하며 숙원사업 투자유치에 성공함.

한편, 여수시에서는 2025년까지 2천300억 원을 투자해 복합 레저시설을 갖춘 관광단지인 챌린지 파크를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일원 51만㎡ 부지에 조성하고 있음. 사업시행자인 여수챌린지파크관광㈜은 2019년 전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7월에 착공을 시작했음. 1단계로 익스트림 체험시설인 루지, 짚라인, 챌린지 코스 등을 조성 중이며 내년 9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2단계는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296실 규모의 호텔과 270개 객실을 갖춘 콘퍼런스 호텔을 건설할 계획임.

김포시에서는 무인 섬 '부래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 사업은 부래도와 김포 내륙지역을 잇는 대교를 건설하고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72억 원임. 부래도는 김포 서쪽 끝 강화해협에 있는 2만926㎡ 규모의 무인 섬으로, 해협과 산지가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주변에 문화 유적이 즐비해 그동안 관광지로 조성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부래도를 수도권에서 가깝게 섬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임.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음. 침체한 지역관광의 활성화 및 국내 관광시장의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해양관광자원 개발이 이로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지자체 간 무리한 규모의 경쟁이나 지역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됨. 획일화된 개발은 지양하고 기존 해양자원의 정체성 및 차별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위드 코로나 전환과 관광시장 선점 경쟁 탄력

지난 10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고,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되며 향후의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코로나 발생 후 수개월 동안 각 지자체와 민간기업은 위드 코로나 전환이 발생시킬 관광시장의 폭발적 수요를 예상하며 마땅한 대응책을 모색해왔음. 지역 내 기존 관광자원을 재정비·개발하거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자하기도 하며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일례로 원주시에서는 폐선된 중앙선 반곡역~치악역 구간에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이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하는 '반곡~금대 금빛 똬리굴 개발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관광열차 운행 구간은 반곡역에서 금대리 똬리굴까지 총연장 7천706m이며, 9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임. 반곡역과 치악역에 관광열차 스테이션이 설치돼 내년 초 운행에 들어가며, 1천950m 길이의 똬리굴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환상적인 빛 체험이 가능한 참여형 디지털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임. 원주시는 소금산 출렁다리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한 간현관광지와 반곡~금대 관광지를 연계해 원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힘.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부안군 새만금 방조제 관광명소화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계성건설과 에스엠지텍이 참여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힘.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은 2025년까지 890억 원을 투자해 전북 부안의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 8만1천322㎡ 부지에 국제적 수준의 리조트 호텔과 테마파크, 문화공연장, 애견호텔, 글램핑장 등을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음.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이 완성되면 새만금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명소로 조성될 것을 기대하며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임.

한편, 인천시에서는 기획재정부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음. 백령공항은 길이 1.2km·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계류장·관제탑 등을 갖추고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 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1천740억 원임. 시는 내년에 백령공항 주변 발전전략 용역을 시행하는 등 숙박·관광·레저 등 공항과 연계한 발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임.

경주시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에 힘을 쏟고 있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00여억 원을 들여 마을공용주차장 15곳 515면, 동천동 주차타워 242면, 문화재 주차장 2곳 403면 등 19곳에 1천1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함. 올해에는 사업비 100여억 원을 들여 건천읍, 내남면, 서천 둔치, 쪽샘지구 등 13곳에 1천6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며, 인기 관광지인 황리단길을 포함한 주변 관광지 차량정체와 주차난이 크게 해소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함.

이처럼 앞으로 다가올 관광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변화에 앞장서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모습임. 침체했던 관광시장에 적극적, 전략적 투자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다채롭고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변모하길 기대함.

4. 관광투자 전문가 기고

한국관광공사

수목원(식물원), 정원 산업의 동향 분석

청주대학교 공과대학 휴먼환경디자인학부
조경도시계획전공
김재환 조교수

Ⅰ. 머리말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대되고 평균 수명 100세, 장수 보편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living longer) 것이 아닌 건강하게 잘 사는(living well) 것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웰빙(well-being), 웰니스(wellness), 힐링(healing)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찾고 쉼을 즐기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되는 산책길, 숲 조성에 힘을 쏟아 왔으며 최근에는 민간 사업체들도 차별화된 정원, 특색 있는 정원 조성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수목원·정원산업에 관한 관심이 높다. 본고에서는 수목원·정원 산업의 동향과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 정원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본고는 저자의 의견으로서 한국관광공사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숲'에서 치유한다

IMF를 극복한 2000년대 이후 사람들은 고단했던 시기를 지나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스레 웰빙이란 단어가 스며들었고 우리의 한 문화로 젖어 들기 시작하였다.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 라이프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연주의 라이프스타일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공립식물원 및 테마화한 사립식물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힐링 문화가 전파되었고, 평균 수명 100세 장수 보편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적절히 휴식을 취하고자 '자연'을 찾는 빈도가 높아졌다. 특히 숲 속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숲내음을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피톤치드, 음이온이 많은 숲에서의 활동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NK세포'의 힘을 키워준다고 한다. 이렇듯 녹지공간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하려는 트렌드에 따라 지방 및 민간정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내 수목원·식물원, 정원 증가 추이]



▶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본격화된 정원산업

2013년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에서 개최되며 정원산업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총 440여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약 164억원의 흑자를 내며 성황리에 폐막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원 박람회, 정원 디자인 공모전, 어린이 정원 학교, 정원 아카데미 등 다양한 정원 관련 행사를 개최하였다.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2015년 기존'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원을 추가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로 개정하였고, 순천만국가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면서 정원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2016년에는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600억원을 투입해 96개의 정원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키워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공고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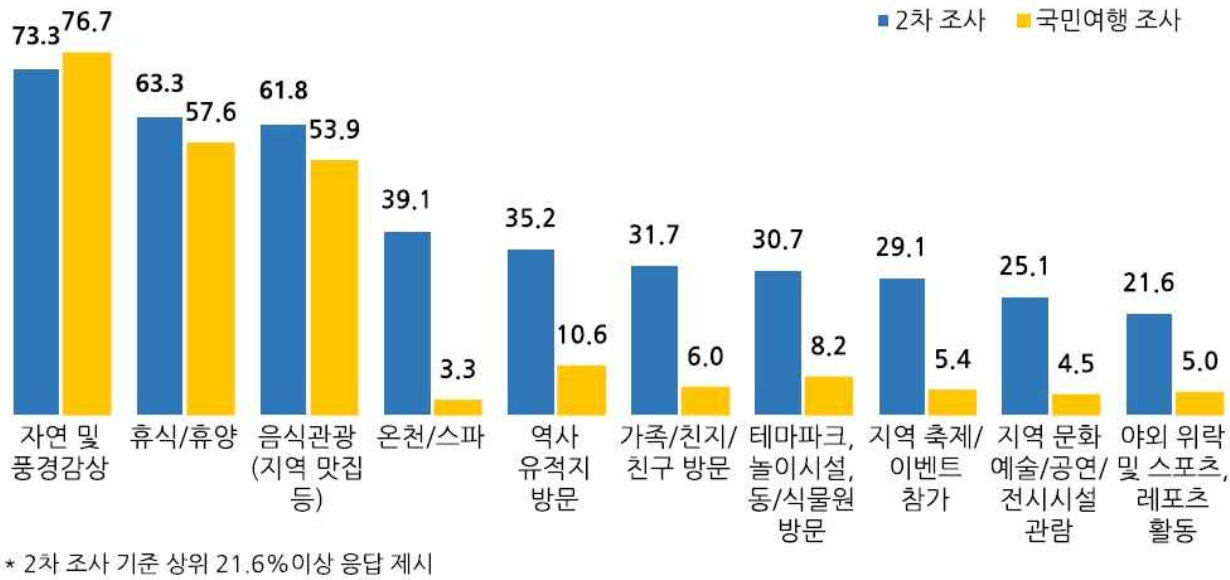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목원, 정원 산업의 가속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은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밀집도가 낮은 곳을 선호하는 여행 욕구가 급격히 높아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2월에서 10월까지 국내 여행을 다녀온 국민들의 방문지역을 조사한 결과, 강원지역이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주도의 방문비율이 8.9%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국민여행조사에서 나타난 국내 여행 방문지와 상이한 결과로 기존에는 경기지역 1위, 강원지역 2위, 제주지역은 12위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국내 여행 방문지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청정지역으로 대표되는 2개 지역(강원, 제주)에 많은 방문객들이 몰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 발생 상황 중에서도 국내 여행에 참여한 경우 참여활동을 조사한 결과, 자연 및 풍경감상이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휴양이 54.6%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은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종식 후 국내 여행에서 희망하는 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종식 후 국내여행에서 희망하는 활동]

(단위: %)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코로나19의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이렇듯 비교적 안전하고 청정한 자연환경, 야외공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휴식/휴양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앞으로 생태관광, 농촌관광, 아웃도어(outdoor)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 본다.

코로나-19 이후 여행에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관광 활동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컨슈머인사이트에서 최근 3년간의 여행 시장을 분석한 결과, 액티비티형 관광 활동은 다소 위축된 반면 휴식과 힐링 목적의 관광 활동은 증가하였다.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리면서 서핑, 패러글라이딩, 스쿠버다이빙 등 익스트림 액티비티와 호캉스 등의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이 성행하였으나 작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행 전반에서 언택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따라서 캠핑이나 차박(車泊), 야외에서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취미·운동 활동, 자연에서의 휴식 등 언택트 관광 활동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관광지, 관광자원, 관광활동 자체의 매력도보다는 언택트가 가능한지, 자신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매력도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최근 3년 여행시장 분석]

	2018-19	2019-20	2020-21
	국내보다 해외여행선호 근거리·단기간 여행 트렌드 시작	경기침체와 NO JAPAN으로 여행 산업의 지각변동	코로나 19와 경기 악화로 인한 최악의 침체기
Target (여행객)	가족단위 3040대 자녀 유아/ 성장기 가구	사회적 사건에 민감한 젊은 여성이 해외에서 유턴	장년층 이탈로 젊어진 소비층
Resource (자원)	액티비티, 호캉스 경험추구	일상 · 식도락 도심 문화	언택트·안전 휴식·청정
Accessibility (접근성)	수도권 중심 근거리 여행 트렌드 태동	이동 편의성/ 시간 가치인식 상승	편의보다'안전' 승용차 · 지방 소도시 득세
Value for money (비용 및 지출)	국내 바가지 요금 이슈화 가성비 추구	편의성/고급서비스 선호 가심비 추구	소비 양극화 저비용 추구와 Flex 소비
E-connect (정보채널/ 커뮤니케이션)	유통·정보채널 급성장 (OTA, SNS)	단순한 정보탐색 무계획 여행 증가	모바일 쇼핑, 콘텐츠 폭발 국내 OTA 성장
Loyalty (만족/재방문 의향)	근거리 해외여행과 비교한 국내 경쟁력 약화	대도시(서울, 부산)의 인기	쾌적한 환경 억눌린 스트레스 해소로 만족감 상승

출처 : 컨슈머인사이트 여행리포트, TRAVEL 분석으로 본 20-21 국내여행 트렌드

부킹닷컴은 최근 28개국 2만9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저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향후 여행 트렌드가 ①길들여진 곳 ②'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복'(단확행)을 주는 곳 ③가까운 곳 ④환경친화적이며 늘 가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행 ⑤디지털 등 기술지향 강화 ⑥안전제일주의 ⑦일터와 휴식터 구분의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부킹닷컴 플랫폼에서 '등산(94%)', '상쾌한 공기(50%)', '자연(44%)', '휴식(33%)' 등의 소박하고 단순한 즐거움을 찾아 숙소를 예약한 이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관광 활동이 단순해지고 새로운 곳에서의 액티비티 활동보다는 익숙한 곳, 자연에서의 휴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산, 숲, 수목원, 정원 등 산림자연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취되고 있다. 치유와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높아진 상황을 인식한 산림청은 2020년 8월 정원 분야 제도 지원, 기반 확충 등 정원 산업과 정원문화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원팀'을 신설하였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수목원정원법을 제정하였다.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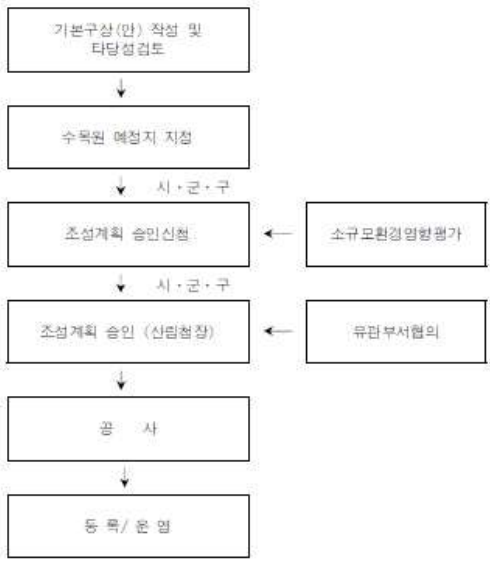
[수목원시설의 설치 기준]

구분	국·공립수목원	사립·학교수목원
증식 및 재배시설	-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제곱미터 이상의 묘포장 - 100제곱미터 이상의 증식온실	- 관수시설이 설치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묘포장
관리시설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2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전시시설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전시원·관목전시원 및 초본식물전시원 -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전시원·관목전시원 및 초본식물전시원 -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
편익시설	-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수목원이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르 이상, 사립·학교수목원의 경우에는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2017), 관광자원개발매뉴얼

[수목원 개발절차]



출처 : 한국관광공사(2017), 관광자원개발매뉴얼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종류로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이 있다.

정원은 가드닝이 이루어지는 공간, 식물원·수목원은 보다 학술적이고 산업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정원, 식물원(수목원), 공원의 비교]

구분	정원	식물원·수목원	공원(도시공원)
개념	식물을 중심으로 자연물과 인공물을 배치, 전시 및 재배, 가꾸기 등이 이루지는 공간	식물(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 및 전시하고 학술적·산업적 연구를 하는 시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
주요기능	- 재배, 가꾸기 등 가드닝 - 조형미, 예술적 및 참여적 - 식물학적, 공원적 기능	- 식물수집·증식·보존 등 연구 - 학술적, 산업적 기능 - 전시,교육 기능	- 휴식, 운동 등 레크레이션 - 시설이용 및 경관적 기능 - 식물학적 기능 부족

출처 : 산림청

▶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산림청의 발표에 따르면, 선진국은 GDP 3만불 진입 이후 '찾아가고', '만드는' 정원 문화가 발달하고, 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화를 견인한다고 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국가정원계획에 3천7백개의 정원이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첼시 플라워쇼'에서 매년 1.3억불의 수익이 창출된다. 미국의 경우도 공동체정원 활동에 약 8천5백만 가구가 참여하여 가구당 연 450불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국민·지자체·기업 등 관련 거버넌스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대국(庭園大國)"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느낀 산림청은 2016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 비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
- 목표: 정원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정착과 정원산업 시장을 1조 6천억원 규모로 육성
- 추진전략: 6대 분야 15개 과제

[전략별 추진과제]

6대 전략	15개 세부추진과제
1. 정원 인프라 구축	1-① 체계적인 정원 조성·관리 및 품질 확보
	1-② 국가정원 발전체계 확립 및 정원도시 롤 모델 구축
	1-③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공유 확대
2. 정원문화·교육 확산 및 관광 자원화	2-①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저변 확대
	2-② 정원의 관광 자원화 및 홍보 강화
	2-③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 실천
	2-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교육 실시
3. 정원산업 기반 구축 및 시장 활성화	3-① 실용정원 모델 개발 및 정원식물·용품 브랜드화
	3-② 정원시장 기반시설 및 유통망 구축
	3-③ 정원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4. 한국정원의 세계화	4-① K-Garden 프로젝트 추진
	4-② 해외 한국정원의 효율적 조성 및 체계적 관리
5. 연구개발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5-① 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개발
	5-②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6. 정원법령 개정	6. 정원법령 개정

출처 : 산림청(2016), 제1차정원진흥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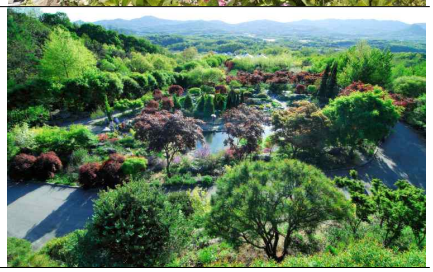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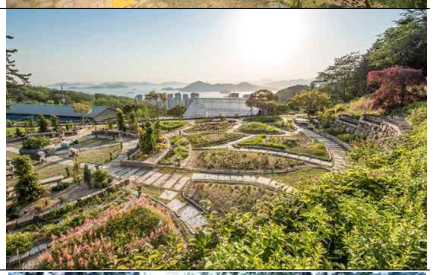
[정원 발전 로드맵]

기반구축기 ('16~'18)	**정원의 정책화 및 기반 구축** • 체계적인 정원 조성·관리 및 정원모델 개발 • 국가정원 운영관리체계 구축 •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붐 조성 • 정원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산업화 기반 구축 • 산·학·연·민·관 및 부처 간 협업체제 구축
성 장 기 ('19~'22)	**정원정책 안정화 및 정원산업 진흥** •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 조성 확대 • 권역별 정원종합유통센터 구축 • 정원전문가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정원식물 및 기자재 브랜드화·상품화 • K-Garden 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 • 정원소재개발 등 연구개발 강화
중 흥 기 ('23~'25)	**정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생활화** • 정원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가드너 등을 전문직업군으로 정착 • 한국정원 세계화 및 신한류 문화 창출 • 정원과 관련한 통계 및 시스템 정착

출처 : 산림청(2016), 제1차정원진흥기본계획

▶ 국내 수목원 현황(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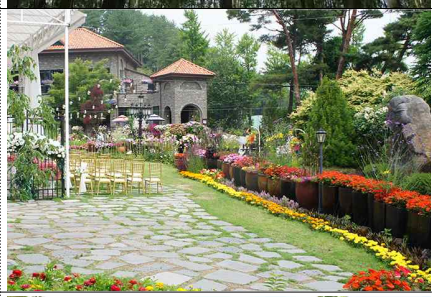
2021년 1월 기준 전국 수목원 수는 68개소로 집계된다. 종류별로 살펴보자면 국립수목원 3개소, 공립수목원 33개소, 사립수목원 29개소, 학교수목원 3개소이다.

구분	시설명	내용	이미지
국립	국립수목원	• 위치 : 경기도 포천 • 규모 : 1,123ha • 개원연도 : 1984년 • 주요시설 : 전문전시원, 산림박물관, 산림생물표본관, 산림동물원, 난대온실,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등 • 특징 :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 산림생물종 연구	
	천리포수목원	• 위치 : 충청남도 태안 • 규모 : 59ha • 개원연도 : 1979년(비공개 운영해오다 2009년 공개) • 주요시설 : 27개 주제정원, 밀러가든, 가든스테이 등 • 보유수종 : 14,000여종 •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수목원	
	한택식물원	• 위치 : 경기도 용인 • 규모 : 27ha • 개원연도 : 1981년 • 주요시설 : 재배온실 8개동, 연구소 1동, 36개 테마정원, 야외공연장, 쉼터, 식음, 기념품샵 등 • 보유수종 : 9,700여종	
사립	울산테마식물수목원	• 위치 : 울산광역시 • 규모 : 5ha • 개원연도 : 2004년 • 주요시설 : 한반도 테마 정원, 전시온실, 단풍원, 무궁화원, 파충류 체험장, 삼림욕장 등 • 보유수종 : 1,500여종	
	진해보타닉뮤지엄	• 위치 : 경상남도 창원 • 규모 : 2.5ha • 개원연도 : 2017년 • 주요시설 : 꽃들의 집, 꽃 대궐, 솟대 공원, 이끼 산맥, 식물 시장, 자이언트 벤치 등 • 보유수종 : 1,000여종	
	해남포레스트수목원	• 위치 : 전라남도 해남 • 규모 : 13.8ha • 개원연도 : 2019년 • 주요시설 : 수국정원, 팜파스그라스정원, 분홍꽃정원, 온실, 편백숲 산책길 등 • 보유수종 : 1,400여종	

출처: 산림청, 각 시설별 홈페이지.

▶ 국내 정원 현황(요약)

전국 등록된 정원 수는 43개소, 조성 중인 정원 수는 23개로 집계된다. 종류별로 살펴보자면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2개소(23개소 설계·조성 중), 민간정원 31개소, 공동체정원 8개소이다.

구분	시설명	내용	이미지
국가	순천만 국가정원	• 위치 : 전라남도 순천 • 규모 : 92.6ha • 개원연도 : 2014년 4월(영구 개장) • 주요시설 : 주제정원 57개, 식물 848종 435만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외 4개 체험시설 등 • 특징 :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	• 위치 : 울산광역시 • 규모 : 83.5ha • 개원연도 : 2013년 12월 • 주요시설 : 주제정원 29개소, 식물 785종 8만본 백록생태학교 외 3개 체험시설 등	
지방	세미원	• 위치 : 경기도 양평 • 규모 : 12ha • 개원연도 : 2004년 5월 • 주요시설 : 연꽃박물관, 불이문, 국사원과 우리내, 장독대분수, 파고라 주련, 페리기념연못, 백련지, 두물머리 등	
	죽녹원	• 위치 : 전라남도 담양 • 규모 : 157ha • 개원연도 : 2005년 3월 • 주요시설 : 죽녹원8길(대나무숲), 이이남아트센터, 시가문화촌, 한옥카페, 전망대, 쉼터, 정자 등	
민간	아름다운정원 화수목	• 위치 : 충청남도 천안 • 규모 : 2.8ha • 개원연도 : 2016년 8월 • 주요시설 : 서부작길, 분재원, 탐라식물원, 테마정원, 산책로&폭포로 구성 • 특징 : 우리나라 1호 민간정원	
	생각하는 정원	• 위치 : 제주도 제주 • 규모 : 3.3ha • 개원연도 : 1992년 7월 • 주요시설 : 힐링뷔페&카페, 가든파티&웨딩, 녹색체험교실 등	

출처: 산림청, 각 시설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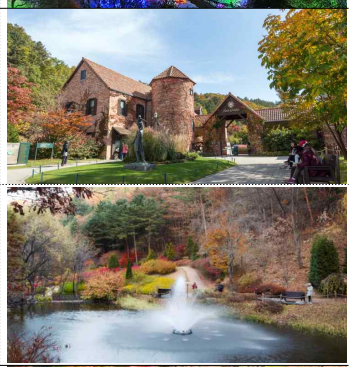
▶ 차별화된 국내 주요 수목원 사례

국내 수목원·정원은 적은 투자비로 큰 집객효과를 볼 수 있는 수목원·정원 산업의 특징과 힐링 트렌드에 따라 2018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1월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수목원·정원만 해도 111개소이며 조성 중인 정원까지 합하면 134개소가 넘는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수목원·정원으로 인한 산림자연의 난개발 및 이용자 없이 이름만 존재하는 수목원·정원 시설을 막기 위해 각 시설별 차별화가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대표적인 수목원 차별화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다.

1996년 개원한 아침고요수목원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연간 100만명 내외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 수목원으로, 동절기 일루미네이션 축제 '오색별빛정원'을 개최하여 겨울철 비수기를 극복해냈다. 그 성과로 2019년 기준 107만명이 방문하였으며 9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이드가든수목원은 '숲 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이라는 컨셉으로 유럽식 건축과 정원을 내세워 기존 수목원들과의 차별화에 성공, 연 24만명이 방문하는 춘천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곤지암수목원(화담숲)은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높은 부대수입을 창출하였으며, 고급 수종을 활용한 세련된 조경디자인으로 수목원의 고급화를 이끌어냈다. 2016년 기준 87만명이 방문하였고 약 78억원의 입장 매출을 올렸다.

시설명	내용	이미지
아침고요수목원	• 위치 : 경기도 가평 • 규모 : 14ha • 개원연도 : 1996년 • 주요시설 : 테마정원 22개소, 온실 3개소, 야외무대, 갤러리, 체험학습장, 추억공작소, 식음시설 등 • 보유수종 : 5,000여종 • 방문객 수 : 2019년 기준 107만명(2020년 46만명) • 특징 : 우리나라 전통의 원예미 반영, 매년 겨울 빛 축제 '오색별빛정원' 개최(다양한 식물들과 빛의 조화로 화려한 경관 연출), 인근 펜션단지 밀집으로 숙박관광객 집객	
제이드가든수목원	• 위치 : 강원도 춘천 • 규모 : 16ha • 개원연도 : 2004년 • 주요시설 : 테마정원 24개소, 유리온실(고산온실, 재배온실), 방문객센터(레스토랑, 카페, 기념품점 등) • 보유수종: 3,900여종 • 방문객 수 : 2019년 기준 24만명(2020년 9만명) • 특징 : 숲 속의 작은 유럽을 테마로 유럽풍 건축물, 유럽 각국 대표 정원 등으로 이국적 분위기 제공	
곤지암수목원 (화담숲)	• 위치 : 경기도 광주 • 규모 : 16ha • 개원연도 : 2013년 • 주요시설 : 테마정원 17개소, 모노레일, 전망데크, 잔디마당, 식음시설 등 • 보유수종: 4,000여종 • 방문객 수 : 2019년 기준 87만명(2020년 9만명) • 특징 : 경사지 모노레일 도입, 데크로 이루어진 완만한 산책로로 최적의 관람환경 제공, 국내 최대 분재원	

출처: 산림청,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각 시설별 홈페이지.

V. 결언

▶ 수목원·정원 산업의 성장과 고려사항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대되고 건강과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숲, 수목원, 정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던 수목원·정원 산업은 작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청정과 안전, 자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더욱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산림청은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를 감안하여 정원팀을 신설하였고, 전라남도는 신규 정원 조성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등 15개 사업에 432억원을 투자하며 '전남 정원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각 지차제별로 수목원·정원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체들도 발 빠르게 뛰어든 결과 수목원·정원 산업의 급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너도나도 따라 하기'식의 개발이다. 타 지자체의 우수한 성공 사례가 우리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위험하다. 우리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산업 트렌드와 적절히 조화시켜 특색 있는 수목원·정원을 조성해야 지속적인 집객(集客)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융복합을 통한 계절적 한시성 극복 방안

그간 수목원·정원은 한두 시간 산책하고 둘러보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야외시설의 특성상 야간 활용 문제와 겨울철 비수기에 접어들면 방문객이 급감하는 계절적 한시성이 문제점으로 꼽혀왔으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시설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사례로 꼽았던 아침고요수목원의 경우 겨울철 일루미네이션을 통해 비수기를 극복하였으며, 해남포레스트수목원의 경우에도 봄에는 분홍꽃 축제, 여름에는 수국축제, 가을에는 팜파스축제, 겨울에는 산자락 그늘을 활용한 얼음벽을 선보이는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든스테이도 하나의 대안이다. 천리포수목원의 경우 수목원 곳곳에 기와집, 초가집, 양옥 형태의 숙박시설이 위치하여 한층 더 깊이 있는 가든 체험을 제공한다. 관광객들이 하룻밤 머물며 식음 등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부가적인 수입 창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밖에도 온실카페, 자연주의 다이닝과 펍, 가드닝 프로그램 등 자연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연주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도입하여 수목원·정원이 단순히 산책하는 곳이 아닌 자연을 만끽하며 식음, 숙박까지 즐길 수 있는 자연 특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Ⅵ. 참고문헌

최지안, 이진민(2019), 힐링(Healing)과 연관된 개념의 변천과 트렌드 동향 분석 – 웰빙(Well-being), 웰니스(Wellness), 힐링(Healing)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20권 4호.

중앙일보(2019), [건강한 가족] 피톤치드·음이온 가득한 숲, 면역력·심혈관 강화하는 '그린 닥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코로나19의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pp.144-145, p.160.

컨슈머인사이트(2021), TRAVEL 분석으로 본 20-21 국내여행 트렌드.

해럴드경제(2021), 2021 여행트렌드, '광란의 밤' 가고, 단확행·친자연 득세.

한국관광공사(2017), 2017 관광자원개발매뉴얼, pp.378-379.

산림청(2016),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 p.2, pp.12-14.

생활숙박시설 개발 동향 및 이슈

퍼스트아이엔엠 주식회사
김 의 석 부사장
(부동산 개발기획 전문가)

Ⅰ. 머리말

부동산 투기, 허위 광고, 불분명한 용도 등의 문제로 오랜 시간 곪아온 생활숙박시설 문제에 드디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칼을 뽑아든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행위들에 대한 조치 계획을 예고하였으며, 이후 5월 1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여 생활숙박시설의 범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생활숙박시설의 등장 배경과 유형 및 현황을 조사하고, 생활숙박시설의 불온전한 법령이 불러온 문제점들과 이에 대응하는 국토부의 개정된 법적 방안들에 대해 알아본다.

※ 본고는 저자의 의견으로서 한국관광공사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I. 생활숙박시설의 개념 및 현황

▶ 생활숙박시설의 법적 정의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숙박업의 세분) 제2조제2항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며,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으로 세분된다. 이 중 생활숙박시설은 생활 숙박업에 속하여 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로 구분되며, 「건축법」 제3조5(별표1의15)에 따르면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생활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제2조2항] 1.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건축법 시행령 제3조5(별표1의15)] 15.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생활숙박시설은 IMF 이후 다국적 기업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급증과 함께 등장하였고, 외국계 기업은 외국인 및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국내 기업은 임대업 위주로 일반인 대상 先분양 후 위탁관리로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등록 후 서비스드레지던스(前 생활숙박시설)로 편법 운영하는 경우가 무수하여 2010년 4월 대법원의 서비스드레지던스 불법영업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으며, 이후 2012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이 합법화되면서 분양 및 취사시설 구비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는 오크우드, 도미인 등의 외국계 업체와 바비엥, 코아텔 등의 국내 업체들로 레지던스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 숙박업체도 레지던스 숙박업을 운영하며 건설업 분야도 레지던스에 대한 건축허가가 증가하고 있다.

▶ 한국 생활숙박시설의 연혁

2001년

- 관련법 미비로, 편법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았으며 2010년 4월 대법원에서는 불법영업 판결을 내림

외국계 기업

오크우드, 도미인, 프레이져 스위츠 등
→ 외국인 장기투숙자 대상

국내 기업

코업, 휴멍터치빌, 바비엥, 코아텔 등
→ 임대업 위주로, 일반인 先분양 후 위탁관리로 수익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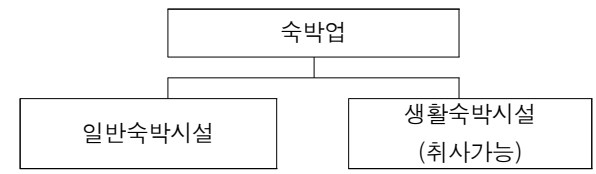
▶

2012년

- 2012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영업용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 숙박업(일반)
  - 숙박업(생활)



*건분법에 따라 등기분양 가능

▶ 생활숙박시설의 유형

생활숙박시설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주거형, 수익형-임대운영형, 수익형-숙박운영형, 2nd하우스(휴양형)로 분류된다. 그중 주거형 생활숙박시설은 주로 주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 지역에 자리하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자 1가구 2주택 규제의 회피가 가능한 상품으로 그 용도가 불명확하여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취사가 가능한 특성을 이용해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한 불법 이슈의 대부분이 주거형 생활숙박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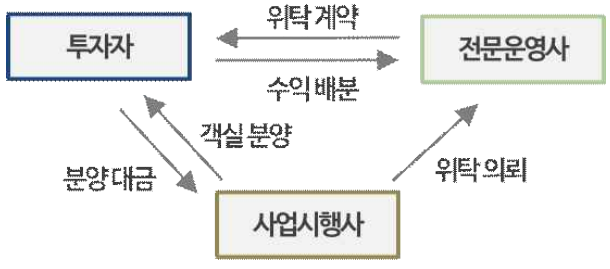
생활숙박시설 분류

주거형 생숙	수익형 생숙(임대운영형)	수익형 생숙(숙박운영형)	2nd하우스(휴양형) 생숙
			
도시 지역 주거수요 확보지역	산업단지, 연구단지 인근지역	주요 관광지, 해안가 인접지역	골프장, 의료연계 실수요자 중심
사례 여수 웅천 자이 여수 경도 관광단지	사례 거제 라마다 스테이216 레지던스 등	사례 양양 오션스테이 속초 카시아	사례 양양 설해원 고창 웰파크시티
• 아파트 대체 상품 • 1가구 2주택의 규제 회피 상품 • 발코니 확장 등으로 상품화	• 오피스텔 대체 상품 • 산업단지, 연구단지 인근에 입지 • 최근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근 • 지역 개발 호재 • 산업 종사자, 연구 종사자, 미군 및 • 미군무원 대상	• 해변, 산등 관광지 인근에 입지 • 관광지를 찾아오는 단기 숙박 • 관광객들이 타깃 • 관광호텔 급의 부대시설 구비 • 수익형으로 운영	• 골프장, 리조트 내 • 실수요자(고액자산가) 타깃 • 분양 후 실 수요자의 휴양형 세컨드 하우스로 판매

▶ 타 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의 비교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구분등기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객실별로 소유권이 부여되며 시설 운영은 전문운영사와 위탁 운영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생활숙박시설은 타 숙박시설과 달리 등기분양 및 개별임대차가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초기 투자비 회수를 통한 개발 리스크가 감소된다. 수요자의 경우 세컨드 하우스 활용 및 임대수익을 낼 수 있으며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담보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생활숙박시설 사업 구조



타 숙박시설과의 비교

구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 미니엄
분양 여부	개별등기 분양	개별등기 분양	회원모집 분양	회원모집 분양	등기/ 회원
개별 임대차	가능	가능	불가	불가	불가
취사 시설	불가	가능	불가	가능	가능
사례	춘천 라마다 세인트존스 경포	고창 웰파크시티, 속초 라마다	대명쏠비치 휘닉스파크	센트럴서울 천안상록	대명콘도 한국콘도

▶ 생활숙박시설 현황(2017년 이후)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생활숙박시설은 60,394 호수, 3,290 동수로 집계된다. 2017년부터 생활숙박시설 허가건수가 서서히 줄어들어 2020년에는 12,800 호수로 집계되었으며, 동수의 경우 2019년 급락세를 보인 후 2020년 다시 안정세를 보였다. 생활숙박시설 허가건수의 4년간 평균 증감률은 호수 -11.25%, 동수 5.68%이다. 생활숙박시설이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은 경기도(17,735 호수)이며 전국의 29.37%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 현황

구분	건축물대장 (20.12 기준)		허가건수							
			2017		2018		2019		2020	
광역명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전국	**60,394**	**3,290**	**18,611**	**436**	**16,214**	**420**	**12,689**	**252**	**12,800**	**405**
경기	17,735	1,186	6,667	225	4,921	128	3,171	64	4,340	139
제주	12,866	199	3,229	41	447	17	566	16	149	11
인천	6,166	254	1,487	29	2,462	93	17	10	28	6
강원	5,553	540	1,533	42	3,498	52	4,928	38	3,881	81
부산	4,208	61	1,774	12	525	7	1,566	18	2,561	9
서울	2,917	40	651	5	671	5	0	4	0	3
대전	2,667	32	12	3	1,467	7	280	5	506	8
전남	2,633	246	624	32	1,274	43	858	18	29	45
경남	1,915	133	310	3	259	3	62	5	0	27
충북	1,534	109	998	9	528	11	38	5	9	13
경북	581	167	32	13	16	26	94	29	881	11
광주	490	8	1,245	2	0	0	98	2	24	1
전북	392	82	0	4	0	12	258	8	83	22
울산	268	6	0	0	0	0	247	2	0	0
충남	264	195	13	13	108	14	110	25	30	26
대구	205	32	36	3	38	2	0	2	279	3
세종	0	0	0	0	0	0	396	1	0	0

출처 : 국토교통부

▶ 생활숙박시설 최근 동향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 도입이 가능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에 최근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로(1가구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등) 주택에 해당되지 않았던 생활숙박시설이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미 일부 단지는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상황이며 실례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공급된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이는 청약 수요 분양권 전매로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수요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캐슬 드메르 조감도



롯데캐슬 드메르 청약 경쟁률

구분	TYPE	호수	건수	경쟁률
1군	45, 46	509호실	87,819	172:1
2군	71	208호실	118,620	570:1
3군	90, 91	490호실	187,569	382:1
4군	314, 335	14호실	32,207	2,300:1
평균				356:1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롯데건설·리얼투데이 제공)

Ⅲ. 생활숙박시설 도입 관련 이슈

▶ 첫 번째 이슈, 불법 주거

등장 이래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편법 이슈는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왔다. IMF 이후 등장한 생활숙박시설은 호텔보다 저렴한 요금에 취사시설까지 갖춰져 외국인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장기 체류형 아파트의 개념이었던 레지던스가 국내형 서비스드레지던스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2010년 호텔 업계의 반발과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공급중단 및 폐업위기를 맞게 된다. 이후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적지위를 획득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생활숙박시설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으로 미분류되어 분양가상한제, 대출·전매제한 등에서의 회피가 가능하고 학교부담금 면제, 주차기준이 주택대비 1/3수준으로 인근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요구 또한 제기되어왔다.

‘뻥튀기’ 광고 오피스텔 수분양자, 계약 취소 가능해진다_210511	서울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 아냐… 분양 피해 주의"_20210221	부산에 잇단 생활숙박시설 "난개발과 주거용도로 변질 우려"_20200916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하거나 인근의 볼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분양사업자 귀책사유란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이 있을 수 있다.	 주택 분양 (PG)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처럼 분양하고 사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 시는 각 자치구가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를 접수할 때 "(해당 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분양 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HAEUNDAE GRAND HOTEL 해운대 그랜드 호텔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에 추진 중인 생활숙박시설 일부가 관광도시 기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 두 번째 이슈, 허위·과장 광고

생활숙박시설 주요 불법 이슈의 두 번째로는 허위 광고 문제를 들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들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하면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고, 대출이나 전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도 버젓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제재를 받는 등 이를 모르고 생활숙박시설에 투자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 같은 범법행위를 재단할 수 있는 법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비교

구분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법규상 차이점	용도	업무/주거 (숙박 ×)	장기/단기숙박 (숙박 ○)
	법정 주차대수	세대당 1대 이상 (호실당 전용면적 60㎡이하:0.7대 이상) (안산시 주차장조례 별표)	시설면적 150㎡당 1대 (안산시 주차장조례 별표)
세금	종합부동산세	5년미만 임대사업자 유지시 합산	면세

Ⅳ. 정부정책 및 법적 대응

▶ 1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이와 같은 생활숙박시설 관련 범법 행위들을 제어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을 예고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신규 생활숙박시설>

○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 5월 4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또한 국토부에서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입법·행정을 예고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제3조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제3조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를 설치**할 것.(다만, 프런트데스크·로비는 **외부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공용 화장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다만, **30객실 이하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린넨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 5월 11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어 국토부는 5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 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하며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①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분양절차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③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의 세 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④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⑤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1)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Ⅳ. 결언

생활숙박시설의 미비한 법을 악용하던 일부 분양사업자들의 범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 개정 전과 대비해 불법 행위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안 개정에서 멈추지 않고 주기적인 현장 감사와 계약서 검토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현재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면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전례가 없어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아예 취소해야한다며 국토부의 대응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되, 기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주거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생활숙박시설의 규제를 2년간 유예하여 이행강제금을 면제키로 하였다.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국토부는 수분양자, 분양사업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에 더불어 기존 생활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 규제 라인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새로운 과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해제사유: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과 같이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V. 참고문헌

머니투데이(2021), 편법·탈세 투기몰린 '생활형숙박', 이제야 칼뺀 국토부.

국토교통부(2021), 보도자료(01.14., 05.03., 05.11.)

부산일보(2021), '롯데캐슬 드메르' 청약 열기 이어 분양권 전매 시장도 '활활'.

호텔뉴스(2021), 생활형 숙박시설 20년간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서사를 돌아보다.

연합뉴스(2021), '뻥튀기' 광고 오피스텔 수분양자, 계약 취소 가능해진다.

연합뉴스(2021), 서울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 아냐…분양 피해 주의"

뉴스탑전남(2021),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2년 유예…혼란 계속 될 듯

연합뉴스(2020), 부산에 잇단 생활숙박시설 "난개발과 주거용도로 변질 우려"

임상빈(2020), 생활숙박시설 과세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과제 2020-01호

지역관광개발 전략적 공공미술을 통한 명소화 사업

- 벽화마을의 관광지화를 중심으로 -

㈜투어큐레이션
최식원 대표(관광학박사)

Ⅰ. 머리말

거리의 화가 뱅크시(Banksy)가 그린 벽화 하나에 4억 원이던 집값이 72억으로 올라 화재다(연합뉴스, 2020-12-12). 런던에서는 그의 벽화를 투어하는 '뱅크시 벽화 투어'가 에어비앤비 체험(Airbnb Experience) 상품으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 런던 시내에는 뱅크시의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벽화와 그라피티(Graffiti) 투어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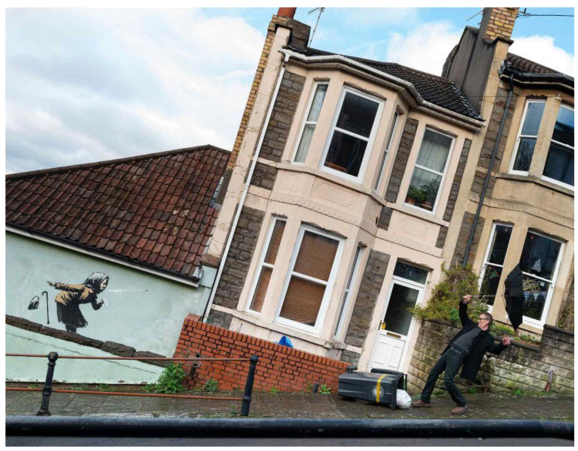


그림1. 에어비앤비에서 판매 중인 '런던 뱅크시 벽화 투어'와 뱅크시의 벽화 '에취'

※ 본고는 저자의 의견으로서 한국관광공사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I. 공공미술의 개념 및 현황

▶ 공공미술의 개념

공공미술(public art)의 개념은 목적, 방법, 매체,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1930년대 경제적 공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뉴딜정책의 하나로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하였다(정규상, 2018).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미술행정가 존 윌렛의 1967년 저서 「도시 속의 미술(Art in City)」에서 처음 사용했다. 당시 미술작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즐기는 편향된 경향에 대하여 "소수만이 미술을 즐기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라며 여러 사람이 함께 도달할 수 있는 가치에 목적을 둔 공공미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안현정, 2010).

[공공미술의 정의]

공공미술의 의미	공공성과 미술의 만남
공공미술의 대상	- 공중(시민, 군중, 관람객, 수혜자 등) - 공중을 위하고 공중을 향하며, 공중의 참여를 통해 제작 - 공중과의 연결 매체로서의 작품 - 공중이 작품을 소유 - 지방자치단체, 미술가, 미술 단체, 기업, 주민 등 자발적 조성
공공미술 설치장소	-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 - 일상 및 생활 주변 모든 공공장소 - 공공미술이 설치된 공간은 사회·문화·정치적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
공공미술 작업 및 형태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작업 - 지역공동체, 관람객 등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 시도 - 다양한 장르의 결합과 공공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 - 영구적/반영구적/일시적 작업(이벤트성 작업) 등 다양한 형태

표 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정의

▶ 공공미술의 변천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공공미술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형식적인 조형물의 형태로 설치된 미술작품, 조각품이 대표적이었다. 이후 민주화와 함께 시민 문화 의식의 성장이 기존의 공공미술 변화의 토대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제도적 공공미술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계기로 공공미술에 대해 여러 가지 시도와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공공미술에 관한 행정제도가 확장되었다. 최근 공공미술은 작품의 장소성(공간화)이 강조되며 공공디자인과 함께 도시디자인으로 확장되었고 시민과의 소통을 고려하는 참여형 공공미술 작품 설치가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서울디자인재단, 2015)

김혜진(2010)은 우리나라 공공미술 개념의 변천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건물 내외의

장식물(Art in Architecture)에서부터 시작하여 공공장소(Art in Public Places)로 확대, 도시계획에 적용(Art in Urban Design)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이후 나타난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간(place) 중심의 공공미술에서 벗어나 설치예술이나 퍼포먼스 등 작품의 표현도 다양해지고 시민이나 지역주민의 참여 중심으로 폭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미술 개념의 변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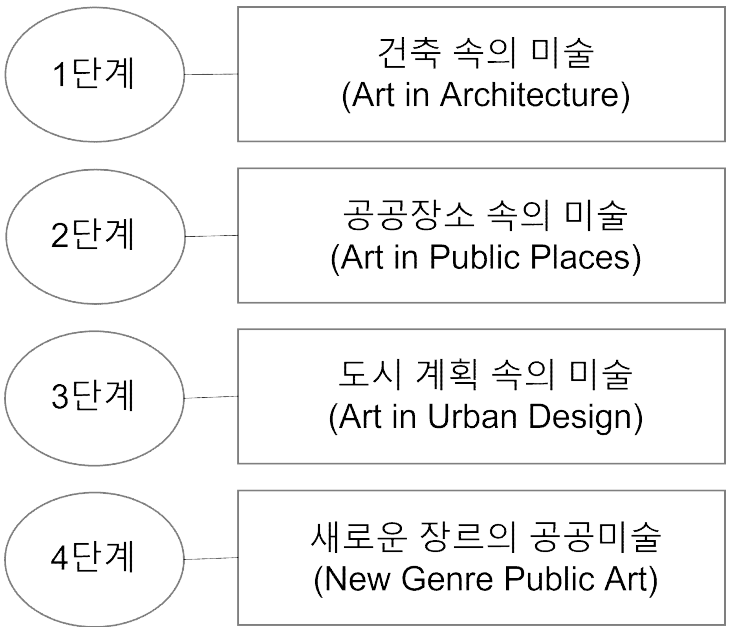


그림 2 . 공공미술의 개념 변천 과정(김혜진,2010)

안현정(2010:372)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1968)를 인용하며 문화의 역할은 공적 영역의 본질을 드러내는 동시에 미적인 것을 '공공(公共, public audience)'을 향해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즉 자본의 논리가 예술창작영역의 내면에 작동해 '상품으로서의 예술'을 추구할지라도, 문화예술은 '공공성(公共性, publicness)'을 담보한 진리 추구를 통해 미의 생산과 수용에 기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공공미술에서 '공공성'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배제할 때 형식만 난무하는 '권력화된 미술'로서 치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역관광개발 차원에서 공공미술의 접근은 위 주장처럼 공공미술의 본질적 이해가 우선적이다. 벽화마을은 시작부터 관광객유치나 명소화 사업이 아니었다. 사업의 목적이 바뀔 순 있지만, 관광지에 그리는 벽화가 아니라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벽화라면 주민 의견이나 환경을 고려하는 등 좀 더 공공성에 대해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벽화의 개념과 기능

벽화는 주로 도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공사장 가설 벽이나 주차장의 담장, 콘크리트 옹벽 등 도시 미관에 있어 불량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표현 방법에 따라 그라피티, 예술 벽화, 광고 벽화, 선진적 벽화, 장식 벽화, 환경 벽화, 공공 벽화 등으로 나눈다.

[벽화]

벽화는 건축 구조물의 벽이나 천장을 장식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벽면에 부착되는 그림을 총칭한다. 구석기시대 후기의 동굴벽화가 발견되는 것처럼 회화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고, 거의 모든 시대와 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벽화는 공허한 벽면을 장식할 뿐만 아니라, 건축의 제 부분을 시각적으로 분절하고 서로 대조시키는 효과를 낸다. 기법상으로는 프레스코, 템페라, 납화법, 모자이크 등이 있으며 구조물의 성격에 따라 종교적 벽화와 기념적 벽화, 예술적인 벽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제작 방법은 프레스코화처럼 직접적으로 벽면에 그려지거나 작품의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따로 그려 벽에 붙일 수도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벽화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이런 형식의 벽화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의 환경을 미화하거나 예술적 환경조성 등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또는 집단의 정서와 의지를 반영하고 하고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벽화의 기능]

기 능	설명
건물의 보존 및 개선	- 낙후된 건물이나 옹벽 등을 개선
장식성	-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볼거리	
홍보 및 계몽	- 지역의 축제, 슬로건을 알림
소통	-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정서, 의지) 반영

출처 : 이의진·이진호(2010), 부산의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벽화 사례 연구.「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36-37

▶ 공공미술로서 벽화의 역사

국내에서 벽화마을은 2000년대 들어 새로 도입된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해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을 시작으로, 통영 동피랑, 부산 감천마을 등이 명성을 크게 얻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졌다. 박구원(2020)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성공에 힘입어 이후 전국 200여 개의 마을에서 벽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공공미술 중에 왜 벽화일까?

서구사회에서 제도적 공공미술은 앞의 그림1과 같이 변화하며 발전해왔다. 1960년대 후반 공공미술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틀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정부 단체의 건물, 도시 중심부, 공원, 광장, 학교, 주택 외벽 등에 현대미술 작품이 필수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1950~1960년대는 소수자와 제3 세계인들에 의한 자유와 문화적 정체성 표현을 위한 벽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연방정부, 주 정부, 지역사회 등이 도시미화 사업, 공동체 문화사업, 재생사업 등의 목적으로 직접 벽화 운동을 후원하기 시작하였고 미국국립예술기금위원회 역시 벽화사업을 장려하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하며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벽화가 제작되게 된다.

국내의 공공미술은 1980년대 민중운동의 영향으로 출현한 도시 벽화를 기원으로 보곤 한다. 198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조항[2]이 신설되면서 공공미술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낙후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벽화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경희대 민중벽화와 흥국생명 해머링맨]



출처 : 연합뉴스(左), 흥국생명 블로그(右)

2)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Ⅳ. 국내 벽화마을 사례

▶ 국내 벽화마을의 조성 현황

벽화마을은 시행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 '관 주도형', 사회적 기업이나 예술가가 중심이 된 '민간주도형',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주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벽화사업은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공공디자인, 공공미술 사업뿐 아니라 민간 활동의 형태로도 진행되고 있으며, 낡은 벽에 벽화를 그려 넣는 유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목적에 따라 도시재생, 환경미화(범죄예방), 일자리 창출, 교육, 주민참여사업, 관광자원으로서의 벽화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어느 한 가지 목적만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벽화사업 초기에 관광객 유입은 미미했으나 이화동 벽화마을, 부산 감천마을, 통영 동피랑, 청주 수암골 등이 TV나 영화의 촬영지로 알려지고, 예능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되며 관광객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자체에서 이런 효과를 보며 관광객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예도 생겨났다. 이런 경우 지역주민의 의사나 참여를 고려하지 않아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안동의 신세동 벽화마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 국내 벽화마을 현황

시설명	내용
부산 감천마을	• 사 업 명 : 마을미술프로젝트, 꿈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 사업연도 : 2009년~ • 주요활동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초창기 벽화 중심에서 체험프로그램, 아트마켓, 다양한 먹거리, 숙박, 안내시설 마련,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개발, 마을주민에 수익 환원 • 기 타 : 다양한 문화콘텐츠 융합으로 '감천문화마을'의 문화브랜드 조성과 장소마케팅 전략을 통한 마을경쟁력 강화. 2019년 308만 명 방문, 2020년 113만 명 방문
통영 동피랑	• 사 업 명 : '색과 그림이 있는 골목,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연도 : 2007년~ • 주요활동 : 시민단체 주도의 도시재생(마을주민 참여 도모) 벽화공모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주민 교육(바리스타 교육 등), 예술인에 빈집 리모델링 후 저렴하게 임대, 카페와 공방 운영으로 관광객에 머물고 싶은 공간 제공,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자부심 상승 • 기 타 : 마을협의체 구성으로 2년마다 벽화 교체 및 보수 2019년 159만 명 방문, 2020년 126만 명 방문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	• 사 업 명 : 2006 아트인시티 (낙산 프로젝트 : 이화마을벽화그리기) • 사업연도 : 2006년 9월~12월 • 주요활동 : 공공의 주도하에 68명의 작가와 70개의 작품 설치 해바라기 계단과 잉어 계단은 5천여만 원이 투입된 랜드마크 작품, 예능프로그램 출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성장 • 기 타 : 재개발에 대한 불만과 관광객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벽화 훼손 사건 발생(2016)
동두천 캠프보산	• 사 업 명 : 캠프보산 거리예술 프로젝트 • 사업연도 : 2015~2018년(4년간), 2018~2020 • 주요활동 : 'K-Rock 빌리지 조성사업', '그라피티 조성사업', 관광특구 특화 거리 개선사업(월드푸드스트리트 등) 특색있는 거리 만들기를 통해 동두천 지역의 정체성을 시각화, 공공미술의 성격을 확장하면서 도시의 구조물과 건물 등 거리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환경미술로 차별화(그라피티) '외국인 관광특구'에서 '동두천문화특구'로의 새로운 브랜딩 전략 • 기 타 : 세계적인 작가를 초청해 작품의 질을 높이고 동두천의 정체성 찾기와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작품으로 꾸준히 해당 거리의 색깔을 만들어감. 이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그들의 모습을 캐릭터로 표현하는 등 작품을 일상을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함
청주 수암골 벽화마을	• 사 업 명 : • 사업연도 :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주시 공공예술 프로젝트 • 주요활동 : 2005~2008 벽화마을, 2009~2012 드라마 촬영으로 관광명소로 발전, 벽화마을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속적 추진, 기반시설 정비, 2013~2016 새로운 전망 및 카페 시설 탄생, 2017~2019 수암골 전체가 청주시 관광거점으로 발전 • 기 타 : 수암골 내에서도 벽화 공간(마을주민 거주)과 카페 공간이 구분되어 상승효과를 유발하며 발전. 공공주도로 시작했지만 꾸준한 투자를 통한 공간적 테마적 확대가 청주시를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발전
안동 신세동 벽화마을	• 사 업 명 : 마을미술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 창조지역사업 • 사업연도 : 2009년, 2016~2018년 • 주요활동 : 전문작가주도의 벽화마을 추진 주민들의 자발적 지속적 참여가 저조하여 시간이 지나 벽화가 훼손되며 흉물로 바뀜. 벽화도 지역과 연관성 부족. 창조지역사업으로 마을협의회가 발족하고 다양한 마을 행사를 열었지만, 지원사업이 끝나며 다시 원래로 돌아옴. 주민협의체의 활동도 미미한 상황 • 기 타 : 벽화가 벗겨지고 조형물은 휴지통으로 변하는 등 거리 곳곳이 흉물로 변하고 있음
대전 대동 벽화마을	• 사 업 명 : 공공미술추진위원회(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 공모사업) • 사업연도 : 2007년, 2009년 • 주요활동 : 문화1번지추진위원회 결성, 대전시 2008 무지개프로젝트 3차 공모, 2009년 12월 대동마을 쉼터 사업으로 대동하늘공원 조성, 주민 잔치인 어울림한마당 축제, 정월대보름 장승제 등 여러 행사 진행 • 기 타 : 2019년 '강소형 잠재관광지'와 '한국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홍보, 예능프로그램 '유퀴즈'의 촬영으로 관광객 급증. 지역주민은 재개발이 아닌 재생사업으로 오히려 안심하고 덕분에 주변 환경정비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

▶ 차별화된 국내 벽화마을 사례

일명 동백 파마머리 벽화가 인기다. 신안 암태도 문병일·손석심 부부 벽화다. 천사대교 개통을 기념으로 그려진 벽화 덕분에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도초 수국마을, 자은도 유각마을 등 신안 섬 곳곳에 마을주민들의 얼굴을 벽화로 그렸다. 전국에서 이 벽화를 보러 방문하기도 했다.

[신안 암태도/자은도 얼굴벽화]



출처 : 신안군 블로그

신안의 또 다른 섬 반월·박지도는 퍼플섬(Purple Island)으로 더 잘 알려졌다. 토종 도라지꽃과 자색 고구마에 착안하여 마을 곳곳을 보라색으로 꾸몄다. 마을의 모든 건물 지붕을 보라색으로 칠하고 봄이면 보라색 유채, 여름이면 라벤더, 가을이면 이스타 국화, 겨울에는 보라색 맨드라미, 사시사철 보라색이 마을을 물들인다. 심지어 논과 밭에서 일하는 주민들의 옷도 보라색이다. 하나밖에 없는 식당과 숙박시설, 카페도 모두 마을에서 운영한다. 반월·박지도는 짧은 시간에 전국에 이름을 알렸고 행정안전부 선정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선정되는 성과도 얻었다.



그림 3. 신안 반월·박지도 퍼플교(출처: 대한민국 구석구석)

V. 결언

▶ 벽화마을의 명(明)과 암(暗)

벽화는 내구성이 5년 정도다. 환경에 따라 그 시기는 앞당겨지기도 한다. 훼손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건물의 부식 등 또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개발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벽화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3]'을 인용하며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 흰여울문화마을과 부산 감천마을의 연구를 보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오히려 다양한 범죄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고성방가와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은 마을주민에 큰 정신적, 물리적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역개발 지지 세력과 도시재생 지지 세력의 마찰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마을벽화로 범죄예방 효과를 본 곳은 CCTV의 설치,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설치, 통학로 및 골목길 정비, 가로등 설치, 빈집철거, 안심 지킴이 집 등 환경개선사업이 동반했을 때라야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공공미술로서의 벽화는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넣는 일로 끝나는게 아니다. 벽 하나를 두고 이를 둘러싼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부산감천마을과 동피랑의 성공은 지역주민을 끌어내어 함께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은 내 손으로 일군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이 생겨났고 이는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에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 지역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은 차별화 필요

여전히 전국에 200여 곳이 넘는 마을벽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벽화뿐만 아니라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영역을 확대하면 더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공한 벽화마을의 공통점은 TV 등의 언론 노출이 아니다. 그건 어떤 계기가 될 뿐이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관광객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의 벽화 훼손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다. 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역할이 전문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 동피랑마을도 신안 동백파마머리 벽화도 수 개월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이었다. 단순히 예쁜 그림은 어디서라도 그려낼 수 있다. 지역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지역주민도 관광객도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꾸준한 투자(교육, 법적·경제적 지원)가 있어야 하며 그 투자는 주민단체가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환경을 토대로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과 지역민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노력이 마을벽화 사업을 성공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깨진 유리창의 법칙(Broken Window Theory) : 낙서, 유리창 파손 등 가벼운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

Ⅵ. 참고문헌

박구원(2020), 생활형 관광지「수암골 벽화마을」의 변화적 특성연구. 「동북아관광학회」16(1): 1-32

박철현·손다래·유형숙(2020), 벽화마을의 관광지화와 범죄예방효과「동북아관광연구」16(2): 63-80.

샤오추엔·이성원(2019), 공공미술로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속 벽화의 활용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25(4):256-270.

안현정(2010), 공공미술의 공공성 이해와 문화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미술교육논총」24(2): 371-396.

이주현·박철현(2020), 벽화마을의 범죄예방효과「공공정책연구」37(1): 223-239.

임병우(2019), 공공미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사업 사례 연구. 「문화와예술연구」13: 125-154.

정규상(2018), 공공미술 가치 향상을 위한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24(4): 354-363.

정수련(2020), 공공미술 관광지 품질요인의 비대칭적 만족도. 「호텔리조트연구」19(1): 147-167.

정윤정·김진아(2016), 이화동 마을벽화 훼손 사건을 통해 본 공공미술의 문제. 「인문콘텐츠」42: 79-102.

최문희·최문용(2009),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벽화에 대한 탐색적 방안.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15(3): 437-446.

홍유진·윤혜영(2019), 벽화마을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2: 203-206.

[네이버 지식백과] 벽화 [壁畵, wall painting]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한겨레신문(2021.3.12.) '동백 파마머리' 벽화는 어떻게 '핫플'이 되었나

M이코노미뉴스(2015.4.20.) 벽화마을의 '빛과 그림자

럭셔리 글램핑 시대, 급성장하는 캠핑 트렌드 분석

㈜문화희망 우인
정민용 소장

Ⅰ. 머리말

▶ 코로나 시대,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캠핑에 대한 수요 증가

코로나19로 관광, 호텔, 레저 산업 대부분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캠핑산업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실내 여가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타인과의 접점을 최소화하면서 야외에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여가활동의 탈출구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사회적 거리는 두되 여행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캠핑시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캠핑을 해외여행의 '대체재'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캠핑을 하지 않았던 신규 캠핑족이 늘어났다.

캠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캠핑을 즐기는 대상 또한 중장년층에서 젊은 층까지 확대되었다. 캠핑이 2040세대의 새로운 취미 생활로 떠오르면서 SNS 올릴만한 감성적인 캠핑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편리한 차박 캠핑이 이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의 증가로 캠핑의 대형화, 럭셔리화가 이루어지면서 캠핑산업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에 따르면 캠핑산업 규모는 2016년부터 매년 30%씩 꾸준히 성장해 올해는 4조 원대를 넘어섰다. 캠핑 이용자 수 또한 7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캠핑에 대한 급증한 수요에 힘입어 캠핑 관련 사업도 호황을 이루고 있다. 캠핑용품, 캠핑의류, 캠핑카 등의 캠핑 관련 시장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새로운 여가 문화로 각광받는 캠핑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 본 고는 저자의 의견으로서 한국관광공사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I. 야영장업의 정의

▶ 야영장업의 개념 및 관련 법령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며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된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며 관련법상 일정 기준 이상의 안전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야영장업은 관계부서에 따라 관련 법령이 존재하며 동법령에 의해 등록·관리된다.

[야영장별 관련 법령]

구분	관련법(관계부서)	법적 근거
1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서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로 정의하고 있음(법 제3조1항제3호다목)
2	자연공원법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야영장은 '공원시설' 중 하나로 휴양 및 편의시설에 포함됨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편의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하며, 숲속야영장도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한 편의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
4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관광농원내 야영장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 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의 승계), 제89조(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관광농원의 기타시설로 설치 가능
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휴양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되, 재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
6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적시하고 있음
7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가목(기본 및 기능시설)3)에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제5호 사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업을 위한 시설로 설치 가능
9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3호에 교육용 시설의 정의에, 폐교의 용도로 야영장이 추가로 신설(2020.02.21. 시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 야영장업 등록 기준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되며 야영장업 구분에 따라 야영지 규모 및 갖추어야 할 시설 등 등록 기준이 다르다.

일반야영장업이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야영용 천막 1개당 15㎡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야영업이란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춘 업으로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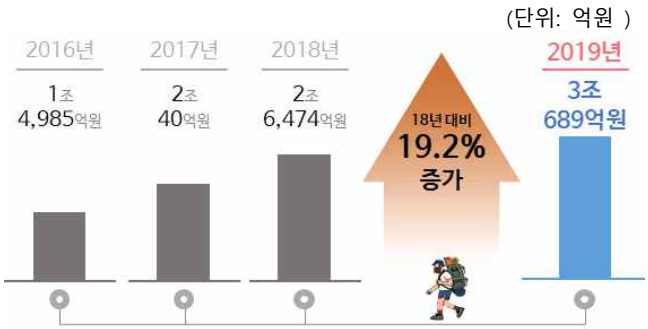
구분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특례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고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장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그 외 항목 동일 적용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초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 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적용되지 않음
공통기준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적용되지 않음
개별기준	야영지 규모	야영용 천만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좌동
	시설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일반)하수도 및 화장실 (자동차)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진입로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 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좌동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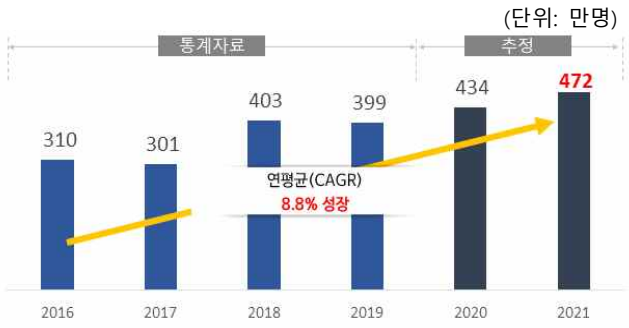
▶ 캠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 캠핑아웃도어 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캠핑 시장 규모는 2018년 2조 6,000억 원에서 매해 30%씩 성장해 2020년 기준 4조원대로 증가함
  - 2019년 기준 국내 캠핑산업 규모 약 3조 6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215억 원(19.2%) 증가함
- 국내 등록 캠핑장 수의 꾸준한 증가 추세임
  - 2018년 1,900개에서 2019년 2,233개로 17.5% 증가함
- 최근 5년 캠핑 이용자 수 연평균(CAGR) 8.8%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 2019년 기준, 국내 캠핑 이용자 수 399만 명(만19세 이상)으로 집계됨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 국내 캠핑 인구 약 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국내 캠핑산업 규모]



[캠핑 이용자 수 추이]



자료: 캠핑아웃도어 진흥원.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2017~2019)

- 2019년 1년 평균 캠핑 횟수는 4.4회로 전년도 대비 22.2%(0.8회) 증가함
  - 캠핑 평균 인원은 3.34명으로 전년도(3.91명)보다 줄어들었으며, 이는 코로나 여파로 소수 캠핑이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줌
- 2회 평균 캠핑 숙박 일수는 2019년 기준 1.6일로 전년도 대비 14.3%(0.2일) 증가함
- 캠핑 1회 시 1인당 지출비용은 2019년 캠핑 1회 기준 88,323원으로 전년도 대비 0.7%(599원)가 증가함

[1년 평균 캠핑 횟수]



[1회 평균 캠핑 숙박 일수]



[캠핑 1회당 1인당 지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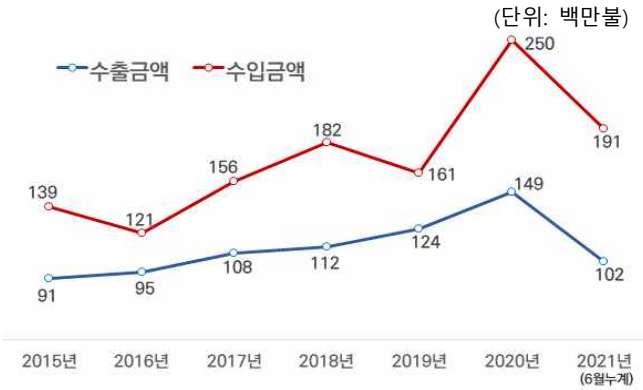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2020). 2019년 기준 캠핑관광 이용객 실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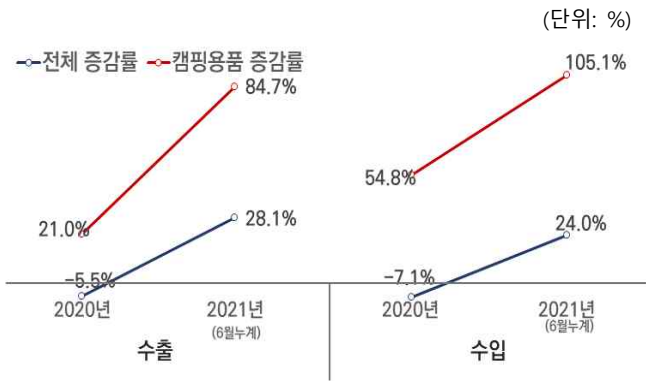
▶ 캠핑용품의 다양화 및 거래량 증가

- 캠핑 가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캠핑용 가전용품 범위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임
  - 캠핑용 난로, 휴대용 제빙기로 시작된 캠핑가전 열풍은 최근 무선 선풍기, 휴대용 공기청정기, 초소형 밥솥 등으로 계속해서 확장됨
  - 생활가전 업체들이 잇달아 캠핑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며 캠핑 시장 공략에 나섬
- 2020년 캠핑 카테고리 거래량 2019년 동기 대비 479% 증가함
  - 캠핑 성수기인 9월 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5% 증가해 약 7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이마트 캠핑용품 매출 전년 대비 25.9% 증가, 캠핑 관련 아웃도어키친 매출 14.7% 상승함
-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증감률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우리나라 수출입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캠핑용품 수출입은 전년 대비 각각 21.0%, 54.8% 증가함
  - 2021년(6월 누계)에는 우리나라 수출입이 전년동기대비 약 20% 증가한 가운데, 캠핑용품 수출 84.7%, 수입 105.1% 증가함

[주요 캠핑용품 연도별 수출입 추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과 캠핑용품 수출입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21). 주요 캠핑용품 수출입 동향.

- 국내 캠핑산업 규모 증가와 함께 주요 캠핑용품 수출입 크게 성장함
  - 주요 캠핑용품 수입 2021년(6월누계) 191백만 불로 전년동기대비 105.1% 증가함
  - 주요 캠핑용품 수출 2021년(6월누계) 102백만 불로 전년동기대비 57.7% 증가함

[캠핑용품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불, 백 톤, %)

구분		'19년	'20년		'21년(6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9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출	금액	124	149	21.0%	102	84.7%	75.1%
	중량	157	178	13.3%	105	53.7%	49.7%
수입	금액	161	250	54.8%	191	105.1%	136.2%
	중량	256	372	45.1%	247	73.6%	98.0%
무역수지		-38	-100	적자폭 확대	-90	적자폭 확대	적자폭 확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21). 주요 캠핑용품 수출입 동향.

▶ 2040 젊은 캠핑족의 지속적인 성장세

• 최근 주요 캠핑이용 연령대 2040으로 기존 장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이동함

– 캠핑이용자 연령대는 40대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30대(27.7%), 20대(22.2%), 50대(17.7%), 60대(2.7%)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20대, 40대 층의 캠핑이용 비율 크게 증가함

– 40대 증감률 14.7%p, 20대 증감률 14.6%p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캠핑이용 비율이 급증함

[캠핑이용자 연령대 비율]

(단위: %, %p)

구분	2018	2019	증감률
19-29세	7.6	22.2	14.6
30대	39.0	27.7	-11.3
40대	14.9	29.6	14.7
50대	23.5	17.7	-5.8
60세 이상	15.0	2.7	-12.3

자료: 한국관광공사(2020). 2019년 기준 캠핑관광 이용객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 캠핑관광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캠핑이용자 수는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2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숙박+당일 캠핑이용자 수 40대 111명(29.8%), 30대 103명(27.6%), 20대 83명(22.3%), 50대 50명(13.4%), 60세 이상 26명(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평균 캠핑 이용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숙박		당일		숙박+당일	
	캠핑이용자	이용 횟수	캠핑이용자	이용 횟수	캠핑이용자	이용 횟수
전체	277(100.0%)	4.4	213(100.0%)	4.3	373(100.0%)	5.7
19-29세	54(19.5%)	2.7	55(25.8%)	2.4	83(22.3%)	3.4
30대	72(26.0%)	4.6	64(30.0%)	5.1	103(27.6%)	6.4
40대	90(32.5%)	4.2	55(25.8%)	4.9	111(29.8%)	5.8
50대	40(14.4%)	3.8	25(11.7%)	4.6	50(13.4%)	5.4
60세 이상	21(7.6%)	9.7	14(6.6%)	6.0	26(7.0%)	11.3

자료: 한국관광공사(2020). 2019년 기준 캠핑관광 이용객 실태조사 보고서.

▶ 국내 캠핑장 현황

- 2021년 기준 국내 관광사업자에 등록된 야영장 총 2,830개소로 집계됨
  - 지역별 분포 현황은 경기지역이 668개소(23.6%)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도 584개(20.6%), 경북 348개소(12.3%), 경남 283개소(1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국내 야영장	
	야영장 수(개)	비율(%)
서울	13	0.5
부산	12	0.4
대구	19	0.7
인천	87	3.1
광주	5	0.2
대전	10	0.4
울산	24	0.8
세종	6	0.2
경기	668	23.6
강원	584	20.6
충북	196	6.9
충남	235	8.3
전북	134	4.7
전남	156	5.5
경북	348	12.3
경남	283	10.0
제주	50	1.8
합계	2,830	100.0%

자료: 한국관광공사 고캠핑(2021). 전국 캠핑장 현황.

[국내 야영장 현황]

(단위: 개소)



자료: 한국관광공사 고캠핑(2021). 전국 캠핑장 현황.

▶ 민간 럭셔리 글램핑

• 합천 모토라드

– 카라반 한 대당 약 1억 원이 넘는 에어스트림 카라반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에어스트림 파크

[합천 모토라드]

구분	주요내용	이미지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 525	
규모	• 5천평, 캠핑시설 37면	
캠핑시설	• 에어스트림파크 5면/ 오토캠핑 20면/ 텐트캠핑 5면/ 라이더 모토캠핑 5면/ 큐브하우스 2동	
부대시설	• 모토라드(BMW바이크)전시장 • 베이커리&카페, 갤러리(대관사업) • 편의점(이마트24 입점) • 캠핑 어메니티(개수대, 세탁실, 샤워실 등)	
특징	• 2019년 2월 오픈 • 국내 최초 에어스트림파크(개종되지 않은 오리지널)로 카라반 구매 예정 고객들의 쇼그라운드로 활용 • BMW바이크 전문매장과 캠핑장의 조합으로 바이크 및 RV여행객들의 성지로 자리매김	

자료: 각 홈페이지.

• 춘천 아웃오브파크

– 북한강 뷰, 단지 조경 및 카라반 배치를 통한 프라이빗한 공간 상품화한 최고급 카라반 캠핑장

[춘천 아웃오브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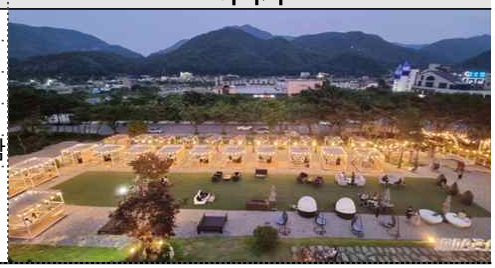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이미지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옹개길 52-9	
캠핑시설	• 에어스트림 카라반 37면	
부대시설	• 실외수영장/ 중앙분수광장 • 카페테리아 • 수상레포츠 • 키즈놀이터 • 하이킹, 둘레길, 힐링포레스트 등	
특징	• 에어스트림 클래식 모델을 정박형으로 리모델링 • 북한강 View를 활용한 단지 조경 및 카라반 배치로 캠핑장 부가가치 극대화 • 각 사이트별 프라이빗 캠핑공간 확보 • 수상레저, 카페테리아, 키즈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 • 카라반 분양을 통한 회원모집	

자료: 각 홈페이지.

▶ 야외 셀프 BBQ 특화 캠핑장

야외에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감성적 분위기의 셀프바베큐장으로 SNS를 통해 입소문 나면서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공주 에어산&92산]

구분	주요내용	이미지
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임금봉길88-27	
부지면적	• 3,971.9㎡(1,201.5평)	
개장	• 2021.06	
영업시간	• 평일 17:00~22:00/ 주말 및 공휴일 16:00~22:30	
이용요금	• 구이산(셀프바베큐): 35천 원(4인 기준) *그릴 및 숯포함	
도입시설	• 카페, 로스팅팩토리, 베이커리, 셀프바베큐장(큐브형 16동, 쉘터형 11동) 등	

자료: 각 홈페이지.

▶ 공공운영 캠핑장

- 고양 킨텍스 캠핑장

  – 사이트 크기 및 간격이 넓어 복잡함 없는 도심 속 여유 있는 캠핑장으로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인기

[고양 킨텍스 캠핑장]

구분	주요내용	이미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217-25	
부지면적	• 39,000㎡	
개장	• 2016.11	
이용요금	• 일반야영장: 평일 15천원/ 주말 25천원 • 오토캠핑존: 평일 25천원/ 주말 30천원 • 카라반(6인용): 평일 100천원/ 주말 130천원	
운영	•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입시설	• 캠핑장 사이트 총 86면(카라반 16대, 오토 25면, 야영장 45면 등) • 관리동, 샤워장 2개소, 세척장 2개소, 음수대 2개소, 화장실 등	

자료: 각 홈페이지.

-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 DMZ를 바라보는 캠핑시설로 6가지 캠핑존으로 나누어 다양한 캠핑 니즈 충족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구분	주요내용	이미지
위치	• 파주시 임진각관광지	
개장	• 2019.10	
사업방식	• 민간시설투자 및 위탁운영	
규모	• 126면(카라반/ 오토캠핑)	
도입시설	• 카라반(A,B,C), 오토캠핑(평화, 누리, 에코, 힐링, 렌탈 캠핑존) • 캠프닉(BBQ) •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장 등)	

자료: 각 홈페이지.

V. 결론

▶ 차박 열풍

힐링 트렌드와 맞물린 '비대면 여행'으로 차박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차박캠핑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각광 받으면서 차박 열풍은 젊은 층 수요를 불러일으켰다. 차박캠핑은 이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빠르게 성장하며 더 다양한 종류의 차박 캠핑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럭셔리 글램핑&카라반 인기

지금까지는 야영객이 자신의 텐트 장비를 휴대 및 설치하여 캠핑을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최소한의 물품으로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글램핑이나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등)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해외여행 대신 호화로운 캠핑을 선호하고 있으며 캠핑 연령이 다양화됨에 따라 안락하고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럭셔리 글램핑&카라반의 수요가 늘고 있다.

글램핑이란 글래머러스(glamou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한 신조어로, 법적으로는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야영용 트레일러를 의미하며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와 편의에 의해 여러 가지 소재를 경합한 다양한 글램핑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다. 통창, 소파베드 등 럭셔리 글램핑&카라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럭셔리 캠핑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글램핑, 카라반 예약 건수는 2020년 대비 261% 급증하면서 그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야놀자 통계). 고급 카라반 캠핑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대에 1억 원이 넘는 고급 카라반 등 고급 캠핑카브랜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 캠핑장비의 다양화, 고급화 및 감성캠핑 공간 선호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맞춰 캠핑장비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자신의 취향에 맞춰 캠핑장비의 대형화, 다양화,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다. 캠핑 브랜드 또한 고급화가 진행되며 캠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전문 브랜드 외에 아웃도어 업체의 캠핑라인 포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캠핑용품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의 캠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젊은 층을 겨냥해 디자인적 요소가 많은 감성적인 소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SNS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해 자신을 과시하는 젊은 층의 감성 소비트렌드가 캠핑에 적용되면서 SNS 업로드를 위한 감성 분위기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캠프닉(캠핑+피크닉), 불멍(장작불 보며 멍때리기) 등 캠핑 관련 감성적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캠핑 인구가 중장년층에서 젊은 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성적인 캠핑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Ⅵ.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p.7, pp.18-19.

캠핑아웃도어 진흥원.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2017~2019).

한국관광공사(2020). 2019년 기준 캠핑관광 이용객 실태조사 보고서. p.5, p.44, p.63.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21). 주요 캠핑용품 수출입 동향. p.2.

한국관광공사 고캠핑(2021). 전국 캠핑장 현황.

참여연구진

연 구 책 임　　한　교　남　　소 장

연　구　원　　김　석　태　　팀 장

연구보조원　　김　영　무　　연구원

(주)피디엠코리아

www.pdmkorea.com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37, 2F (논현동, 상원빌딩)

T　02-2607-7287 / F　02-2179-8851